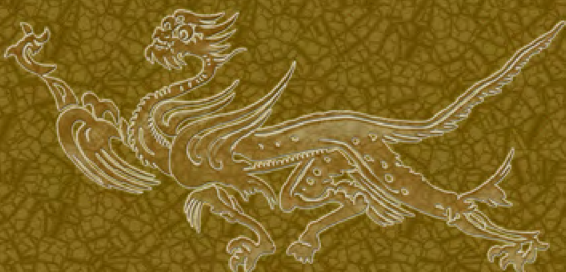
평양의 민속



평양의 민속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머 리 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도시이며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도시이다.》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평양은 예로부터 기후풍토와 자연지리적위치가 사람들의 생활에 유리하였고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므로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으로 되여왔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대동강문화의 발상지, 중심지로 되여왔으며 청동기와 철기 등 금속문화와 벼농사의 시원지로 되였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고 문화발전의 시원지로, 중심지로 되여온 평양에는 오랜 생활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다감한 민족적생활풍습이 력사와 더불어 전해지고있다.

평양은 지금으로부터 5천여년전인 B.C. 30세기초에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 고조선의 수도로서 근 3천년간 자기의 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왔다.

고조선의 뒤를 이은 고구려는 B.C. 277년에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봉건국가를 성립하고 247년에 평양을 부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427년에는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평양을 거점으로 남방진출을 다그쳐 삼국의

통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올려세웠다. 평양은 민족의 문화발전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고구려는 령토와 주민이 늘어나고 국력이 장성함에 따라 왕궁을 대성산기슭의 안학궁으로부터 보다 넓은 오늘의 평양시 중구역으로 옮기면서 552년부터 586년까지 35년간에 걸쳐 도시전체를 포괄하는 큰 규모의 평양성을 쌓았으며 이를 통하여 나라의 위용을 떨치고 수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였다.

고구려사람들이 남긴 벽화무덤들과 유적유물들은 오늘도 고구려의 강대성과 위용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활풍습을 그대로 나타내고있다.

대표적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덕흥리벽화무덤과 고국원왕릉을 비롯한 많은 벽화무덤들은 당시 평양일대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인민들의 뛰여난 재능과 민족적생활풍습, 발전된 문화와 강대성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삼국시기 평양은 고조선에 이어 고구려의 수도로서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계승하여왔으며 조선민족의 독자적인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다.

918년 왕건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가 성립된 이후 평양은 918년 9월에 대도호부로 되였고 그 다음해에는 서경으로 승격되여 수도 다음가는 부수도로서의 정치, 군사적거점으로 꾸려졌다.

고려태조 왕건은 평양을 두고 《수덕이 순조로와 우리 나라의 지맥의 근본이며 대업만대의 땅》이라고 하면서

평양에 의거하여 국가의 안녕을 이룩하라는 유언까지 남겼으며 고려말~조선봉건왕조 초기의 이름난 학자인 권근(１３５２년~１４０９년)도 《평양은 국가의 큰 관문이며 나라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 고려사람들은 색과 문양, 모양이 특출한 도자기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만들어 인류의 문명발전에 기여하였다.

평양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서북지방의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평양의 고유한 생활풍습을 계승발전시켜왔다.

이처럼 평양은 고조선, 고구려, 고려를 거쳐 내려오면서 나라의 수도, 부수도로 번성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민족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온 중심지로 발전하여왔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생활풍습의 공고화와 문화발전은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여러 분야에서 발휘되게 하였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깃들어있고 동방례의지국의 미풍량속을 자랑하는 조선민족의 풍속은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전하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차 례

농사풍습 ················5

의식주생활풍습 ······· 15
- 옷차림 ············· 16
- 식생활풍습 ········· 48
- 살림집생활풍습 ···· 72

민속명절과 민속놀이 102
- 민속명절 ········· 103
  - 설명절 ········· 104
  - 정월대보름 ···· 116
  - 청명 ··········· 121
  - 3월삼질 ········ 123
  - 6월류두 ········ 126
  - 7월칠석 ········ 129
  - 추석 ··········· 132
  - 9월중구 ········ 135
  - 동지날과 랍일 ·· 137
- 민속놀이 ········· 140
  - 택견 ··········· 140
  - 석전 ··········· 146
  - 씨름 ··········· 148
  - 그네뛰기 ······· 152
  - 널뛰기 ········· 155
  - 윷놀이 ········· 156
  - 바둑 ··········· 160
  - 연띄우기 ·······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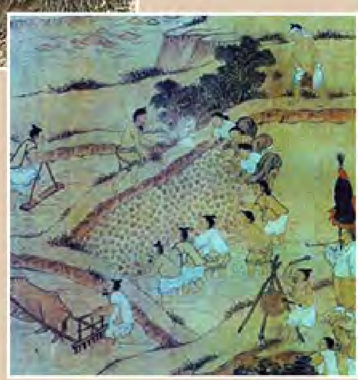
가정의례 ··········· 164
- 혼례 ············· 165
- 상례 ············· 172
- 제례 ············· 174

맺는글

농사풍습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다.

일찍부터 농사를 기본생산활동으로 하여온 평양인민들은 자연기후조건과 토지에 맞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합리적인 농사방법을 창조하고 개선해나갔으며 농사위주의 생산활동을 진행하였다.

고조선시기 우리 인민들의 농업생산활동은 력사기록을 통하여 잘 찾아볼수 있다.

《후한서》예전과 《삼국지》예전에는 고조선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해의 농사작황을 예언하였다는 내용과 남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에는 곡식으로 그 값을 갈아야 한다는 《법금 8조》의 내용이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고조선시기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농업이 기본생업으로 되여있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평양에서는 알곡재배에 유리한 자연기후조건으로부터 오래전부터 벼, 조, 수수, 콩, 기장과 같은 오곡을 재배하였다.

고조선시기의 유적인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36호 집자리에서는 당시 평양에서 심고 재배하여온 오곡이 발견되였다.

이것은 평양에서 오곡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오곡중에서도 벼와 콩은 작물의 기본을 이루고있었다.

옛문헌에는 408년에 축조된 고구려의 유주자사 진의 무덤인



평양시 삼석구역 남경유적 36호
집자리에서 발견된 오곡

덕흥리벽화무덤을 만드는데 1만명의 공력이 들었고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술, 고기, 흰쌀밥을 이루다 먹을수가 없었으며 한 창고분의 장을 먹었다고 기록되여있다.

여기에 반영된 쌀과 장은 평양지방에서 많이 심고 재배하여온 작물을 반영한것으로서 당시 벼와 콩을 기본으로 한 농사가 널리 진행되고 벼와 콩이 주식물의 기본재료로 되여 식생활에 많이 리용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배해온 농작물은 벼, 조, 기장, 수수, 콩, 팥, 보리 등의 알곡작물들과 들깨, 참깨와 같은 기름작물, 삼, 목화 등의 공예작물들이였다.

그후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이르러 담배, 고추, 강냉이, 감자와 같은 작물들이 보충되면서 농작물의 구성은 더욱 풍부해졌다.

이 과정에 우리 인민은 재배작물의 특성과 자연기후조건, 토양의 성질 등을 잘 파악하고 오랜 기간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농사방법을 창조하고 보급하여왔다.

평양에서의 농사는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농사차비, 씨붙임, 김매기, 가을걷이, 마당질의 순차로 진행되였다.

농사차비는 씨앗을 마련하고 거름을 장만하며 농쟁기를 준비하는것이였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좋은 씨앗을 마련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였다. 그것은 씨앗이 농작물의 소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농사군은 굶어죽어도 종자주머니를 베고 죽는다》는 속담까지 생겨났다.

씨앗마련은 잘 여문 이삭들을 골라 따로 베여들인 다음 그것을 마당질하여 알찬 낟알들만을 골라 충분히 말리워 마련하였으며 평양과 평안도지방에서는 대체로 웃방천정에 덕대를 매고 그우에 얹어 보관하였다.

씨앗마련에는 베주머니에 한되정도의 씨앗을 넣어 동지날

움에 묻었다가 립춘날에 파내여 제일 많이 불어난것을 좋은 씨앗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젖은 천에 일정한 량의 씨앗을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어 싹 틔워보고 씨앗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었다.

농사차비에서 거름장만은 논밭을 걸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거름장만을 위해 우리 인민들은 짚과 북데기, 연한 나무가지와 풀들을 웅뎅이나 집짐승우리에 넣어 썩인 다음 쳐내여 쌓아두었다가 거름으로 썼다. 이와 함께 진거름과 구들재, 구운 흙 등을 비롯한 온갖 거름원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밭을 걸구었다.



거름주기를 형상한 옛그림



대장간을 형상한 옛그림

우리 인민들의 논밭걸구기방법에는 논밭여러벌갈이와 몇가지 작물을 미리 심어 일정하게 자랐을 때 갈아엎어 썩이는 방법, 연한 개버들가지나 풀을 베여다 펴놓았다가 그것이 마른 다음에 불태우고 갈아엎는 방법 그리고 흙깔이법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농업생산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우수한 농사풍습이였다.

농사차비에서 농쟁기를 미리 준비하는것은 농사를 제철에 잘 짓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농가들에서는 여러가지 농쟁기를 미리 갖추어놓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농쟁기로는 거름이나 모춤, 낟알을 나르는 달구지, 발구, 옹구, 지게, 논밭갈이에 쓰는 연장, 논밭정리와 강하천정리에 쓰는 외가래, 삽, 써레, 쇠스랑, 씨뿌리기에 리용한 드베, 씨망태, 다래끼, 삼태기, 김매기때 쓰는 후치, 호미, 가을걷이때 쓰는 낫 등을 준비하였다.


논갈이를 형상한 옛그림


밭갈이를 형상한 옛그림

이가운데서 옹구, 지게, 도리깨, 드베, 씨망태, 다래끼, 삼태기 등 작은 농구들은 매 집들에서 자체로 마련하였고 큰 농쟁기들은 이웃사이에 힘을 모아 만들어쓰기도 하고 빌려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호미, 낫, 삽, 괭이와 같이 쇠붙이로 된 농기구들은 대장간에서 벼리여썼다.

이러한 농사차비에 기초하여 영농공정의 다음 단계인 씨붙임을 위한 논밭갈이를 진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춘분을 논밭갈이의 알맞춤한 절기로 정하고 이때부터 논밭갈이를 시작하였다.

이때를 가장 적절한 시기로 정한것은 이무렵에 낮과 밤시간이 같아 날씨가 따뜻해지고 땅이 완전히 풀리는것과 관련되여있었다.

논밭갈이에서는 토양조건에 알맞는 농쟁기를 써왔다.

평양지방에서의 논밭갈이는 부림소에 연장을 메워 진행하였다.

연장은 가대기의 한 형태로서 밭농사를 많이 짓던 우리 나라 서북지방과 중부지방들에서 리용한 갈이도구였다. 이와 함께 논밭갈이에는 가래, 써레, 쇠스랑과 같은 농기구들도 리용되였다.

씨붙임은 논밭갈이가 끝나는 차례로 진행하였다.

씨붙임에서 중요한것은 땅에 알맞는 작물을 심는 적지적작과 절기에 적합한 작물을 심는 적기적작의 요구를 지키는것이였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논벼씨붙임과 밭작물씨붙임을 다르게 하였으며 같은 작물의 경우에도 지대적특성에 따라 달리하였다.

해방전 평양부의 총 경지면적을 보면 36 280정보중에서 밭이 31 680정보에 달하였고 논이 4 573정보, 화전 및 기타가 27정보였다.

그리고 1955년 당시 논은 1 681정보, 밭은 8 131정보에 달하였다.

이것은 평양에서 밭작물을 위주로 한 농사를 하면서 그에 맞는 씨붙임을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밭작물의 씨붙임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조, 수수, 보리 등의 작물이였다.

조는 지방에 따라 얼마간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음력 3월하순 곡우를 전후한 때부터 음력 4월초 립하전에 심었다.

수수, 보리 등도 거의 같은 때에 씨붙임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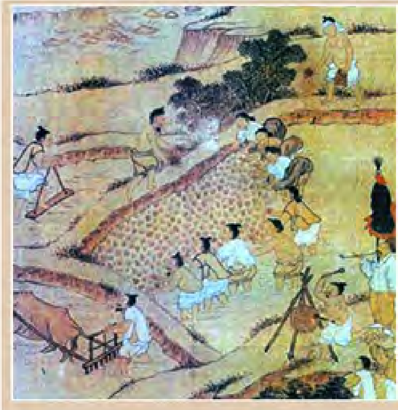
논벼씨붙임은 전국적범위에서 일반화되여있던 물갈이씨붙임, 마른갈이씨붙임, 모내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하였다.

물갈이씨붙임은 고르게 정리한 물논에 직접 벼씨를 뿌리는 씨붙임방법이다.

마른갈이씨붙임은 마른논을 고르게 정리한 다음 직접 벼씨를

뿌리고 싹이 터서 일정하게 자란 다음 애벌김과 두벌김까지 맨 후에 물을 대는 방법이였다.

모내기는 따로 만든 모판에서 벼모를 키워가지고 논에 옮겨심는 것으로서 조선봉건왕조 말기에는 전국적범위에서 일반화되여있던 씨붙임방법이였다.


모내기를 형상한 옛그림

이러한 논벼씨붙임방법은 전국적범위에서 일반화되여있던것으로서 평양주변의 논밭들에도 적용되였다.

씨붙임이 끝난 다음에는 씨솎음과 김매기를 련이어 진행하였다.

김매기는 작물에 따라 얼마간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는 음력 6월초부터 7월 하순경까지 진행하였다.


김매기를 형상한 옛그림

김매기에는 호미, 후치와 같은 농기구들이 리용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일반화되였던 밭후치질에 대하여 《천일록》에는 한마리의 소에 꾸레미를 씌워 이랑사이를 천천히 갈아나가는것을 속칭 후치질이라고 하며 지금 각 도 어디서나 이 방법을 쓰고있다, 밭농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후치질이다, 두둑의 흙으로 곡식

뿌리에 계속 북을 주므로 바람과 가물을 만난다 해도 곡식이 시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적으며 말라서 손해보는 일도 드물다, 또 장마를 만나면 이랑이 깊어서 물에 잡힐 념려도 없다고 기록되여있다.

김매기는 논이나 밭이나 할것없이 보통 세번씩 하였다.

가을걷이와 마당질은 한해의 농사일을 마감짓는 공정으로서 가을한 곡식이 마르는 차례로 제때에 거두어들여 진행하였다.


마당질을 형상한 옛그림


발방아를 형상한 옛그림

가을걷이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데는 소바리, 수레, 지게 등이 리용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지게의 리용률이 가장 높았다.

마당질도 농작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였는데 벼마당질은 벼단을 개상틀에 내려쳐서 벼알을 털거나 벼훑개로 벼알을 훑는 방법으로 하였고 밭곡식은 대체로 도리깨로 털어냈다.

마당질이 끝나면 낟알을 뒤주에 보관해두고 필요한 량만큼씩 꺼내여 찧었다.

그러므로 평양에서는 집집마다 절구, 망 등을 갖추어놓고 리용하였다.

그리고 고국원왕릉벽화에 발방아를 찧는 녀인의 모습이 그려져있는것으로 보아 평양지방에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리용하는 발방아시설이 갖추어져있었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평양지방에서의 농사는 농사차비로부터 시작하여 논밭갈이와 씨붙임, 김매기, 가을걷이와 마당질 등 여러 공정들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공동로동협조를 목적으로 한 품앗이, 소겨리도 운영되였다.

품앗이는 개별로동에 비한 공동로동의 우월성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목적으로부터 무어지고 운영된 로력협조조직이였다.

여기에서 품앗이의 품은 로동력을, 앗이는 지고 갚는것을 의미하며 품앗이란 말자체는 로력을 바꾼다는것을 말한다.

품앗이를 뭇는것은 지방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나 평양, 평안도지방에서는 대체로 로력자수가 같은 친척 또는 이웃한 두세집사이에 무었다.

품앗이는 일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여 함경도지방에서는 그것을 돌레, 돌개, 품들이라고 하였으며 평양, 평안도지방에서는 품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여 품바꿈이라고도 하였다.

품앗이는 농사일과 함께 집짓기, 이영잇기, 방아찧기, 우물파기, 삼삼이, 물레질 등 가정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쳐 널리 적용되였다.

품앗이는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작업대상 또는 서로 비슷한 작업대상에 대한 로력바꿈이였으나 농사일, 가정살림살이와 관련된 공동로동이 년중 계속되였으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작업대상에도 적용되군 하였다.

이때에는 손바꿈이라 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일로 품자루가 교환되였다.

손바꿈은 품앗이의 변형된 형태로서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로동에 대한 일반로동의 바꿈이였다. 즉 손바꿈은 이영잇기, 온돌수리, 미장작업 등과 같은 기술로동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사이에 널리 적용되였다.

품앗이와 손바꿈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그해의 품자루는 그해 안으로 갚았으며 또 같은 품자루로 갚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소겨리는 논밭갈이와 씨붙임때에 로력과 축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부림소를 중심으로 무은 로력협조조직이였다.

소겨리는 지방에 따라 소겨리, 소쩨리, 밭갈이쩨리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왔으며 거기에 망라되는것을 겨리에 든다, 소쩨리에 든다고 하였다.

소겨리는 일반적으로 부림소를 가진 농민을 중심으로 하고 부림소가 없는 네댓집의 농민들을 망라하여 무었다.

소겨리를 무을 때에는 보탑잡이, 거름펴기, 써레질, 씨앗뿌리기, 후치질 등을 맡아할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조직하였다. 부림소가 없이 소겨리에 망라된 사람들은 보통 콩짚, 벼짚과 같은 소먹이를 보장하는 등 로력적으로 더 많이 봉사하였다.

소겨리는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인 년초에 농민들사이의 간단한 약속으로 무어졌는데 보통 한번 무으면 다른 일이 없는 이상 해마다 그대로 운영되였다.

소겨리를 맺은 집들은 공동로동을 통하여 더욱 친밀해졌으며 특히 겨리소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고 소겨리안에서 공동로동에 제공한 로력공수와 소품계산은 따로 하지 않았다.

소겨리는 농사일에서 농민들의 협조정신을 발양시키는데 좋았으며 부림소가 부족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서로 도우며 부림소를 리용하는데서 합리적이였다.

이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전반적지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뚜렷한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농사차비, 씨붙임, 김매기, 풀베기, 가을걷이, 마당질의 순차로 농사일을 진행하였으며 여러가지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창안도입하고 공동로동협조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률을 높이여왔다.

의식주생활풍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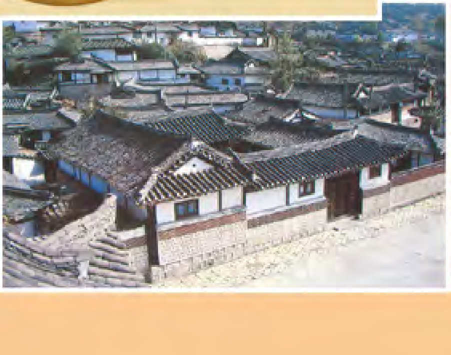
옷차림풍습



식생활풍습



살림집생활풍습



옷차림풍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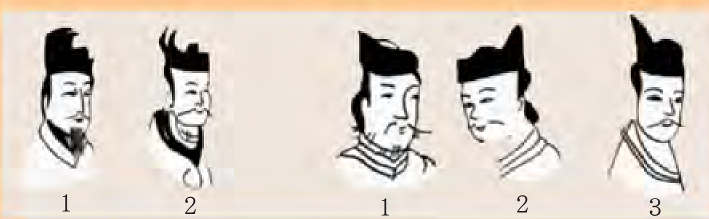
일찍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인민은 옷차림에서도 고상하고 문명한 민족으로서의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평양지방주민들은 먼 옛날부터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민족의 로동생활과 감정, 정서에 맞는 옷차림을 하여왔으며 우리 나라 력사의 전기간 민족옷차림의 귀중한 유산을 남기였다.

고대시기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일반화된 옷의 구성을 보면 이때에 벌써 저고리, 바지, 치마, 겉옷, 머리쓰개, 신발, 치레거리 등으로 구성되여있었으며 이밖에 성인남자들이 상투를 트는 풍습, 흰옷을 즐겨입는 풍습, 상제례때의 상복



고구려남자의 머리수건



문관의 책 무관의 책

고구려의 책

풍습 등이 있었다.

남자의 기본옷구성은 바지, 저고리, 겉옷(덧옷도 포함), 머리쓰개, 신발 및 치레거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녀자의 기본옷구성에는 녀자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바지와 저고리, 겉옷, 머리쓰개, 신발, 치레거리와 이밖에 치마가 더 있었다.

평양지방인민들의 옷차림새는 오랜 력사적기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과정에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 생활풍습에 맞게 더욱더 다듬어지면서 발전하였다.

고대와 삼국시기 평양인민들의 옷차림을 보면 저고리나 겉옷의 형태는 앞을 여미는 곧은깃으로 된것이 기본이였으며 일부 굽은깃(곡령)으로 된것도 있었다.

바지는 두개의 가랭이가 있는것으로서 남녀의 바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삼국시기 남자어른들은 모두 상투를 틀고 머리쓰개를 쓰는것을 풍습으로 하였다.

남자의 머리쓰개로는 천으



여러가지 신발들

로 만든 책이라는 쓰개가 리용되였고 녀자의 머리쓰개에는 면의라는 얼굴가리개가 있었다.

신발은 일찍부터 옷차림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우리 인민들의 생산활동과 방안생활풍습에 맞게 신목을 짧게 하는 것을 풍습으로 하였다.

이것은 신발을 벗고 방안생활을 하는 우리 인민의 풍습에 맞게 신발을 신기 쉽고 벗기 편리하게 만들어 사용한것과 관련된다.

옛 문헌기록에 의하면 고대에는 짚으로 만든 초신과 그밖에 가죽신이 있었다.

초신은 벼짚, 왕골, 삼 등을 엮어 만든 신으로서 고대 우리 인민들의 일반적인 신이였다.

가죽신에 관한 기록도 여러 문헌들에서 나오는데 《삼국지》부여관계기록에 의하면 날씨가 비교적 찬 곳에서 살고 짐승사냥을 많이 한 부여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리용하여 가죽신을 만들어 신었으며 그 가죽신을 혁답이라 한다고 하였다. 혁답은 남쪽지방의 진국사람들도 신었다.

고대에 짚신과 가죽신이 다 있었던것으로 보면 이 두가지 신발을 누구나 다 신을수는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경제적조건과 인민들의 처지로 하여 가난한 근로인민들은 짚신을 주로 신었으며 가죽신은 지배계급이나 부유한 계층들이 많이 신었을것이라고 본다.

고대사람들은 토시도 만들어 리용하였다.

토시는 손목과 팔을 보호하고 추위를 막으며 손동작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팔에 끼는 옷차림의 한 구성요소였다.

토시를 언제부터 만들어 리용하였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고대유적에서 청동토시가 나온것은 그 연원이 매우 오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함경남도 북청군 토성리에서 나온 고대의 청동토시를 보면

얇은 청동판을 말아서 팔에 낄수 있게 만든것으로서 겉면에는 새김장식을 하였다.

이러한 금속제 토시는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것이였으므로 귀족들이나 낄수 있었으며 그것은 대체로 하나의 의례용이 아니면 무관들의 무장의 하나로 리용되였다고 보아진다.

고대사회에서 사람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치레거리도 발전하였다.

남자의 치레거리로서 주목되는것은 허리띠이다.

남자들의 허리띠는 웃옷을 고정시키는데 리용되면서 눈에 잘 뜨이는것이므로 거기에 여러가지 장식을 많이 하였다.

《진서》에서는 부여사람들은 금, 은으로 허리를 장식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고조선과 진국의 유물들에 사람, 말, 사자, 호랑이, 룡과 같은것을 섬세하게 돋을새김한 띠고리가 있고 거기에 금도금과 보석장식까지 한



원형청동허리띠장식



청동팔찌와 청동방울



옥가락지와 옥비녀



가락지와 반지



구슬



귀걸이

호화스러운것도 있었다고 하였다.

녀자치레거리로서는 비녀, 귀걸이, 가락지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비녀는 본래 녀자들의 긴머리를 틀어서 고정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였는데 점차 장식적인 역할도 겸하게 되면서 여러가지로 곱게 만들어지고 녀자들의 옷차림에서 중요한 치레거리의 하나로 되였다.

고조선의 유물로서 청동과 뼈 등으로 만든 비녀가 많이 발굴된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고대에 이미 녀자들이 비녀를 많이 리용하였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고조선사람들이 사용한 청동비녀나 뼈비녀는 끝이 뾰족하고 뒤부분은 둥글었으며 그 모양은 외가닥으로 되였다.

특히 청동으로 만든 비녀에는 머리부분이 기계로 정밀하게 깎은듯이 매우 정교한것도 있었다.

이것을 통하여 그 당시에 비녀가 이미 실용적인것으로만이 아니라 장식적인 목적으로도 리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대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가락지도 사용하였다.

당시의 가락지는 대체로 가늘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결면장식을 한것과 하지 않은것, 또 그냥 옻칠만 한것 등이 있었다.

이처럼 고대에 고급한 치레거리들이 제작되여 리용됨으로써 사람들이 옷차림을 더 화려하게 할수 있었으나 이러한 치레거리들은 착취계급들만이 리용할수 있는것으로서 근로하는 인민들은 극히 보잘것없는 옷치레거리만을 리용하였다.

이렇게 고조선, 부여, 진국, 구려를 비롯한 고대국가의 주민들은 그때에 벌써 우리 민족옷차림의 기본면모를 갖추고있었으며 이것은 자연히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널리 일반화되여간 하나의 옷차림풍습이였다고 할수 있다.

특히 평양일대의 고구려무덤벽화자료들은 평양지방의 옷차림풍습이 그 이전시기부터 전민족적인것으로 일반화되고 발전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각이한 계층들의 옷차림을
반영한 고국원왕릉벽화

삼국시기 평양지방의 옷차림에서 주목되는것은 옷의 형태와 종류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것이다.

특히 녀자옷에서 새로운 형태의 옷들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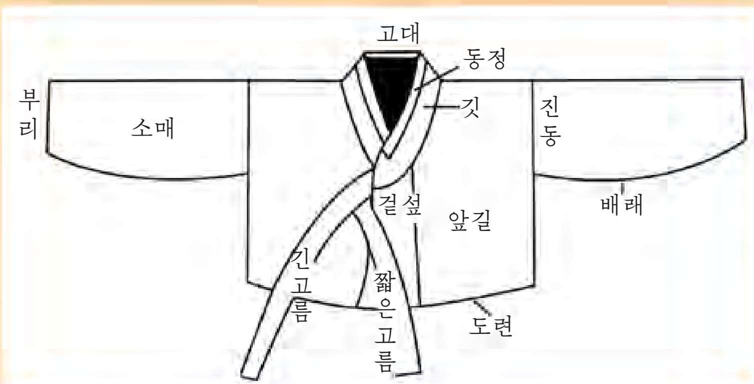
례하면 짧은저고리, 달린옷, 주름치마, 무지개치마 등 여러가지 형식의 옷을 들수 있다.

이것은 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보기 좋은 옷을 만들어입으려는 당시 평양지방주민들의 창조적지혜와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고국원왕릉벽화에 보이는 각이한 계층들의 옷차림은 당시 수도 평양일대에서 생활하고있던 사람들의 옷차림을 반영한것으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의 전반적옷차림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벽화에는 왕과 왕비의 화려한 옷들과 봉건귀족들이 입은 특수한 관복들, 예술인들의 무대옷들, 근로하는 인민들의 옷 등 다양한 옷차림을 직관적으로 잘 나타내고있다.

이 옷들은 모두 아래우가 나뉘여지고 여며입게 된 옷으로서 당시 왕이 항시적으로 거처하던 수도 평양의 옷차림을 나타내는



남자저고리의 형태와 부분명칭

것이였다.

고구려시기 평양지방인민들의 옷차림은 그후 우리 나라 민족옷차림풍습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발해,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장구한 기간 다정다감한 평양인민들의 감정과 정서, 체질에 맞게 끊임없이 변천되면서 계승발전되여왔다.

삼국시기 평양일대의 고구려무덤벽화에 반영된 남자옷차림을 보면 저고리에서는 기본이 곧은깃저고리와 둥근깃저고리로 되여있었다.

여기에서 곧은깃저고리는 깃이 직선으로 도련까지 내려오고 앞중심을 완전히 터친 웃옷으로서 그 길이는 허리아래까지 내려왔으며 깃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여며 허리띠를 매게 되여있었다.

둥근깃저고리는 깃이 둥글고 앞이 막혔으며 길이는 곧은깃저고리와 비슷하였다. 이 저고리도 허리띠를 매게 되여있었다.

이 두가지 형태의 저고리



여러가지형태의 남자저고리

가운데서 곧은깃저고리가 일반화되여있었다.

그리고 남자저고리에는 깃, 도련, 소매끝 등에 저고리바탕색과 다른 색의 좁은 천을 덧댔는데 이것을 선이라고 하였다.

저고리의 선은 옷에서 빨리 어지러워지거나 해지는 부위에 덧달아 수시로 갈아댐으로써 옷을 항상 깨끗이 입으려는 데로부터 생겨난것으로서 당시 녀자들의 저고리는 물론 거의 모든 남자들의 저고리와 그밖의 옷들에 있었으며 이것은 옷에 선을 대는것이 삼국시기 옷차림의 일반적풍습이였다는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예로부터 깨끗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생활관습을 잘 보여준다.

삼국시기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곧은깃저고리는 그후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에도 큰 변화없이 계승되였다.

고려시기의 남자저고리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이전시기의 긴저고리가 그대로 계승된것이였으며 다른 하나는 긴저고리가 변화되여 길이가 짧아지고 깃이 사선으로 된것이였다.

고려시기 남자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삼국시기 옷차림에서 옷을 몸에 고정시키던 허리띠가 필요없게 되고 그대신 고름으로 웃옷을 고정시키는 형식이 나오게 되였다.

이에 따라 깃도 고름을 매는데 편리하게 직선적인 형태로부터 사선형태로 변화되였다.

그리고 고려말에 짧은저고리가 일반화되였으므로 남자의 긴저고리는 점차 덧저고리로 리용되면서 후세까지 전해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남자저고리는 초기에는 고려시기의 저고리형태를 이어받았으나 그후에 깃과 길이 등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남자저고리의 변화에서 주목할만한것은 동정이 새로 생겨난것이였다.

동정은 저고리깃에 좁은 흰선을 덧달아 깃부위를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한데로부터 생겨난것이다.

동정은 조선옷의 고유한 요소로서 남녀저고리와 겉옷에 달았으며 어지러워지면 수시로 갈아댈수 있게 하였다.

남자저고리의 형태는 계절과 나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같았으나 저고리의 종류에는 계절에 따라 적삼, 깨끼저고리, 겹저고리, 누비저고리, 솜저고리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남자저고리의 색갈에는 흰색, 회색, 밤색, 푸른색 등이 있었는데 그가운데서도 흰색이 제일 많았다.

인민들은 주로 베, 모시, 무명으로 지은 흰저고리를 많이 입었으나 량반관료들은 흰저고리외에 색갈있는 비단저고리도 입었다.

남자의 아래옷에는 바지와 잠뱅이가 있었다.

고구려무덤벽화에서 보이는 삼국시기의 바지형태를 보면 짧은 바지와 긴 바지가 있었다.

바지에는 가랭이가 좁은 궁고, 가랭이가 넓은 대구



남자바지의 형태와 부분명칭



조선봉건왕조시기
남자바지, 저고리차림



남자의 여름로동복차림



남자누비바지

고가 있었는데 궁고는 활동에 편리하였으므로 주로 인민들이나 무술을 련마하는 군인들이 입었으며 대구고는 량반귀족들이 입었다.

삼국시기에는 바지에도 저고리와 같이 가랭이끝에 선을 댔다.

근로인민들이 입는 바지에는 주로 진한 색의 선을 달았지만 귀족들의 바지에는 붉은 밤색이나 무늬있는 선을 달아 장식적의의를 더 강조하였다.

삼국시기의 바지는 발해 및 후기신라에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였다.

바지는 그후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 점차 가랭이가 넓어졌다.

조선봉건왕조 말기까지 전하여온 남자바지에는 홑바지, 겹바지, 누비바지, 솜바지 등이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남자바지는 가랭이가 넓기때문에 가랭이끝을 대님으로 매여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잠뱅이는 농민들을 비롯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남자

들이 주로 여름철에 입던 아래옷이였다.

잠뱅이는 바지가랭이의 길이를 짧게 하고 너비를 좁게 하여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남자겉옷은 추위를 막기 위한 옷으로 먼 옛날부터 민족옷의 하나로 만들어지고 리용되여왔다.

고대에는 겉옷의 종류가 많지 않았으나 중세에 들어와서 그 종류가 점차 늘어났다.

그것은 이 시기에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겉옷이 봉건적신분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의 하나로 리용된것과 관련되였다.

그리하여 남자겉옷에는 웃몸만 덮는 짧은 겉옷과 긴 겉옷의 두 부류가 생겨났으며 여기에도 여러가지 종류의 겉옷들이 있었다.

짧은 겉옷에는 덧저고리, 마고자, 등거리(배자) 등이 있었다.

덧저고리는 말그대로 저고리우에 덧입는 저고리로서 저고리보다 길이가 약간 길뿐 형태는 꼭 같았다.

덧저고리를 입을 때에는 고름을 매고 로동에 편리하게 허리띠를 매는것이 관례였다.

덧저고리는 활동에 편리한 겉옷이였기때문에 농민들과 어부들, 산간지대 주민들이 겨울철에 많이 입었다.

마고자는 저고리와 비슷한데



남자마고자



남자등거리


두루마기차림


작은창옷차림

깃, 동정, 고름이 없고 섶을 여미지 않으며 고름대신 단추를 단 겉옷이였다.

마고자는 대체로 봄, 가을에 저고리우에 입는 간편한 겉옷으로 리용되였다.

등거리(배자)는 마고자와 류사한 저고리우에 입는 옷인데 량소매가 없으며 주로 겨울에 많이 입었고 정월명절의 특색있는 옷으로도 되여왔다.

등거리(배자)는 등에 걸쳐 입는 겉옷으로서 두가지 형태가 있었다. 그 하나는 깃과 소매가 없고 앞자락이 뒤자락보다 짧고 겨드랑이아래끝이 약간 터져있으며 맞섶형식으로 되여 끈으로 만든 매듭단추를 채우게 되여있는것이였다.

다른 하나는 깃과 동정이 있고 매듭단추대신 겨드랑이부분에 좁은 끈을 달아 앞가슴에서 등뒤로 한번 돌려 매게 된것이였다.

이러한 등거리(배자)들은 대체로 비단을 겹으로 또는 솜을 얇게 누비여 만들었으며 색갈은 람색으로 된것이 많았다.

긴 겉옷에는 두루마기, 창옷, 도포, 전복(쾌자) 등이 있었다.

두루마기는 겉옷가운데서 가장 력사가 오래고 널리 일반화되여온 겉옷이였다.

두루마기는 저고리의 길이를 무릎아래까지 길게 한 겉옷이였다.

그러므로 저고리와 두루마기는

언제나 호상 련관속에서 변화발전하였다.

두루마기는 베, 모시, 무명, 명주 등 여러가지 옷감으로 만들었는데 홑두루마기, 겹두루마기, 누비두루마기, 솜두루마기 등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그 형태는 대체로 같았다.

창옷은 량쪽겨드랑이밑에 무를 대지 않고 터친 겉옷이였으며 그 크기에 따라 작은창옷과 큰창옷이 있었다.

작은창옷은 깃, 동정, 소매, 길이 등이 두루마기와 비슷하지만 겨드랑이아래에 무를 대지 않고 곧추 터친것이 달랐다. 큰창옷은 작은창옷 우에 껴입는 겉옷이였으므로 작은창옷보다 품이 넓었으며 소매도 넓고 길었다.

이러한 창옷들은 1884년 옷개혁때 다른 넓은 소매겉옷들과 함께 페지되고 민간에서 제사때에만 일부 입었다.

도포는 등뒤를 터치고 전삼(네모진 천)을 덧대여 뒤를 두겹으로 한 겉옷인데 소매가 매우 넓고 길어서 손을 완전히 가리울 정도였다.



큰창옷차림

전복차림

도포에는 색실띠를 띠였는데 벼슬등급과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전복(쾌자)은 소매가 없고 맞섶으로 되였으며 무가 없이 겨드랑이 가까이까지 옆선을 터친 겉옷이였다.

조선봉건왕조 말기의 전복은 대체로 깃이 없고 맞섶이며 호박단추나 매듭단추를 한두개정도 달아주었다.

그러나 어린이용전복에는 깃과 동정을 달아주기도 하였고 깃부분을 색천쪼박으로 곱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전복은 일반적으로 람색의 사, 초 등 비단으로 만드는것이 관례였다.

평양지방인민들의 녀자저고리도 남자저고리와 마찬가지로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길이가 짧아지는 방향에서 변화되였으며 그에 맞게 깃, 섶, 소매 등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허리띠대신 고름이, 선대신에 동정과 회장이 생겨났다.

녀자저고리의 력사적변천을 보면 삼국시기에는 길이가 허리아래까지 내려온 긴저고리와 가슴부위까지 내려온 짧은





녀성들의 옷차림을 반영한 수산리무덤벽화

저고리가 있었다.

평양일대의 수산리무덤벽화에는 고구려시기 녀성들의 옷차림새가 생동하게 남아있다.

여기에서는 주름치마를 기본으로 한 평양지방의 치마저고리차림이 고구려 녀성들의 기본옷차림으로 널리 일반화되여있었다는것을 나타내고있으며 일본의 다까마쯔무덤벽화의 치마저고리차림과 일치한것으로 보아 주름치마를 기본으로 한 고구려의 옷차림이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 일반화되였을뿐아니라 주변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수산리무덤벽화를 비롯한 고구려의 여러 무덤벽화들에서 녀자들이 입고있는 저고리는 모두 길이가 허리를 훨씬 넘을 정도로 길며 소매로 손목을 덮었다.

그러나 고국원왕릉 동쪽곁칸벽화에 보이는 방아찧는 녀자의 저고리만은 길이가 가슴부위까지 내려오고 소매길이와 품도 저고리길이에 알맞춤하다.

벽화들에 보이는 두 부류의 저고리들은 평양지방인민들의 옷차림을 반영한것으로서 여기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긴저고리였고 달린옷도 있었다.

벽화에 보이는 긴저고리들가운데서 일반인민들의것은 소매길이가 손목까지



긴저고리차림



달린옷차림

오고 폭도 좁아 몸에 꼭 맞는것이였지만 귀족부녀자들의것은 품이 넓었으며 소매도 길고 넓었다.

삼국시기에 짧은저고리는 널리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로동생활에 편리하고 간편한것으로 하여 주로 근로하는 녀성들이 입었다.

짧은저고리는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에 이르러 널리 보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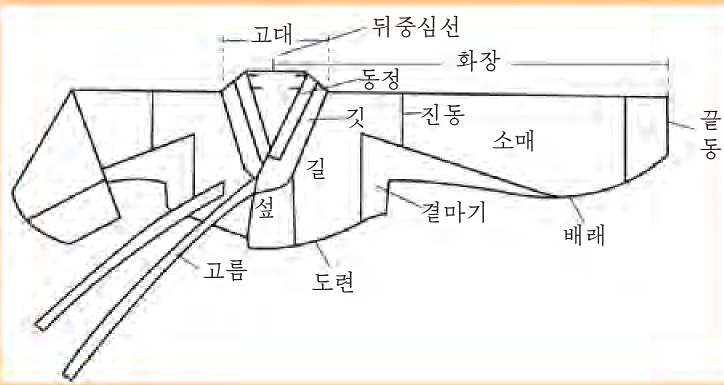
고려시기에 이르러 녀자저고리는 짧은것으로 단일화되였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부인들이 치마를 겨드랑이에 닿을 정도로 높게 매였다고 한것은 우에 입는 저고리가 그만큼 짧았다는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짧은저고리가 일반화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짧은저고리가 일반화되면서 긴저고리는 점차 없어졌으며 허리띠대신 옷고름이 생겨 일반화되였다.

짧은저고리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계승되여 더 세련되게 발전하였다.

조선봉건왕조 초기까지 계승되여온 녀자의 짧은저고리는 그후 저고리의 길이와 깃, 소매선, 옆선 등에서 일련의 변화를



녀자저고리의 형태와 부분명칭

나타내고있었다.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여온 전통적인 조선녀자저고리는 형태가 매우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고 고상하다.

녀자저고리는 남자저고리와 같이 깃이 사선지고 앞이 터진형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었다.

녀자저고리는 곧은 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서로 어울려 입고 나서면 깃이 서고 섶이 살아나 맵시가 날뿐아니라 저고리의 깃, 도련, 배래가 잘 조화되여 아름다우면서도 고상한 느낌을 주는것이다.

녀자저고리는 이밖에도 남자저고리와 마찬가지로 적삼, 깨끼저고리, 겹저고리, 누비저고리, 솜저고리등이 있었으며 그밖에 회장저고리와 같이 녀자에게만 고유한 저고리가 있었다.

회장저고리는 겹저고리와 솜저고리에 회장을 대여 만든 독특한 저고리이다.

저고리에 회장을 대는 풍습은 옷에 선을 대던 삼국시기의 풍습을 계승한것으로서 조선봉건왕조시기 저고리길이가 짧아진데 맞게 도련 대신 겨드랑이부분에 색천을 대는것이였다.

겨드랑이부분의 회장은 깃과



비단회장저고리



삼회장겹저고리





슬란치마



봄, 여름치마,
저고리차림



가을치마,저고리,
큰저고리차림

고름, 소매끝과 조화를 이루면서 저고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려는 장식적인 의의도 가지고있었다.

지난 시기 회장저고리의 깃, 겨드랑이, 소매끝 세 부위에 회장을 댄 저고리를 삼회장저고리라고 하였고 한곳이나 두곳에 회장을 댄 저고리를 반회장저고리라고 하였다.

평양지방녀성들은 예로부터 독특하고 아름다운 회장저고리를 즐겨입었으며 특히 혼례를 비롯한 의례때와 명절에 많이 입었다.

치마는 저고리와 함께 조선녀자옷의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특징짓는 전통적인 옷으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녀자아래옷이다.

치마의 기본형태는 시기적으로 크게 변화된것이 없으나 주름을 어느 부위에 잡았으며 선을 어디에 댔는가, 그 길이가 짧은가 긴가 하는데서는 일련의 차이가 있었다.

그가운데서도 치마주름을 잡은 위치의 변화에서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녀자치마는 크게 주름을 치마허리에서 아래단까지 세워 잡은 통치마(주름치마)와 허리에만 주름을 잡은 폭치마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삼국시기 평양지방의 녀성들은 주름치마와 폭치마를 다 입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름치마를 더 많이 입었다.

치마에 주름을 잡는 풍습을 보면 방법에

따라 드문드문 주름을 잡은것과 좁게 여러줄을 세운것이 있었으며 단색주름치마와 무지개치마가 있었다.

폭치마는 허리에만 주름을 잡았기때문에 허리부분이 좁고 아래는 퍼졌으며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간것과 땅에 닿을 정도로 긴것이 있었다.

그리고 치마에 무늬가 있는것과 없는것이 있었다.

삼국시기의 주름치마와 폭치마에는 치마단에 직선이나 톱날형의 선을 댄것이 공통적이였다.

치마에 단 선의 색갈에는 검은색이 많았다.

삼국시기에 있었던 두가지 형태의 치마는 그후에도 계승되였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미감과 취미가 달라지면서 폭치마를 더 많이 입게 되였다.

폭치마가 일반화되는것과 함께 치마를 허리에 고정시키던 풍습도 가슴부위에서 고정시키는 풍습으로 변하였다.

고려시기의 녀자들이 치마를 겨드랑이밑까지 올려입게 된것은 당시 녀자저고리가 짧아진 사정과 관련되였으며 이렇게 되면서부터 치마길이는 이전시기보다 더 길어졌다.

고려시기의 치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평양지방 녀성들의 폭치마에는 끄리치마와 도랑치마가 있었다.



폭치마차림



행주치마
차림





큰저고리와
큰저고리
차림

꼬리치마는 치마말기의 량끝에 허리에 매도록 맬끈을 달고 그 밑으로 치마폭을 넓고 길게 달아 아래몸을 완전히 감쌀수 있게 하였는데 열폭은 봉하지 않았다.

이러한 꼬리치마는 잎치마, 폭치마라고도 하였는데 당시 녀자들이 가장 많이 입은 치마였다.

꼬리치마에는 계절에 맞게 입는 홑치마, 겹치마, 솜치마 등이 있었다.

꼬리치마에는 치마의 아래단에 화려한 수를 놓거나 금장식을 한 슬란치마도 있었는데 이런 치마는 신분이 높은 량반집부녀자들이 입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꼬리치마를 입을 때 안에 무지기라는 속치마를 받쳐입었다. 무지기는 꼬리치마를 입을 때에 치마가 넓게 퍼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색이 겉치마를 통하여 은은하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 입었다.

무지기는 흰 모시나 항라와 같은 빳빳한 천으로 길이가 서로 다른 여러개의 주름치마를 층이 나게 이어서 허리단에 단 치마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폭치마에는 도랑치마(몽당치마)가 있었다.

도랑치마는 보통 무명이나 베로 만들었다.

이 치마는 주로 근로하는 녀성들이 등거리적삼에 받쳐입었는데 일할 때뿐아니라 일상옷으로도 입었다.

치마에는 또한 녀자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입는 앞치마가 있었다.

이 치마를 행주치마라고도 하였는데 행주치마라는 말은 그릇을 닦는 헝겊을 행주라고 이르는것과 련관시켜볼 때 부엌에서 입는 치마라는 뜻을 담고있다.

흰 무명이나 모시로 앞치마를 곱게 만들어 산뜻하게 받쳐입는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선녀성들의 아름다운 생활풍습이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예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한것을 좋아하였고 그것을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으로 삼아왔기때문에 부엌일을 할 때에는 의례히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 부엌일을 끝내고 방안에 들어가거나 찾아온 손님을 마중나갈 때에는 앞치마를 벗는것을 례절로 여겼다.

녀자겉옷은 그 종류가 비교적 많았으며 화려한것이 특징이였다.

조선봉건왕조 말기까지 평양지방의 녀자겉옷에는 웃몸에만 걸치는 짧은 겉옷과



녀자마고자



갖저고리


배자차림


녀자두루마기차림

몸전체에 걸치는 긴 겉옷이 있었다.

짧은 겉옷에는 큰저고리, 갖저고리, 배자 등이 있었다.

큰저고리는 저고리우에 덧입는 겉옷으로서 저고리형태와 기본적으로 같았으나 품이 넓고 맞깃, 맞섶으로 된것이 달랐다.

큰저고리의 깃은 둥근형으로서 좌우 깃이 서로 대칭되여있으며 동정은 있으나 고름이 없다.

큰저고리는 보통 겹으로 만드는데 주로 평양지방의 젊은 녀인들과 중년부인들이 봄, 가을에 입었다.

갖저고리는 보통저고리보다 길이와 품이 좀 크고 안에 털가죽을 대였다.

갖저고리는 평양지방의 중년이상의 녀성들이 즐겨입는 짧은 겉옷으로서 다른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것이였다.

갖저고리는 보통저고리보다 길이가 길고 품이 넓으며 안에 털가죽을 대고 가장자리에 털가죽선을 돌리였다.

갖저고리의 털가죽선은 보기에도 좋고 옷의 고유한 특색을 잘 나타낼뿐아니라 털의 질에 따라 갖저고리의 가치가 평가되였다.

갖저고리에는 겉을 하늘색이나 재색, 연한 밤색의 무늬돋친 비단천으로 하고 안에는 양털같은 보드라운 털가죽을 받쳤으며 옷의 가장자리에는 수달피와 같은 좋은 털가죽으로 보기좋게 선을 댄 고급한것도

있었다.

중부이남지방에도 갖저고리를 입는 풍습이 있었으나 겨울추위가 덜하였던 관계로 널리 입지 않았으며 소매에 털가죽을 대지 않는것이 일반적이였다.

그러나 평양지방에서는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이르러 가죽대신에 천으로 지은 저고리안에 털가죽을 대고 저고리의 가장자리에 털가죽을 댄 보기 좋은 갖저고리가 널리 퍼지였다.

이러한 갖저고리는 추위를 막기 위한 겨울철겉옷이였으므로 흔히 젊은 녀성들보다 추위를 잘 타는 중년이상의 녀성들이 많이 입었다.

특히 평양에서는 저고리보다 갖저고리를 더 많이 입었다.

배자는 큰저고리와 비슷한데 소매가 없는것이 다를뿐이다.

배자는 저고리우에 입는 짧은 겉옷이였기때문에 그 길이는 대체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따라 같이 짧아졌다.



당의와 당의차림


원삼과 원삼차림

배자는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로 만들었다.

봄, 가을에는 얇고 성글게 짠 사나 모시로 겹으로 만들었고 이른 봄이나 늦가을의것은 두터운 비단을 겉감으로, 무명을 안감으로 하여 겹으로 만들었다.

추운 겨울에는 안에 털가죽을 대고 가장자리에 고급한 털로 보기 좋게 선을 달았는데 이런 배자를 털배자라고 불렀다.

털배자는 평안도지방에서 중년이상의 녀성들이 겨울과 이른봄, 늦가을에 많이 입었는데 이 지방에서는 털배자를 새각시의 혼례옷으로 리용하는 풍습도 있었다.

특히 람색털배자는 보기 좋고 지방적특색이 진하게 풍기는 옷으로서 새색시의 례복으로 많이 리용되였다.

녀자들의 긴겉옷에는 두루마기(장옷), 당의, 원삼, 활옷 등이 있었다.

두루마기는 녀자저고리의 길이를 무릎아래까지 길게 만든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 초기에만도 녀자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였는데 봉건유교도덕이 강조되고 남자와

녀자의 옷차림구별이 엄격해지면서 두루마기를 입는것이 적어지고 그대신 나들이를 갈 때 얼굴가리개로 많이 리용되였다.

그후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이르러 봉건적인 통치체제와 옷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녀자들이 두루마기를 널리 입게 되였다.

녀자들은 두루마기를 남자들처럼 사철겉옷으로 입는것이 아니라 주로 날씨가 찰 때 추위를 막기 위하여 입는것이 관례였다.

평양의 녀인들은 두루마기대신에 갖저고리를 즐겨입었으며 여기에 머리수건을 썼다.

우리 나라 남부지방녀인들이 조바위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을 때 갖저고리에 수건을 쓴것은 평양녀인들이 남부지방보다 찬 기후조건과 늦게까지 얹은머리를 하고있은 풍습과 관련된다고 보아진다.

당의는 녀자저고리와 비슷한데 길이를 무릎에 거의 닿을만큼 길게 만든 겉옷이였다.

저고리와 다른것은 량쪽 겨드랑이밑을 길숙이 터쳐놓고 무가 없이 세 자락으로 된것이였다.

당의는 일반적으로 량반집부



활옷



장옷차림


쓸치마차림


너울차림

녀자들이 명절날에 입었으나 평상시에도 례의를 갖추기 위해 입는 경우가 있었다.

원삼은 맞섶에 뒤자락이 길고 앞자락이 짧으며 소매에는 색동을 놓고 그 끝을 둥글게 한 궁중례복의 하나로서 색비단이나 명주로 만들었다.

이러한 원삼은 평양지방의 일상옷차림은 아니였으나 민속명절이나 혼인의례때 원삼을 입고 칠보단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활옷은 그 형태가 원삼과 비슷한데 소매끝과 앞자락에 화려한 꽃무늬수를 놓은것으로서 평양에서는 일부 량반지배계급들의 옷으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활옷은 궁중례복의 하나였으므로 민간에서는 활옷차림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새색시의 혼례옷으로 입기도 하였다.

녀자들의 옷에는 특수하게 얼굴가리개가 있었다.

녀자들의 얼굴가리개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널리 일반화된 하나의 옷차림으로서 평양의 녀인들도 얼굴가리개를 하였다.

그것은 이시기 봉건유교사상과 도덕이 녀성들을 심히 구속한데로부터 바깥출입을 할 때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것이 례의에 어긋나는것으로 되여있었고 이로하여 부녀자들속에서 얼굴가리개가

하나의 옷차림으로 널리 퍼지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얼굴가리개에는 장옷, 쓸치마, 너울 등이 있었다.

장옷(두루마기)은 조선봉건왕조 초기까지 녀자들의 겉옷이였으나 그것을 입는것이 금지되자 점차 얼굴가리개로 되였다.

장옷을 얼굴가리개로 리용하게 된 초시기에는 입고다니던 장옷을 그대로 쓰고 다녔지만 점차 편리하게 개조하여 쓰고 다니였다.

장옷은 주로 검푸른색 또는 풀색무명이나 명주 등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장옷은 봉건적신분제도가 문란해진 조선봉건왕조말기에 와서 녀자들이 얼굴을 내놓고 다닐수 있게 되고 두루마기를 다시 겉옷으로 입고 다닐수 있게 되면서부터 얼굴가리개로서의 장옷은 자연히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쓸치마는 머리에 쓰는 치마를 이르는 말이였다.

흔히 흰 모시나 얇은 무명으로 만들었으며 그 형태는 보통치마와 같았고 폭이 좁고 길이가 좀 짧은 점이 달랐다.

너울은 삿갓테두리에 얇은 천을 대여 허리까지 내리드리우게 한것으로서 내리드리우는 천이 두터우면 눈앞에만 얇은 천을 대여 밖을 내다볼수 있게 하였다.

너울은 조선봉건왕조 전기간 녀자들의 얼굴가리개로 되여왔으나 다른 쓰개들보다 불편하였으므로 주로 궁녀들과 일부 량반집부녀자들이 썼을뿐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녀자들의 얼굴가리개는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와서 점차 없어졌다.

근세까지 전해진 평양지방의 옷차림풍습가운데서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특이한것은 우선 명주로 옷을 많이 지어입은것이다.

특히 아당두와 토두는 중부이남지방에서는 보기 드문것이였다.

아당두는 물들인 명주천이고 토두는 큰 누에고치를 골라 손으

로 뽑은 실로 짠 명주천을 말한다.

명주옷은 물론 상류계층들이 많이 입었으나 적지 않은 일반 주민들도 입었다.

지난날 《명주옷은 사촌까지 덥다.》는 말이 평양지방에서 널리 전해졌는데 그것은 명주옷이 보온이 잘되여 기온이 낮은 이 고장의 기후조건에 맞는 옷으로 널리 보급되여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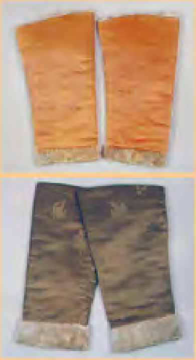
이것은 평양지방이 고조선시기부터 잠업이 발전하고 명주가 많이 생산된 곳이였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삼국지》에 의하면 고조선인민들은 일찍부터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뽑아 여러가지 고운 비단천을 짰다고 하였다.

평양지방의 일상옷차림에서 특징은 옷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며 옷의 형태가 다른 지방에 비하여 풍만한것이다.

대체로 웃옷이나 겉옷의 길이가 남쪽지방의것보다 길고 품도 좀 넓었다.

그러므로 이곳 옷차림새는 사람들로 하여금 풍만한감을



토시



털등거리

느끼게 하였다.

평양지방에서는 겨울이면 솜바지저고리안에 중의적삼(또는 적의적삼)을 입는것이 다른 지방과 구별되였다.

중의적삼이라는것은 아래옷(바지)이 무릎밑까지 오고 웃옷(적삼)은 주머니, 동정들을 모두 박아 지은것으로서 그 형태가 마치 중부지방의 잠뱅이적삼(여름옷 또는 로동복)과 같은것이였다.

중의적삼은 솜옷안에 껴입는 속옷으로서 추위를 막는데 좋았다.

방한용토시는 평양지방의 겨울철 일상옷차림에서 필수품이였다.

토시는 손목과 팔을 추위로부터 보호한다.

토시에는 걸과 안을 비단으로 한것과 걸을 비단으로 하고 안을 털가죽으로 한것이 있었다.

토시는 남녀로소 할것없이 다 꼈다.

특히 추위를 더 타는 로인들의 경우에는 겨울옷차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것이였다.

털등거리(배자라고도 한다.)는 평양지방의 특색있는 녀자



머리수건차림

겨울겉옷의 하나로서 젊은 녀인들이 많이 입었다.

털등거리의 형태는 맞깃, 맞섶으로 되고 동정이 있는 점에서 갖저고리와 비슷하나 소매가 없고 길이도 짧은것이 다르다.

털등거리겉면은 양단, 모본단 등으로 하고 안에 털가죽을 대며 가장자리에 수달피와 같은 고급한 털가죽으로 선을 돌리였다.

털등거리의 색갈은 대체로 람색이 많았으며 그밖에 자주색이나 다른 짙은 색갈로도 하였다.

특히 람색털등거리는 새색시의 혼례옷으로 널리 리용되였다. 그러므로 남자집에서 녀자집에 례장을 보낼 때 털등거리는 의례히 빠져서는 안되는 례물의 하나로 되여있었다.

녀자들이 머리수건을 쓰는 풍습은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지방에 다 있으나 수건의 형태와 쓰는 방법에서는 평양지방이 독특하였다.

함경도나 강원도지방 녀자들은 바른4각형의 천을 세모지게 접어서 머리전부를 덮었고 끝은 매지 않고 곱게 접어 넣었다.

그리고 수건은 사철 홑것으로 하였다.

남쪽지방에서는 일할 때를 내놓고는 수건을 쓰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평양지방의 녀자들은 긴 장방형의 천을 네겹으로 접어서 정수리만 내놓고 머리부터 이마까지 다 가리웠다.

이것을 나비수건이라고 불렀다.

이 수건은 고구려 쌍기둥무덤벽화에 그려져있는것처럼 흰천을 접어 이마에 동여맨 녀자의 머리수건과 비슷한것으로 보아 그 유래가 매우 오래다고 말할수 있다.

평양지방에서는 머리수건을 봄과 가을에는 겹으로 하고 겨울에는 흰 명주에 솜을 넣어 지었으며 여름에는 선선하게 모시나 베를 가지고 홑것으로 지었다.

평양지방의 녀인들은 사계절 흰천으로 만든 수건을 썼으며 제사를 지내거나 나들이를 갈 때에는 반드시 수건을 쓰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여있었다.

그리고 다른 지방과 달리 계절에 따라 머리수건의 형식을 달리하였는데 이것은 옷차림을 계절에 맞게 단정히 하는 풍습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평양지방의 특색있는 옷차림들에는 겨울의 기온이 비교적 낮은 이 고장의 기후적특성과 인민들의 생활감정, 미적요구가 잘 반영되여있었다.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계승되여온 평양지방의 옷은 오늘 고상하고 우아한것을 좋아하며 깨끗하고 다감한 우리 인민들의 감정과 정서, 기호와 취미를 반영하면서 시대적미감에 맞게 세련된 옷으로 발전하였다.

식생활풍습

평양지방은 산세가 수려할뿐아니라 땅이 비옥하여 일찍부터 오곡농사가 잘되였으며 도시 한복판으로는 대동강이 흐르고 이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는 서해가 있으므로 수산물도 많았다.

그러므로 평양일대의 주민들은 풍부한 음식재료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우수한 민족음식을 창조하여왔으며 전통적으로 계승발전시켜왔다.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평양랭면, 평양온반. 평양숭어국, 노치 등의 음식들이다.



국수누르기

평양랭면은 예로부터 평양사람들이 자랑하는 음식이다.

국수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의 하나였으며 잔치상이나 돌상에 곁들이는 음식으로 되여있었다.

평양랭면은 낟알가루를 되게 반죽하여 분틀에 넣고 눌러 가늘고 긴 오리를 뽑아 끓는 물에 삶은 다음 국수물에 말아서 여러가지 꾸미를 놓아 먹는 음식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헌인 《동국세시기》에서는 메밀국수를 무우김치와 배추김치에 말고 돼지고기를 넣은것을 랭면이라 하는데 관서지방의 국수가 제일 좋다고 기록하고있으며 《해동죽지》에서도 평양랭면이 제일 좋다고 기록하고있다.

평양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맛있게 담근 동치미에 국수를 말아먹는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겨왔다.

평양랭면이 평양의 명물이고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있었으므



평양랭면

로 다른 지방에서 국수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평양랭면옥》이라는 간판을 달기 좋아하였다.

평양랭면이 맛있는 음식으로 소문난것은 랭면의 재료와 함께 국수물, 꾸미와 고명, 양념, 국수담는 그릇과 국수말기 등이 독특하기때문이다.

평양랭면은 우선 국수감이 좋았다.

평양랭면의 주되는 재료인 메밀은 사람의 몸에 좋은 여러가지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옛날부터 장수식품으로 일러왔다.

그리고 메밀국수는 국수오리가 지나치게 질기지 않고 먹기에 알맞춤하며 메밀에서 나는 고유한 맛은 메밀국수의 맛을 더욱 돋구어준다.



동치미

평양랭면은 또한 국수물맛이 특별하였다.

평양랭면은 김치국물이나 고기국물에 말기도 했는데 흔히는 동치미국물에 말았다.

평양동치미는 무우를 마늘, 생강, 파, 배, 밤, 준치젓, 실고추 등으로 양념을 잘하여 독에 넣은 후 김치물을 많이 부어넣고 잘 봉하여 익히기때문에 그 맛이 특별하다.

이렇게 만든 동치미국물은 시원하고 쩡하며 감칠맛이 있어 국수물로 아주 적합하였다.

평양랭면의 국수물맛이 유별난것은 바로 이러한 동치미물과 육수물배합이 독특하기때문이다.

평양랭면은 육수물에 동치미물을 잘 배합하여 말기때문에 다른 지방의 메밀국수보다 맛이 시원하고 새큼하므로 뒤맛을 감치게 한다.

평양랭면은 또한 국수말기가 독특하다.

평양랭면은 동치미나 육수물맛에 잘 어울리게 시원한 감을 주는 놋대접에 담으므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구미를 돋구어준다.

그리고 국수를 말 때에는 그릇에 먼저 국물을 조금 두고 국수를 사려서 수북이 담은 다음 그우에 김치와 고기, 양념장, 닭알, 배, 오이 등의 순서로 꾸미를 얹고 실파, 실고추로 고명한 후 국물을 붓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양랭면은 맛이 좋을뿐아니라 겉보기에도 특색이 있으므로 조선국수의 대명사로, 민족음식을 대표하는 우수한 음식의 하나로 인정되고있다.

평양랭면은 그 맛이 독특한것으로 하여 무더운 여름철뿐아니라 추운 겨울날에도 즐겨먹는 음식으로 되였다.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65℃~70℃의 물로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국수를 누르고 끓는 물에서 1분 40초 정도

익힌 다음 찬물에 씻어가지고 사리를 잡아 물기를 찌운다.

국수국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삶아 채에 걸러 식힌 국물에 동치미물을 섞어서 만들며 닭알은 삶아서 절반 쪼개고 꿩고기는 다져서 완자를 만든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편으로 썰고 닭고기는 가늘게 찢으며 오이는 버들잎모양으로 썰어서 식초, 사탕가루, 소금에 무치고 배는 썰어서 연한 소금물에 담그어놓는다.

그 다음 놋대접에 국수사리를 추려서 담고 꾸미로 배, 김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이의 순서로 놓은 다음 삶은 닭알 반개를 얹어놓고 국수물을 1/3쯤 붓고 참기름을 둔 다음 잣알을 띄워 낸다.

겨자와 고추가루, 간장, 국수국물, 식초는 따로 낸다.

평양랭면을 먹을 때에는 식초를 육수물에 치지 말고 국수



쟁반국수

발에 둔 다음 그것을 육수물에 말아야 제맛이 난다.

이렇게 평양랭면은 그 가공과 식사에 이르기까지 랭면의 고유한 맛을 충분히 낼수 있게 되여있어 평양지방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였으며 모든 집들에서는 의례히 국수분틀을 필수적인 부엌세간의 하나로 갖추어놓고 생활하였다.

그리고 음식감이 마련되는데 따라 국수를 눌러먹었으며 특별히 차리는 잔치상, 돌상에도 반드시 국수를 곁들이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삼아왔다.

평양국수에는 랭면과 함께 쟁반국수가 또한 유명하다.

쟁반국수는 국수를 쟁반에 담는다는데서 붙은 이름이다.

쟁반국수는 국수를 담는 그릇, 양념, 꾸미 등에서 랭면과 차이가 있었다.

랭면은 놋대접에 담았지만 쟁반국수는 직경 30㎝ 정도의



평양온반

둥근 반에 높이 7～8㎝정도의 둥근 발이 달린 놋쟁반에 담는다.

국수사리도 랭면보다 2배가량 더 많으며 양념, 꾸미, 고명도 많이 두었다.

랭면과는 달리 국수사리를 쟁반에 고루 펴며 그우에 고추가루, 파, 깨, 소금, 참기름, 배, 닭알 등과 닭고기, 소고기의 편육을 맵시있게 썰어 볼품있게 놓은 다음 국물을 붓는다.

쟁반국수는 신선로와 같이 술안주로도 썼는데 이 경우 국수사리는 3～4명이 먹을 정도로 듬뿍 놓았으며 양념, 꾸미와 고명을 많이 하였다.

평양온반은 오랜 옛날부터 평양사람들이 밥을 주식으로 해오는 과정에 생겨나고 유명해진 주식물이였다.

평양온반은 사발에 골싹하게 담은 흰쌀밥에 소금을 두고 끓인 닭고기국을 부은 다음 닭고기를 잘게 썰어두고 후추가루에 버무린 록두지짐을 꾸미로 얹은 독특한 음식이다.

경기도사람들이 흰쌀밥에 간장을 넣고 끓인 장국밥을 즐기였다면 평양사람들은 소금을 넣고 끓인 닭고기온반을 즐겨먹었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록두는 타개여 물망에 갈아 직경 7cm 정도의 지짐을 지져놓고 흰쌀은 밥을 지어놓는다. 그리고 버섯은 찢어서 양념하여 볶아놓는다.

닭고기는 푹 삶아서 찢어 양념하고 닭고기를 삶은 물에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고 한소끔 끓인 간장에 고추가루, 다진 파와 깨가루, 참기름을 두고 양념장을 만든다.

그 다음 대접에 밥을 담고 그우에 록두지짐, 버섯볶음, 닭고기를 꾸미로 얹은 다음 더운 국물을 붓는다. 그우에 깨소금과 깨가루, 후추가루를 뿌리고 양념장과 나박김치를 따로 낸다.

평양온반은 록두지짐을 꾸미로 얹은것이 특징이다.

평양사람들은 삼복더위때 비빔밥을 즐겨먹었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우선 흰쌀로 밥을 되직하게 지어놓고

소고기는 가늘게 찢어 양념에 재웠다가 볶는다.

록두나물, 미나리는 데쳐서 양념에 무치고 고사리와 도라지는 삶아 우리며 송이버섯은 가늘게 찢은 다음 따로따로 볶는다.

김은 구워서 부스러뜨리고 고추장은 약간의 국물, 사탕가루, 깨가루, 다진 파와 마늘, 참기름을 넣고 잘 풀어놓는다.

큰 대접에 밥을 담고 그우에 소고기볶음과 나물들을 색을 맞추어 담는다.

고명으로 실닭알을 놓고 구워서 부스러뜨린 김을 뿌리며 뜨거운 맑은 국과 나박김치, 고추장을 곁들인다.

여기서 고명이란 음식의 맛과 모양, 색갈을 돋구기 위하여 음식우에 덧놓거나 뿌려놓는 가공부재료를 말한다.

이러한 고명의 유래에 대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헌인 《성호새설류선》에서는 처음에 대추로 떡우에 글자를 만들어서 찌기때문에 그것을 명이라고 한것인데 지금은 글자가 아니지



평양비빔밥

만 고명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것이라고 기록하고있다.

즉 본래는 떡우에 오래 살거나 행복을 바라는 뜻이 담긴 글자를 새기던것이였는데 그것이 단순한 장식으로 된 다음에도 고명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아서 전해지게 되였다는것이다.

소고기대신 돼지고기를, 미나리대신 시금치나 쑥갓을 쓰기도 한다.

또한 어죽, 닭죽도 평양의 별식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옛 기록에서는 평양어죽은 생신한 물고기를 넣고 쑨 죽인데 그 맛이 아주 좋다고 하였다.

그 방법을 보면 물고기는 푹 삶아 살만 떼내고 국물은 채에 거르며 국물에 조개살과 불군 흰쌀을 두고 죽을 쑨다.

쌀이 퍼지면 건져놓았던 물고기살과 다진 파, 마늘, 소금, 후추가루를 두고 간과 맛을 들이고 죽이 끓을 때 닭고기를 더 넣기도 한다.



평양어죽



평양닭죽

평양지방사람들은 6월 류두날에 대동강가에 나가 목욕을 한 후에 가막조개나 물고기를 잡아 강변에서 남비를 걸고 어죽을 쑤어먹으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하여왔다.

대동강의 어죽은 물고기대신 닭을 가지고 가서 죽을 끓여먹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평양어죽이라고 하면 닭죽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평양닭죽도 평양인민들이 즐겨먹은 음식이였다.

그 방법을 보면 닭고기는 삶아 가늘게 찢어 양념한 다음 불군 흰쌀을 끓는 닭고기국물에 넣고 끓이다가 쌀알이 퍼지기 시작할 때 닭고기를 넣고 더 끓인다.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실파를 넣은 다음 닭알을 풀어넣는다.

닭알물이 익기 전에 죽을 대접에 담고 후추가루, 깨가루를 뿌리며 닭고기가 절반쯤 익었을 때 숭어나 메기를 넣고 죽을 쑤기도 한다.

이 음식은 평양의 별식으로서 이전시기에는 천렵하러 갔을 때 닭을 잡아 고기는 술안주로 하고 그 국물에 쌀을 안쳐 죽을 쑤었다.

죽을 먹을 때에는 되직한 고추장을 한술한술 놓아가며 먹었다.

닭죽은 록두지짐, 평양어죽, 랭면, 어북쟁반과 함께 평양지방의 대표적인 지방음식으로 일러왔다. 오늘날에는 뱀장어를



룡봉탕


꼬리떡


송편


쑥개피떡


쑥떡

넣어 특색있게 만들기도 한다.

평양지방의 룡봉탕은 평양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지고 식생활에 리용된 음식이였다.

평양지방의 룡봉탕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닭을 푹 삶다가 뼈는 건져내고 살은 찢어놓는다.

그 다음 닭고기국물에 잉어를 두고 끓인 다음 익으면 건져서 뼈를 추려낸다. 닭고기, 흰쌀, 잉어를 함께 넣어 푹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깨가루, 실파, 참기름, 후추가루를 둔다.

궁중료리의 하나인 룡봉탕은 잉어와 닭고기를 기본재료로 하여 여기에 닭알, 무우, 미나리, 파, 참나무버섯, 간장, 소머리, 안심살, 곤자소니, 전복, 해삼, 잣, 참기름, 후추가루를 넣어 만들었으나 평양사람들은 흰쌀에 닭고기와 잉어를 넣고 쑨 죽을 룡봉탕이라고 하며 즐겨먹었다.

평양지방의 유명한 음식으로는 또한 꼬리떡과 송편, 송기떡 등이 널리 알려져있다.

꼬리떡은 흰쌀가루에 김을 올려 익힌 흰 떡을 동글납작하게 빚어서 떡의 귀모서리가 꼬리처럼 뾰

족하게 만든 떡인데 잔치상에 반드시 놓는 음식의 하나였다.

송편은 주로 음력 8월추석에 만들어 먹는 떡인데 평양지방의 송편은 다른 지방의것보다 특별히 크게 손바닥만하게 만든것이 특징이다.

송기떡은 쌀가루에 송기를 섞어 시루에 쪄낸 다음 떡판에 쳐서 만드는데 록두고물을 묻히였다.

그밖에 평양지방의 특색있는 음식은 노치와 록두지짐이다.

노치는 과자에 가까운 단맛을 내는 독특한 지짐이다.

노치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흰찹쌀, 기장, 찰조, 찰수수 등의 가루를 섞어 끓는 물로 익반죽하고 길금가루를 넣어 하루반쯤 잘 삭힌 다음 둥글납작하게 빚어 앞뒤가 노르스름하게 지져내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노치는 추석날 휘영청 달밝은 밤에 뜰안에다 가마를 걸어놓고 온 마을에 고소한 기름내를 풍기면서 지졌으며 단맛이 더 나도록 뜨끈뜨끈할 때 엿길금가루를 묻혀 단지나 항아리에 넣었다.

그리고 얼마간 지나 준득준득해지면 꺼내서 먹었다.

단지나 항아리에 꼭 봉해두었던 노치는 나들이길을 갈 때 새참으로 먹기 좋았으며 어린이들의 간식으로도 좋았다.

평양지방의 록두지짐



록두지짐



노치

은 물에 불군 록두를 갈고 거기에 남새와 돼지비계를 넣어 지진 것으로 해서 특이하였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록두는 타개여 2~3시간동안 물에 불구었다가 껍질을 벗기고 보드랍게 물망질하여 놓는다.

배추김치는 물에 한번 헹구어 가늘게 썬다.

돼지고기는 비게가 붙은것으로 골라 삶은 다음 일부는 가늘게 찢고 일부는 편육을 만든다. 빨간 고추는 다지고 파는 엇썬다.

그리고 남비에 록두, 김치, 돼지고기, 빨간 고추, 파를 두고 섞은 다음 후추가루를 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지짐판을 달구다가 돼지기름을 두르고 지짐감을 한국자씩 떠놓아 둥글납작하게 펴고 앞뒤를 노랗게 지진다.

이때 비게가 섞인 돼지고기편육 한점을 붙인다.

접시에 지짐을 보기 좋게 담고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이렇게 만든 록두지짐은 평양에서 명절이나 잔치, 제사때에 큰상에 놓는것은 물론 보통때에도 별식으로 지져먹군 하는 음식이였다.

록두지짐은 치료음식으로도 널리 쓰이였는데 동맥경화를 막고 단독, 술독을 가시며 오줌내기, 독풀이, 더위먹은데도 좋은 음식이였다.

평양에서는 록두지짐을 놓지 않은 잔치상은 잘 차린 상으로 일러주지 않을 정도로 잔치상에는 록두지짐을 굽높은 놋접시에 겹쌓아놓는 풍습이 있었다.

평양지방의 부식물가운데서도 이름난 음식이 많았다.

숭어국, 잉어국, 돼지내포탕 등은 이 지방의 이름난 국이였다.

국은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부식물로서 오래전부터 식생활에 리용되였다.

평양숭어국은 대동강에서 잡은 생신한 숭어를 비늘을 벗기고 토막내여 가마에 넣은 다음 물을 붓고 후추를 넣어 끓인것이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숭어를 깨끗이 씻어 등뼈를 골라낸 다음 토막내고 돌가마에 넣은 다음 찬물을 붓고 끓인다.

국이 끓을 때 가마안에 후추알을 약천에 싸서 넣고 국이 끓은 다음 후추는 꺼낸다.

살고기가 익으면 간을 맞춘 다음 사발에 국물을 퍼담고 숭어토막을 담는다. 마늘과 생강을 다진것을 곁들여낸다.

평양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숭어국을 평양의 명물로 자랑하면서 대접하는것을 례의로 여겼으며 평양에 찾아온 사람들은 숭어국을 먹어야 손님대접을 잘 받은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숭어국맛이 좋던가?》라는 말은 평양에 다녀온 사람을 만나서 하는 첫 인사말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돼지내포탕은 돼지 한마리의 내장을 모두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삶아 건진 다음 김치와 함께 끓여서 만들었다.

탕의 구수한 냄새는 사람들의 입맛을 부쩍 돋구어주었다.



숭어국

돼지내포탕도 처음에는 설렁탕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이였으나 그 맛이 하도 좋고 영양가가 높으므로 부유한 사람들의 상에도 오르게 되였다.

평양지방의 김치로서는 동치미와 함께 백김치가 유명하였다.

백김치는 고추를 넣지 않고 담그는 김치라는데서 붙은 이름인데 다른 김치보다 김치물을 많이 넣고 담그는것이 특이하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통배추를 10% 소금물에 초절임하였다가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찌우고 통무우는 깨끗한 소금을 뿌려 숨을 죽인다.

그 다음 무우는 채쳐서 실고추, 미나리, 밤, 생강, 마늘, 새우젓, 깨끗한 소금을 섞어 김치소를 만든다. 그리고 배추의 포기마다에 김치소를 조금씩 두고 겉잎으로 동여매였다.

그 다음 김치독의 맨밑에 통무우를 한돌기 깔고 소를 넣은 배추포기를 한돌기 눌러놓는다.



설렁탕

이런 방법으로 독을 70% 채운 다음 그 우에 소금에 버무린 우거지를 덮는다.

여기에 누름돌을 놓고 독아구리를 봉하여 익히였으며 사흘 지나서 새우젓국물로 김치국물을 해부었다.

백김치는 고추양념이 적게 들어가야 그 특성을 살릴수 있으므로 김치소를 넣을 때에도 배추잎갈피에 많이 넣지 않았다.

백김치는 우리 나라에서 고추가 재배되기 전부터 담그어 먹던 김치중의 하나이므로 다른 김치보다 력사가 오래다고 볼수 있다.

평양지방에서는 백김치를 다른 김치와는 달리 사발이나 대접과 같은 큰 그릇에 김치보다 국물을 더 많이 담아서 먹었는데 거기에 국수나 밥을 말기도 하였다.

평양지방의 통배추김치도 자기의 독특한 맛을 내고있다.

통배추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배추는 다듬어 10% 소금



김치담그기


백김치


통배추김치


총각김치


달래김치

물에 초절임을 하고 무우는 씻어놓으며 고추가루는 물과 1대 1.2의 비률로 더운물에 개여놓는다.

마늘, 파, 생강을 다져놓고 젓갈은 손질하며 명태살은 잘게 썬 다음 고추가루, 소금, 파, 마늘을 두고 20분정도 재워놓는다.

그리고 가늘게 썬 무우에 고추즙(가루)을 버무려 빨갛게 물들여놓고 양념에 재운 명태, 새우젓, 마늘, 생강, 미나리, 사탕가루, 파, 소금, 배 등을 넣고 모두 섞어 김치소를 만든다.

절임한 배추를 깨끗이 씻은 다음 잎갈피마다에 김치소를 고루 펴놓고 겉의 큰 잎으로 싼다.

그 다음 단지에 무우를 한돌기 깔고 소금을 뿌린 다음 배추를 쪼갠 면이 우로 올라오게 눌러놓고 다시 무우를 넣는 방법으로 엇바꾸어 놓는다.

우에 우거지를 덮고 누름돌을 놓아 사흘동안 두었다

가 김치국물을 해붓고 꼭 봉하여 익힌다.

평양의 통김치는 고추를 적게 쓰고 물은 많이 부어 그 맛이 삼삼하고 시원한것이 특징이다.

평양지방에서는 고기반찬을 즐겨 해먹는 식생활풍습도 있었다.

고기반찬으로서는 쟁반에 소고기편육을 담고 고명을 한 다음 끓인 육수를 부은 고기쟁반이 유명하였다.

지난 시기 고기쟁반은 알맞춤하게 삶아 얇게 편으로 썬 암소의 어북살(배부분)이나 연한 고기, 간장, 고추가루, 마늘, 참기름으로 만든 양념을 쟁반우에 놓은것이라고 하여 어북쟁반이라고도 하였다.

고기쟁반차림에서는 고기를 담은 쟁반을 가운데에 놓고 더운 국물과 김치를 곁들였으며 고기쟁반은 주로 술안주로 쓰이였다.

국수를 먹을 때에는 쟁반에 국수사리를 넣어 말아먹었으며



고기쟁반

이렇게 만든 음식은 평양지방에서 즐겨 만드는 음식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었다.

평양지방의 부식물가운데는 조기를 가지고 만든 조기자반, 조기구이, 조기젓 등이 유명하였다.

조기를 말리워 구워먹었는데 그 맛은 별맛이였고 그것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좋은 반찬으로 되였다.

조기젓은 여러가지 젓갈중에서도 첫째가는것으로 일러왔다.

조기자반은 연하게 절군 마른 조기를 물에 불구어 뼈와 껍질을 없애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깨가루와 실고추를 뿌려 만든것이다.

주로 밥반찬으로 쓰이였다.

조기는 일상음식에서뿐아니라 관혼상제때의 필수식품으로도 널리 리용되였다.

동해안주민들속에서 명태가 제상이나 결혼식상에 흔히 쓰이였던것처럼 평양지방사람들은 조기를 제상이나 혼인상차림에서 빠져서는 안될 식품으로 여기였다.



약과



참깨과줄



흰쌀과줄



다식


들깨강정


락화생강정


흰쌀강정


참깨강정

평양지방의 젓갈중에는 건뎅이젓, 새우젓이 유명하였다.

서해안과 중부지방사람들은 새우젓, 굴젓, 황석어젓, 조기젓 같은것을 많이 담그고 남해안사람들은 멸치젓, 칼치젓, 새우젓 등을 주로 담그었다. 그리고 동해안사람들은 명란젓, 창난젓, 오징어젓과 여러가지 식혜를 많이 담그었다.

평양사람들은 다양한 주식물, 부식물과 함께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민족당과류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도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당과는 쌀, 팥, 콩 등과 영양분이 많고 향기로운 맛을 내는 밤, 대추, 깨, 잣, 인삼 등을 리용하여 다종다양하게 만들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당과로는 엿, 유밀과, 다식, 정과, 숙실과, 과편, 각색엿, 엿강정 등을 들수 있다.

여기에서 엿은 당에 속하고 유밀과로부터 엿강정까지는 과자류에 속한다.

당과류들의 이름은 당과의 재료, 제법, 모양에 따라 붙이였다.

평양지방의 당과류로서는 엿, 과줄, 태식이 손꼽히였다.

엿은 흰쌀이나 찹쌀, 수수, 강냉이 등 낟알이나 감자류의 전분원료에 물을 넣고 가열하여 조화시킨 다음 엿길금가루를 넣어 당화시키고 농축하여 정제한 액체나 고체모양의 단 식품이다.

엿에는 주재료에 따라 찹쌀엿, 멥쌀엿, 수수엿, 강냉이엿, 고구마엿 등이 있으며 엿의 상태에 따라 단단한 강엿과 액체상태의 물엿으로 구분하였다.

평양에서는 엿을 흔하게 만들었다.

그 방법을 보면 찹쌀이나 멥쌀을 물에 불구어 쪄낸 다음 엿길금가루를 넣어 가열하여 당화시키고 걸러서 엿밥을 제거하고 오랜 시간 졸여서 갈색물엿이나 강엿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물엿은 음식이나 약과를 만드는데 쓰고 강엿은 그대로 간식으로 먹거나 녹여서 다른 용도에도 썼다.

강엿은 약간 열을 가하여 잡아 늘구기를 되풀이하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색갈이 희여지고 쉽게 부서져 먹기 좋아진다.

이것으로 가락엿이나 단엿을 만들었다.

김홍도의 그림 《씨름》에는 씨름판주위에서 가락엿, 판엿을 파는 젊은이의 그림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이 그림은 18세기에 엿이 많이 만들어져 상업용으로 류통되였으며 조선사람 누구나 다 즐겨먹는 당과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엿은 전분의 분해물인 당분밖에도 단백질, 지방질 등도 들어있으므로 독특한 맛을 내고 건강에도 좋았다.

과줄은 본래 약과, 다식, 강정 등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먹던 당과류들을 통털어 부르는 이름이였으나 세월이 흐르는동안 그 자체가 과자의 한 종류로 변하였다.

과줄을 언제부터 해먹기 시작하였는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옛기록에 고려시기 잔치, 제사, 세배상에 반드시 올랐다고 한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널리 보급되였음을 알수 있다.

과줄은 바삭바삭하면서도 입안에서 스스로 녹아 먹기 좋으며 달고 고소할뿐아니라 영양가가 매우 높다.

평양사람들속에서 오늘도 과줄로 널리 불리우고있는것은 보통 길이 7㎝, 너비 3㎝정도의 넙적한 모양을 가진 과줄이다.

과줄은 겉에 묻히는 재료에 따라 박산과줄, 잣과줄, 깨과줄 등으로 나누며 부재료에 따라 깨강정, 잣강정, 쌀강정으로도 나눈다.

과줄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과 막걸리를 두고 되직하게 반죽하여 10～15시간동안 삭혀 시루에서 찐다.

이렇게 찐 떡에 생콩물을 조금씩 두면서 잘 뭉개여 매끈매끈하게 한 다음 마른 찹쌀가루를 뿌린 판우에 떡을 놓고 밀어서 일정한 크기로 썰어 하루동안 말린다.

말린 떡을 다시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하루밤 재우면서 눅눅해진것을 기름에 튀겨낸다. 이렇게 튀긴 떡에 엿물을 바르고 여기에 박산, 깨, 잣가루 등을 묻힌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에서뿐아니라 묻히는 재료에 아름다운 색을 내고 여러가지 모양을 가진 과줄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있다.

태식은 쌀을 볶아 만든 노르끼레한 쌀가루에 꿀이나 엿을 버무려서 만든 과자이다.

친정집에 갔던 색시가 시집으로 돌아올 때는 함지박에 태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시켠의 일가친척에게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수박, 참외, 밤은 평양지방의 특산이며 누구나 즐겨먹는 과일이다.

평양일대에서는 수박과 참외가 많이 재배되였고 특히 수박이 유명하였다.

평양약밤은 단밤으로서 전국적으로 소문났다.

평양약밤은 속껍질이 잘 벗겨지며 맛이 특별히 좋아 조선밤의 대명사로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졌다.

밤은 흔히 굽거나 삶아서 또는 날것으로 먹었으며 가루내여 어린이들이 먹는 암죽에도 넣었다.

또한 떡의 고명으로 널리 리용되였으며 약밥을 만들 때 넣어 맛을 돋구기도 하였다.

오래전부터 평양에서는 밤이 의례상을 차리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과일로 인정되여왔으며 잔치상, 환갑상, 제상 등에 날밤을 높이 고여놓는것이 상차림풍습의 하나로 되여있다.

평양의 술로서는 평양감홍로가 유명하였다.

평양감홍로는 리강고, 죽력고와 함께 우리 나라 3대명주의 하나였는데 빛이 붉고 맛이 단데로부터 감홍로라고 불렀다.

선주후면이라는 말도 평양감홍로와 더불어 전해져오고있다.

선주후면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에서 우리 선조들이 가장 귀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식사법의 하나로 전해지고있다.

성격이 용맹하고 강직한 평양사람들은 도수가 낮은 술과 떡을 좋아하는 남쪽지방사람들과는 달리 도수가 높은 술을 즐겨 마시였다.

특히 빛갈이 좋고 단맛이 있으면서도 도수가 높은 감홍로는 평양특산물로서 이름이 높았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우리 나라 3대명주의 하나로 알려져있었다.

이로부터 평양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맞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감홍로를 마시면서 즐기였으며 술을 마신 다음에는 소고기 또는 닭고기 등으로 꾸미를 한 메밀국수를 먹었다.

이렇게 평양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 지방의 독특한 손님 접대방식으로서 선주후면을 대대로 전하여왔다.

또한 주변의 농촌들에서는 가을에 메밀까지 거두어들인 다음 햇곡식으로 독한 술을 담그고 햇메밀로는 국수를 눌러 귀한 손님을 청해다가 술과 국수를 대접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 선주후면은 술로 생기는 흥분과 열기를 시원한 메밀국수로 가심으로써 기분을 거뜬하게 하여주는 식사법으로 전해지고있다

《경도잡지》에 의하면 평양감홍로는 봄철에 마시는 이름난 술인데 주로 명절날이나 뜻있는 날에 마신다고 하였다.

이렇게 평양지방은 일찍부터 음식문화가 발전하였으며 민족음식으로서 자랑할만 한 유산을 많이 남기였다.

즉 가루음식으로서 국수, 떡 등과 밑반찬으로서 김치, 동치미, 젓갈 등이 일찍부터 발전하였으며 특히 평양랭면, 쟁반국수, 평양온반, 동치미, 숭어국, 록두지짐, 노치 등은 우리 나라의 민족음식가운데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처럼 평양의 음식들에는 슬기롭고 근면한 평양사람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조선사람의 구미와 기호를 비롯한 민족적특성이 진하게 반영되여있다.

살림집생활풍습

주택문제는 의식주문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평양지방에는 우리 나라 살림집의 기본류형의 하나인 외통형의 살림집들이 많았다.

외통형의 살림집은 한 룡마루아래에 부엌과 방들이 한줄로 놓여있는 집이다. 외통형의 살림집은 지난날 전국각지에 분포되여있었으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에 보다 많았다.

이 살림집들은 고대시기 서북지방의 유적들에서 보이는 기둥을 두줄로 세운 기둥보식살림집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옛 기록들과 평양주변의 고구려무덤벽화들에는 외통집은 물론 후세의 량통집, 꺾음집과 비슷한 집들이 보이며 고국원왕릉 내부구조형식은 조선봉건왕조시기 트인 ㅁ형집을 방불케 한다.



집짓기를 형상한 옛그림

고구려무덤벽화자료들은 이미 삼국시기에 평양지방주민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외통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19세기 그림인 《평양성도》에는 당시 평양지방에 있던 여러가지 형태의 집들이 그려져있는데 그것들도 모두 외통형에 속하는 집들이였다.

따라서 평양지방의 외통형 살림집들은 그 연원이 오래고

장구한 기간 주민들이 평양의 자연기후조건과 생활관습에 맞게 집을 짓고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살림집이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평양지방의 외통집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집짓기풍습에 맞게 집을 짓는 순차적공정에 따라 집자리선택, 집터닦기, 주추돌놓기, 골격형성, 지붕과 벽체만들기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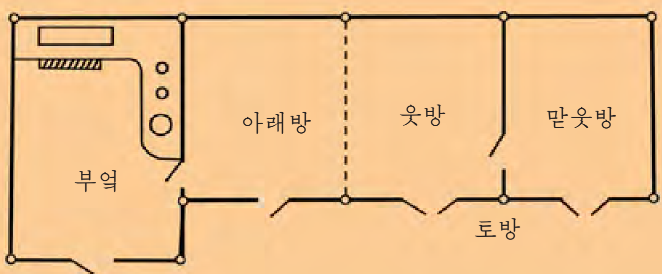
살림집은 일반적으로 그 지방 주민들의 경제문화생활과 풍습 그리고 자연조건에 의하여 그 형태와 평면구조형식이 규제되는것만큼 그것은 지방적특색을 띠게 된다.

평양지방의 살림집들은 형태와 평면구조에서 다른 지방의 살림집과 구별되는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있다.

평양지방에 분포되여있는 살림집은 주로 꺾음집과 쌍채집이였다.



《평양성도》와 현지조사자료에 의하면 도시중심에는 ㄱ형과 ㄷ형집이 많았고 ㅁ형집도 있었으나 도시주변에는 쌍채집이 대부분이였다.



외채집과 집평면도

도시중심에 살림집들이 밀집되는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룡마루아래에 여러칸의 생활공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ㄱ형 또는 ㄷ형의 집들이 집중되게 되였다고 본다.

그리고 평양의 주변에 쌍채집이 많은것은 주민들의 생산활동과 주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이곳에는 주로 농업을 기본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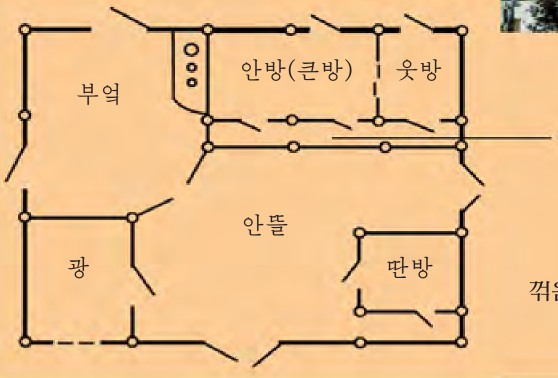
그러므로 농사에 필요한 소를 기르는 외양간과 농기구 기타 물건들을 보관하는 경리용공간이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경리용공간들로 구성된 앞채가 몸채앞에 세워지게 되였다.

특히 도시주변의 농민들은 농업과 함께 상업에도 이러저러하게 관계하고있었으므로 일정한 생활토대를 가지고있고 앞채도 지을수 있는 경제적능력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농민들



꺾음집과 집평면도

의 생활적요구와 경제적토대를 반영하여 쌍채집이 도시주변에 많이 세워졌다.

중세시기 우리 나라 서부지방의 일부 도시들에도 꺾음집들이 있었지만 평양주변에 꺾음집과 쌍채집들이 많이 집중되여있은것은 이 일대의 특이한 점이다.

평양지방의 살림집들은 평면구조에서도 특징을 가지고있다.

몸채는 부엌, 아래방, 웃방 또는 맏웃방으로 구성되여있는데 대부분의 집들은 아래방과 웃방이 긴 통칸으로 되여있다.

이러한 몸채의 평면구조형식은 대동강이남의 일부 지역에도 있었으나 평양지방에서처럼 보편적인것은 아니였다.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 평양의 살림집은 집의 규모가 영조척에 의하여 제정되고 방의 간수도 법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점차 규격화되여갔으며 그 평면구조에 있어서도 몸채만으로 된 외채집, 몸채와 부속건물들을 평행되게 배치한 쌍채집, 방과 경리시설을 붙여서 ㄱ, ㄷ 모양으로 배치한 꺾음집, ㅁ형으로 배치한 또아리집 등 자기의 면모를 뚜렷히 나타내고있었다.

외채집은 一형으로 된 단채집으로서 평면구성은 큰방 (아래방, 웃방)과 방앞의 토방으로 구성되였다.

가족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웃방에 련이어 맏웃방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 외채집은 전형적인 간소한 집형태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서북부와 중남부일대에서 많이 볼수 있었다.

이 외채집은 대채로 아래방과 웃방이 긴 통칸으로 되여있고 그의 폭은 부엌의 폭에 비해 거의 토방의 폭만큼 좁다.

부엌에는 앞뒤에 출입문이 있고 앞문곁에는 광창이 설치되여있다.

한편 부엌과 아래방사이에는 새문이 있으며 아래방과 웃방에는 앞면에 각각 출입문(지게문)이 있고 그곁에 바라지

문이 있었다.

이와는 달리 중남부지대의 외채집에는 살림방 뒤면에도 출입문을 냈으며 아래방과 웃방을 벽체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뒤면에 새문 또는 장지문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외채집들에는 흔히 앞뜰 한구석에 허청간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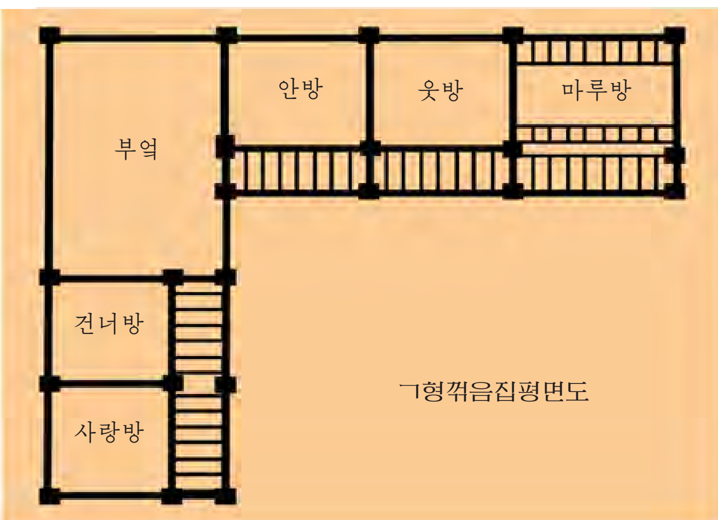
그리고 앞뜰과 뒤뜰중에서 뒤뜰은 규모가 작은데 맞게 울타리를 작게 하였으나 앞뜰(농촌인 경우)은 작업장으로 리용되는것만큼 규모가 컸으며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드물었다.

쌍채집은 ㅡ형으로 된 몸채가 있고 또 한채의 ㅡ형으로 된 앞채로 이루어진 살림집이다.

쌍채집은 몸채와 앞채가 평행되게 가지런히 마주서면서 길이도 같고 간수도 같은것이 일반적이였다.

가장 일반적인 쌍채집은 몸채와 앞채로 구성되고 몸채와 앞채사이에는 그 좌우측에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한것이다.

그리하여 몸채와 앞채사이에 생기는 장방형의 공간을 안뜰이



ㄱ형꺾음집평면도

라고 하며 앞채앞에 있는 뜰을 앞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쌍채집은 주로 평양과 그 이북지대에 많았다.

이 쌍채집의 구조를 보면 몸채는 부엌, 아래방, 웃방 그리고 아래방과 웃방앞에 긴 토방으로 되여있으며 평면구성은 대체로 외채집과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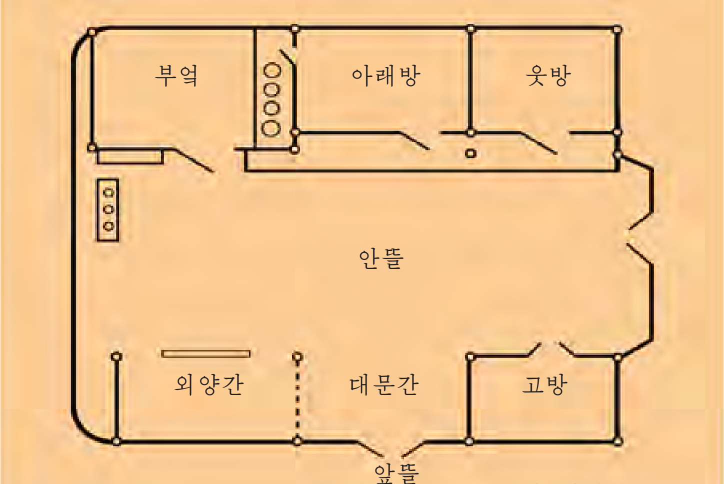
앞채는 그 가운데에 있는 대문간과 그 좌우에 있는 외양간 및 허청간으로 구성되였다.

대문간에는 큰 쪽대문이 있고 허청간에는 안뜰쪽으로 판자로 만든 출입문이 있었다.

그리고 외양간에는 일반적으로 안뜰쪽과 대문간쪽에 벽체가 없었고 대문간이 유일한 출입구로 되여있었다.

평양과 북쪽지역의 쌍채집 문배치를 보면 살림방뒤면에는 출입문이 없는것이 일반적이였고 남쪽지역의 쌍채집에서는 살림방뒤면에 출입문을 내는것이 일반적이였다.

또한 부엌과 아래방사이에 있는 새문의 위치도 평양과 북쪽



쌍채집평면도

지역에서는 보통 뒤면에 치우쳐있었지만 남쪽지역의 집들에서는 앞면쪽으로 치우친것이 있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새문이 없어지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지역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한데서 생긴것이였다.

즉 대동강북쪽지역의 살림집은 많은 경우 둑집이였기때문에 뒤문을 내기가 어려운데 있었고 또 서북풍이 강하게 부는 곳이므로 겨울이 추운 조건을 고려하여 뒤문을 내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추위가 덜하고 여름철에 통풍을 보장하기 위한데로부터 뒤문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문의 수도 늘어났다.

그리고 부엌과 아래방사이의 새문도 그 위치가 달라졌거나 없어졌다.



ㅁ형집

평양지방에서 새문은 주로 음식물을 운반하는데 리용되였다면 남부지방살림집들에서는 음식물을 부엌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운반하였으므로 새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 모든것은 살림집의 문배치를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과 생활관습에 맞게 설치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살림집평면구성에서 방수를 늘이는 경우 몸채에서는 웃방다음에 맏웃방을 배치하였으며 앞채에서는 흔히 사랑방을 배치하여 몸채와 앞채의 방수를 같이 하였다.

꺾음집은 ㄱ형, ㄷ형으로 평면이 구성된 살림집이다.

부엌에서 꺾어지는 ㄱ형집에서는 부엌의 규모가 컸다.

이 ㄱ형집에서도 앞채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그것은 쌍채집의 앞채와 대체로 비슷하였으며 기타 방과 문의 배치도 그것과 같았다.

ㄷ형집은 ㄱ형집의 연장으로서 두번의 꺾음으로 평면구성을 한 집이다.

ㄷ형으로 된 꺾음집은 대청이 있는 집에 비하여 날개들에 사랑방이 없고 딴방이 따로 배치되는것이 다를뿐이다.

이렇게 평양일대의 꺾음집들은 생활에 필요한 공간들을 한 룡마루아래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살림집의 평면구성을 보여주고있으며 주로 도시형살림집으로 발전하였다.

살림집평면을 ㄱ, ㄷ형으로 구성하는 관습이 도시들에 널리 보급된것은 무엇보다도 도시의 살림집부지가 제한된것과 관련되였다.

도시는 농촌과 달리 살림집의 집중도가 높으며 따라서 일정하게 부지의 제한을 받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도시에서는 좁은 부지안에 생활에 필요한 방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수 있는 꺾음집이 늘어나게 되였다.

이러한 리유들로 하여 꺾음집은 도시형살림집으로 발전하

였던것이다.

꺾음집은 다른 형태의 집들과 병존하면서 우리 나라 북부로부터 남부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었다.

특히 꺾음집은 평양과 서해안일대의 도시들에 많았다.

19세기의 그림으로 알려진 《평양성도》와 《강화도행렬도》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집들이 그려져있는데 그가운데서 대부분은 꺾음집이다.

이것은 당시 평양성이나 강화도뿐아니라 그밖의 서해안도시들에도 꺾음집이 많았다는것을 엿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꺾음집은 도시형살림집이라고 할수 있다.

평양지방의 살림집에서 아래방과 웃방을 긴 통칸으로 련결하여 구성하는 관습은 온돌을 놓아 난방을 보장하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풍습과 관련되여있다.

평양지방은 먼 옛날부터 온돌난방시설이 발전한 곳이다.



고국원왕릉벽화에 그려져있는 부엌칸

고구려의 고국원왕릉벽화를 통해볼수 있는 수도 평양의 살림집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구들난방시설을 갖추고있는 살림집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고국원왕릉 동쪽결칸의 부엌칸그림에는 3명의 녀인들이 그려져있는데 한 녀인은 솥우에 올려놓은 시루에서 음식을 쪄내고있고 다른 한 녀인은 갈퀴발이 달린 소반우에다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고있으며 또 다른 한 녀인은 부엌아궁에 불을 지피고있다.

약수리무덤벽화의 긴 고래구들을 그린 그림에는 3명의 녀인들이 그려져있다.

그 가운데서 한 녀인은 가마우에 시루를 올려놓고 음식을 만들고있으며 다른 한 녀인은 부뚜막아궁에 불을 때고있다.

그리고 아궁에 불을 땔 때 생기는 연기는 긴 고래를 따라 굴뚝으로 빠지게 되여있었다.

세번째녀인은 긴 고래구들의 중간에 서있다.

약수리무덤벽화의 이 긴 구들고래는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보이는 장갱(긴 고래구들)을 련상시킨다.

《구당서》고려(고구려)전에서는 겨울에는 모두 장갱을 만들고 그 밑에 불을 지펴 더위를 얻어낸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결국 구들난방풍습이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지역에 일반화되여간 사실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중세 평양지방의 살림집구들난방시설은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감정과 취미에 맞게 생활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방바닥밑에 설치된 긴 고래구들로 되여있었다.

긴 고래구들을 놓은 방은 온돌의 아래목과 웃목의 온도차이가 있는것만큼 살림방에 칸막이를 하는것보다 긴 통칸으로 하는것이 평면구조에서나 방안온도를 골고루 보장하는데

서 합리적이였다.

그러므로 평양지방의 살림집들은 이 지역의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려는데로부터 아래방과 웃방을 긴 통칸으로 하고 마루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남부지방과 같이 대청중심의 방구조가 아니라 집채의 끝방을 마루방으로 하였다.

집채의 끝방을 마루방으로 하는 평양지방의 외통집들은 다른 지방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형식으로서 평양의 독특한 살림집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개성이남의 꺾음집에서는 대청마루를 집채의 가운데에 배치하는것이 보편적이며 대청을 중심으로 방들을 배치하고있으나 평양지방의 꺾음집에서는 끝마루(집채의 한쪽 끝에 있는 마루)형식으로 대청마루를 배치하였으며 또 개성이남의 대청마루와 같이 개방된것이 아니라 미닫이영창문으로 막혀있다.

그러므로 평양지방에서는 그것을 마루방이라고 불렀다.

이 마루방은 바닥에 나무판자를 깐 방으로서 통풍이 잘되고 시원하며 여름 한철 더위를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였다.

평안도의 중부와 북부는 대체로 추운 날씨가 오래가고 여름이 비교적 짧은 기후조건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이 지방에서는 년중 더위가 오래가는 남부지방에 비해 마루방이 절실히 필요한 생활공간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평안도의 남쪽에 위치한 평양지방은 여름이면 비교적 더운 날씨가 지속되였다.

이로부터 살림집들에는 여름 한철 리용할수 있는 마루방을 설치하게 되는데 평양에서는 남부지방처럼 집채의 중심이 아니라 집채의 끝에 배치하고 리용하였다.

즉 평양지방의 꺾음집에서는 온돌방리용을 기본으로 하는

방안생활풍습에 맞게 좌우의 온돌방들을 가운데에 위치한 부엌에 련결시켜야 하였으므로 마루방을 집채의 가운데에 배치할수 없었으며 반드시 온돌방 한끝에 배치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쪽지방에서처럼 본격적인 대청마루방을 꾸민것이 아니라 단칸규모의 소박한 마루방을 꾸미였다.

평양지방의 마루방은 몸채의 맨 끝 즉 아래방과 웃방다음에 설치되였는데 앞쪽으로 두짝이나 세짝으로 된 장지문을 달았다.

이 장지문은 출입을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방안통풍을 보장하자는 목적에서 설치된 문으로서 문턱이 높았다.

그리고 마루방의 출입은 웃방과의 사이벽에 있는 새문이나 두짝미닫이문을 통하여 하였다.

아래방과 웃방은 사이벽으로 막지 않는것이 기본이였으며 남쪽에 있는 두방은 각각 벽을 막고 새문을 해달았다.

이렇게 끝마루방형식은 평양지방의 기후조건, 생활관습과 관련된것으로서 그 위치로 보아 리용면에서도 남부지방의 대청마루와는 구별되는 평양의 독특한 방구조였다.



아래방갖춤새

평양지방의 살림집들에서는 대체로 문을 남쪽의 앞면에 내고 뒤면에는 대체로 문을 내지 않았으며 아래방과 부엌 사이벽에 새문을 낸것등이 특이한 점이다.

특히 아래방과 부엌 사이벽에 새문을 내는 풍습은 강원도

나 함경도의 량통집에서는 전혀 볼수 없으며 황해도 일부지역의 살림집들에 간혹 있었으나 그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다.

새문이 없는 남부지방 살림집들은 음식물을 나를 때 부엌에서 퇴마루를 거쳐 모든방으로 들여갈수 있게 되여있다.

이것은 따뜻한 남부지방의 기후조건에 맞게 퇴마루와 마루방을 더 많이 리용하는 이 지방사람들의 생활풍습과 관련된다.

이와는 달리 평양지방에서는 추운 겨울에 부엌에서 밖으로 에돌지 않게 새문을 내여 리용하였던것이다.

평양지방의 살림집들에서 방 뒤면에 문을 내지 않은것은 겨울에 찬 바람이 들어오는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평양지방사람들은 살림집을 생산활동과 가정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지었다.

평양일대 살림집의 방안갖춤새에서 독특한것은 이불치장을 잘하는것이였다.



박천궤



백동궤



화각함

사람들은 살림방에 여러가지 가구들을 갖추는데 많은 관심을 돌려왔다.

특히 안방(아래방)은 가정살림을 하는 기본보금자리였으므로 시렁(농다리)이나 받침대를 놓고 그우에 백동뒤주나 장과 농을 한바리(두짝)로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우에는 람색, 붉은색 등 여러가지 색갈로 된 이불과 포단(요), 베개 등 침구류들을 구색에 맞게 잘 포개여 보기 좋게 얹어놓고 가는실로 무늬를 돋쳐 뜬 이불보를 씌워놓았다.

이불과 포단의 아름다운 색갈과 수놓은 베개모의 문양들이 이불보밖으로 은근하게 비쳐보이게 한것은 방안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평양지방에서는 이불치장정도에 따라 주부의 살림살이솜씨가 평가되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부지방에서는 반닫이우에 이부자리를 포개여 얹고 그우에 쪽무이색보자기를 씌워 방안을 치장하는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평양지방에서는 또한 방안뒤벽면앞에 두개의 길고 곧은 나무를 가로 건너대고 아래에 온돌바닥으로부터 25～30cm 정도의 높이로 다리를 붙였는데 이것을 농다리라고 하였다.

농다리는 아래방, 웃방에 있거나 아래방에만 있는 경우가 있다.

농다리우에는 반닫이로 된 궤 두개를 나란히 놓고 궤우에 이부자리를 놓아 치장하였다.

처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에게서 이부자리를 포개여 놓는 방법, 베개를 쌓는 방법, 이불보를 씌우는 방법을 배웠으며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이부자리갖춤새를 잊지 않고 배워주었다.

작은 형태의 반닫이는 버선궤, 머리궤, 수장궤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흔히 버선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였다.

백동궤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지방에서 흔히 만들어 사용한 궤이다. 백동궤를 흔히 백동뒤주라고 하였는데 그 형태가 뒤주처럼 생긴데다가 백동판장식을 한데로부터 생긴 이름이다.

우리 나라 동북부지방에서는 백동장식을 한 반닫이(궤)를 장농이라 하였다.

백동궤는 뒤주나 박천궤와 꼭같은 구조형식을 띤 가구인데 표면에 붙인 장식이 백동으로 되여있다.

버선궤는 이름 그대로 버선을 넣어 보관하는 궤를 말한다.

가구의 앞면절반을 문짝으로 하여 열게 하였으며 울검지는 판자를 사개물림하였다.

형태가 평양지방의 백동궤와 류사하며 장식도 비슷하다.

그러나 백동궤보다 훨씬 작고 깜찍하게 만들어졌다.

두꺼운 판자로 든든하게 짠 궤의 앞면에는 백동이나 놋으로 여러가지 장식을 하였으며 자물쇠를 채우게 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중부조선일대 새각시들은 시집



농

갈 때 버선궤를 마련하는 풍습이 있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딸자식이 시집가기 전부터 버선을 많이 마련하였다가 시집갈 때에는 몇죽(한죽은 10컬레임)씩 버선궤에 넣어 보냈다.

새각시들이 버선을 많이 마련하는것은 그것을 출가후 본인들이 사용하자는데 있지만 그 일부는 시집켠 일가친척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여야 하였던것과도 관련된다.

이런데로부터 버선궤는 유한계층이나 갖출수 있었다.

결혼후 시일이 지나면 버선궤는 큰 가구의 옆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놓고 사용하였다.

농은 일반적으로 옷보관용가구를 이르는 말이다.

옷보관용가구를 올려놓는 낮은 시렁을 농다리라고 한다.

농은 가구의 앞면중심에 문짝을 내여 여닫게 되여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런 가구를 우리 나라 중남부지방에서는 여닫이 혹은 짝바라지, 쌍바라지라고 하였다.

옷보관용가구를 갖추는데서 두개를 한바리로 하는것은 우리 나라 혼례풍습에서 새 살림준비를 하던것과 관련되여있다.

특히 농은 궤나 다른 가구들과는 달리 반드시 두개를 한바리로 하여 포개여놓게 되여있는 가구이다.

다른 가구인 경우에도 두개를 한바리로 결혼할 때에 갖추어주지만 농은 반드시 두개를 포개여놓고 사용하게 한 전형적인 가구이다.

그러므로 농이라 할 때에는 반드시 쌍을 이루는 가구로 일러왔다.

농은 받침대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다.

이것은 가구를 방안에 놓는 풍습과 관련되여있다.

농을 농다리우에 올려놓는 경우에는 받침대가 필요없으므로

농다리를 사용하는 평양일대의 농에는 받침대가 거의 없다.

그러나 농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아래에 받침대를 붙이였다.

농에는 철장식, 백동장식, 옻장식, 자개장식 등을 하며 바탕에는 황토나 붉은 흙물을 올리고 기름대우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고급한것은 옻을 바른다.

금속장식을 하는 경우에는 전면을 꽉 채우지 않고 경첩(접철), 거멀, 곽쇠, 자물쇠바탕장식정도로만 할뿐이다.

사람들의 기호와 해당 지방의 류형과 풍속에 따라 궤대신 농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것만큼 방안가구들이 형태상 차이는 있어도 농을 놓는 위치는 류사하였다.

반닫이농은 가구의 구조원리와 형태가 서로 결합된 독특한것이다.

반닫이중에는 앞면중심으로부터 약간 우로 치우쳐 궤의 문짝보다 작은 장방형의 문짝에 접철을 아래에 단것이 있다.

크기와 문짝의 위치가 농과 같지만 문짝이 하나이고 접철도 아래에 달아 반닫이처럼 열게 되여있어 반



주칠3층장과 머리장



주칠자개박이2, 3층장

닫이형태와 농의 형태를 배합한 중간형태의 가구이다.

따라서 가구의 이름도 두가지 형태의 가구이름을 붙여 반닫이농이라 하였다.

이런 형태의 옷보관용기를 농이라고도 하며 일부 지방에서는 반닫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크기와 모양이 반닫이보다 농을 많이 모방하였기때문에 농이란 이름으로 널리 불리웠다.

장식은 뚫어새긴 시우쇠로 하며 가구의 전면을 꽉 채우지 않고 농과 같이 경첩, 거멀, 곽쇠, 자물쇠바탕장식정도로 하였다.

사용풍습도 역시 농과 류사하다.

두짝을 쌓아 겹놓는데 받침대는 따로 없고 농다리우에 올려놓고 사용하였다.

평북도 의주지방에서처럼 4개의 반닫이농을 두개씩 나란히 포개여놓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형식의 농받침대는 방안구도에도 좋을뿐아니라 가구리용에도 편리하였다.

장은 층을 이룬 가구를 가리

키는 말로서 농과 탁자가 결합되여 층을 이룬것을 탁자장이라 하였고 반닫이와 여닫이를 배합한것을 장농이라 하였다.

장이라고 하면 층을 이룬 가구로서 개판이 있고 반드시 받침대나 다리가 있어 밑에 일정한 공간을 이루며 많은 경우 옷을 넣는 칸과 일용잡화를 넣는 서랍이 배합된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장이라고 하면 곧 키높은 가구를 생각하게 되며 화려한 장식도 있어 가구들가운데서 귀중히 여겼다.

장은 골조를 조립하는 공정이 복잡하며 세공과 소목의 높은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장은 부분명칭도 복잡하고 매개 요소들이 기하학적평면과 립체미를 이룬 품위높은 목제품으로 제작되였다.

장은 복잡한 구조로 된 가구로서 18세기경에 류행된 가구였다.

18세기 해원 신윤복의 그림 《주막도》에는 대청에 3층장이 보이는데 19세기 장과 비교



옷걸이장

하여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장의 구조와 형태를 보면 농을 발전시킨것이라고 추측된다.

장의 매개 층은 문짝형식과 앞면구조를 비롯하여 농과 거의 류사하며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켰을뿐이다.

장은 지난 시기 평양, 개성, 서울을 비롯한 큰 도시들과 지방의 오랜 도시들에서 사용되였다.

또한 은퇴한 량반선비들이 많았던 중부조선이남지역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근세에는 근대적생활문화가 보급된 도시들에서 사용되였다.

장은 받침대가 반드시 있기때문에 농다리와 같은 낮은 시렁에 올려놓지 않고 온돌바닥이나 널마루우에 그대로 놓고 리용하였다.

장의 위치는 궤나 농처럼 방안의 두벽에 치우쳐놓으며 가구



3층장이 보이는 옛그림 《주막도》

의 소유자에 따라 웃방 혹은 맏웃방에 놓는다.

장은 안방녀인들의 생활과 분리할수 없는 기물로 애용되였다.

장우에는 녀성들이 사용하는 반지그릇이나 실함, 패물함 같은것을 올려놓기도 하였다.

장에 옷을 보관하는것도 웃충에는 성년남자옷, 2충에는 녀자옷, 아래충에는 아이들의 옷을 구분하여 넣기도 하며 계절에 따라 옷을 1, 2, 3 충에 갈라 보관하였다. 즉 장에 옷을 보관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취미와 정서에 따라 혹은 옷의 가지수와 량에 따라 여러가지로 하였다.

부녀자들은 집세간중에서도 옷장을 매우 귀중히 여기는 까닭에 장을 언제나 깨끗이 거두면서 사용하였다.

오래된 장의 앞면 놋장식이나 백동장식의 색갈이 변하면 반들거리도록 광을 내며 옻을 바르지 않은 가구들은 기름을 발라 윤기를 내였다.

부녀자들이 이토록 장에 관심을 두는것은 그들의 생활정서와도 관련되여있을뿐아니라





접이식경대함



실함



골무함



사랑방과 생활도구들

집안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눈길이 제일 먼저 미치는 가구들을 잘 장식하여 집안의 문화정서적인 생활모습을 보여주려는것과 함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 평양지방인민들의 생활관습과도 관련되여있다.

특히 평양녀인들은 남달리 방안치장을 잘하는 풍습이 있어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방안을 그들의 정서와 취미에 맞게 잘 꾸리도록 교양하였다.

이런 풍습은 오늘도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으로 전하여지고있다.

의장은 장의 한 종류로서 옷보관용가구의 하나이다.

살림방가구류에는 여러가지 의장도 있었다.

층수에 따라 2층장, 3층장 등으로 불리우며 장식기법에 따라 자개박이장, 은상감장, 배나무장, 주칠자개박이장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층수와 장식기법을 배합한것은 자개박이3층장, 은상감3층장

등으로 불렀다.

의걸이장은 여닫이농 2~4개를 포개여놓고 우에는 개판을 얹었으며 아래에 받침대가 있는 층이 높은 옷장을 말한다.

매개 층을 따로 짜서 얹어놓게 된것도 있으며 2~3층을 하나로 짠것도 있었다.

매개 층을 따로 짜서 얹어놓게 된 장은 아래층웃면에 두개의 턱을 붙였으며 웃층아래면에는 아래층에 붙인 두개의 턱이 들어맞을수 있게 홈이 파져있어 아래층의 턱과 웃층의 홈을 맞추면 가구의 층이 곧바로 포개지게 되여있고 우의 개판과 아래의 받침대도 턱과 홈으로 맞추어지게 되여있다.

장에는 개판아래앞면에 한줄로 3~4개의 낮은 서랍을 짜넣고 그 아래중심에 여닫이문짝 두개를 달며 문짝과 기둥사이에 알개미를 꽂아 앞면의 단조로운 감을 없게 한것도 있다.

매개 층과 층사이에도 제작자의 구상에 따라 서랍을 짜넣는 경우가 있다.



자개박이탁자장



3층책장

서랍에는 손잡이를 다는데 많은 경우 박쥐형태를 비롯하여 글자, 나비 등 여러가지를 형상하였다.

가구 앞면의 골조는 제비귀물림으로 장식적효과를 낸것이 많으며 선동자, 누운동자들이 알개미보다 두드러지게 하여 앞면의 미를 더 한층 돋구게 하였다.

경첩은 대체로 표면에 나타나게 하였는데 가구앞면장식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은 나비경첩, 박쥐경첩, 약과경첩 등 여러가지이며 하나의 문짝에 3~4개를 무늬로 하여 달았다.

앞면의 알개미들에는 무늬를 놓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개박이장식을 한 장의 알개미들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무늬들이 있으며 동자들과 지어는 개판과 발통까지도 무늬를 놓았다.

이런 형태의 의장들은 평양, 개성,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밖의 지방들에는 거의 없었거나 드물게 사용하였다.

평양일대의 살림방은 그 가정을 이루고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느 방을 리용하는가에 따라 방리용자의 생활기호와 취미에 맞게 꾸려졌으며 생활상편리를 도모하는데 리용되였다.

평양일대의 외통집 살림방으로는 큰방(아래방, 안방), 웃방, 맏웃방, 사랑방, 행랑방을 들수 있다.

큰방은 외통집에서 긴 통칸으로 된 방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 규모가 크다는 의미도 있으나 그 리용과 집세간갖춤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여있다.

서북지방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는 큰방을 살림방의 위치에 따라 아래방이라고 하였으며 경기도이남일대에서는 안방이라고 하였다.

안방이란 말은 쌍채집의 앞채에 있는 방들의 안쪽에 꾸려진 방이라는 의미와 함께 주로 녀자들이 리용한데로부터

불리워진 이름이였다.

17세기에 편찬된 《조선국기》에 부인들의 내실(안방)은 아무나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의 안구석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아래방은 제일 큰 방으로서 여기에는 가정살림을 맡아하는 주부들이 거처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예로부터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여러가지 음식재료로 식생활조건을 보장하고 옷감을 마련하여 옷을 지어입는 일이였으며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을 주부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부가 부엌과 련결된 큰방에 거처하는것은 가정생활에서 합리적이였다.

이로부터 가정에서는 주부의 역할을 하던 늙은 시어머니대신 며느리가 주부권을 넘겨받게 되면 그 며느리가 큰방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큰방에는 주부가 거처하면서도 가정생활이 집중되는 장소인것만큼 여기에는 가정살림에 필요한 가구와 시설들이 집중되여있었다.

가구로는 일반적으로 옷을 보관하는 장과 농 등이 갖추어졌다.

장과 농은 보통 시렁이나 반침대우에 두짝을 올려놓거나 가지런히 놓았다.

두짝을 가지런히 놓는 경우에는 그우에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들을 잘 개여 보기 좋게 얹어놓았다.

특히 평양(평안도)일대에서는 장농우에다 얹어놓은 침구류를 아름답게 치장하였으며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였다.

옷장은 3층장, 4층장, 의거리장 등 여러층으로 된 가구로서 대체로 안방의 뒤면에 놓았다.

이와 함께 큰방에는 경대를 비롯한 화장용구들과 옷가지

들을 손질하는데 쓰는 바늘과 실패, 골무, 가위, 인두 등을 갖추어놓았다.

가구가 놓이지 않는 벽면의 웃부분에는 선반과 홰대를 설치하여 소반 또는 가구들을 올려놓거나 옷가지들을 걸어놓았다.

큰방은 또한 주부가 거처하는 곳이였던것만큼 녀자손님이 찾아오면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처럼 큰방(아래방)은 주로 주부 또는 녀자들이 거처하는 살림방의 특성에 맞게 집세간이 갖추어지고 리용되였다.

웃방, 맏웃방(새방) 및 건너방은 일반적으로 젊은 부부(아들과 며느리)들이 리용하며 혹은 결혼전의 자녀들이나 홀로된 로인들이 리용하기도 하였다.

이 방에도 큰방에서와 같은 농다리, 시렁, 선반, 홰대, 벽장, 장과 농 등을 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젊은 부부들이 살 때에는 결혼할 때 장만한 장, 농, 궤, 례장함, 경대 등의 새 가구들이 놓이였다.

이 방을 어린 자녀들이 리용하는 경우에는 책상, 책장, 문갑과 같은 문방구들을 갖추어놓았다.

맏웃방(새방)에 늙은 로인이 거처하는 경우에는 로인들의 생활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난방시설을 따로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맏웃방에는 조돌(함실)이라는 난방시설이 특별히 갖추어져있어 추운 겨울에도 방안이 춥지 않게 되여있었다.

맏웃방에는 로인들이 거처하는것만큼 책상, 문방구, 화로, 흡연용구, 침구류 등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비품들을 갖추어놓았다.

사랑방은 보통 그 집의 가장인 세대주 또는 늙은 할아버지가 거처하는 방으로서 남자손님을 맞거나 이웃의 로인들이 함께 모여 오락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방으로 리용되였다.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거처하고있었기때문에 녀자들이나 아이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할아버지가 부르거나 할아버지에게 알려드릴 일이 있을 때에만 드나들었다.

이것은 가장을 절대화하고 남자와 녀자, 늙은이와 젊은이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되여있는 봉건유교도덕의 영향과 관련된것이였다.

사랑방에는 의거리장과 문갑, 책상, 책장, 연적 등 문방구들과 화로, 담배용구, 장기판, 바둑판 등이 갖추어져있었다.

ㅁ형집이나 쌍채집에서 사랑방이 두칸인 경우에는 아래사랑방에 로인이 거처하면서 손님을 맞는 방으로 리용하였고 웃사랑방에는 궤짝과 이부자리같은 간단한 가구와 생활용품들을 두었다.

행랑방은 문간방이라고도 하는데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부유한 계층들의 살림집에만 있던 방이였다.

행랑방은 원래 가족성원들이 리용할 목적에서 만든 방이 아니라 행랑살이군 또는 머슴군을 두기 위하여 꾸린 방으로서 특별한 설비가 없고 가정을 이룬 행랑살이군들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약간의 설비와 살림도구들이 갖추어져있을뿐이였다.

그러므로 독신인 행랑살이군 또는 머슴군이 리용하는 경우 행랑방은 하나의 실내작업장과 같이 리용되였다.

또한 이방은 때때로 지나가던 길손들을 류숙시키는 방으로도 리용되였다.

평양의 외통집부엌은 살림방과 마찬가지로 알뜰하게 꾸려지고 리용되였다.

부엌에는 온돌방과 련결된 일정한 높이에 부뚜막이 있고 여기에는 여러개의 가마를 걸었다.

부엌의 뒤벽과 앞벽에는 시렁과 선반을 설치하고 밥그릇, 국그릇, 접시, 쌀함박 그밖의 부엌세간을 올려놓았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사기그릇은 백자와 청화백자가 기본으로 되여있었으며 자개박이칠장식을 한 소반류가 많이 리용되였다.

17~18세기에 놋그릇이 부엌세간의 하나로 널리 리용되였다.

부엌의 한옆에는 가시대를 설치하였으며 부엌바닥에는 일정한 량의 땔나무를 쌓아두고 물독을 한두개 놓았다.

부엌리용은 부엌에 설치된 부뚜막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므로 부뚜막에 진흙을 발라 보기 좋게 매질하였으며 어지러워지면 다시 흙매질을 하여 항상 깨끗이 거두고 리용하였다.

부뚜막밑에는 불을 때는 아궁을 설치하였는데 부뚜막에 가마를 많이 거는 경우 아궁을 2개 설치하고 리용하기도 하였다.

부엌우에 다락을 설치하여 부엌의 웃공간을 합리적으로



부엌



여러가지 부엌세간들

리용한 집도 있었다.

외통집부엌에서는 부엌과 안방사이벽에 뒤단정도의 당반을 설치하고 여기에 음식조리용구와 식기류를 얹어놓았으며 찬장을 사용하는 경우 손이 쉽게 가닿을수 있는 부분 또는 중방에 못을 박아 바가지나 조리 등 식생활도구들을 걸어두고 리용하였다.



여러가지 상차림

이상에서 본 평양지방의 살림집생활풍습들은 그 유구성과 우수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민속전통의 주요내용을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오늘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되고있다.

민속명절과 민속놀이



민속명절



민속놀이



민속명절

평양지방에는 오랜 옛날부터 의의있는 날을 민속명절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와 놀이를 하면서 별식을 만들어먹고 즐기는 전통적인 풍습들이 있었다.

평양지방의 명절과 관련한 기록은 고대시기부터 찾아볼수 있다.

《삼국지》에 의하면 고조선에서는 음력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낮과 밤을 이어 음식을 차려 나누어먹으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놀았는데 이것을 무천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있다.

고구려에서도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국중대회를 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쾌히 놀았는데 이것을 동맹이라고 하였다.

이 행사들은 다 익은 낟알을 걷어들이고 한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지은 즐거움을 나누는 모임들이였다.

고조선과 고구려시기의 민속명절행사들은 그후 시대의 변천과 함께 변화발전하여 보다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후세에까지 전해졌다.

평양지방의 민속명절에는 이 고장 인민들의 고유한 생활풍습이 담겨져있다.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 근세까지 전해진 평양지방의 민속명절들가운데서 가장 크게 쉰 명절은 설과 정월대보름, 8월추석이였다.

설명절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로 음력설을 쇠여왔다.

해마다 새해의 첫날을 설이라 하여 명절로 맞이하는것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풍습이다.

새해의 첫날을 명절로 맞이하는것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공통적인 풍습이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에 따라 설과 설명절풍습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다.

언제부터 설명절을 맞아왔고 또 어느 날을 설날로 맞이하는가 하는것은 언제부터 력서를 만들어 리용하였으며 또 어떤 력서를 쓰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력서를 만들어쓰기 시작한것은 원시사회가 무너지고 계급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였다.

력서에는 해(태양)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태양력과 달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태음력이 있으며 태음력에는 또한 순수음력과 함께 태양력과 배합된 음양력이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써오던 력서는 태음력과 태양력이 배합된 음양력이였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맞아온 설은 모두 음양력에 기초한 음력설이였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고대부여에서는 정월에 영고라고 하는 나라안의 큰 모임을 가지였는데 이때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날에 날마다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설명절풍습의 유래가 멀리 고대로 거슬러올라간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삼국시기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명절을 크게 쇠였다.

고구려에서는 설명절을 국가적으로 크게 쇠였는데 그때마다 물끼얹기, 돌팔매놀이와 같은 편싸움놀이를 하면서 즐기였다.

이것은 상무적기풍이 강한 고구려사람들이 설날에 편을 갈라 돌팔매놀이와 물끼얹기놀이와 같은 활기있는 놀이를 하면서 명절을 즐겁게 쇠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에서는 설명절을 맞으며 이밖에도 맛좋은 음식들을 만들어먹고 아름다운 옷차림을 하며 서로 축하와 축원을 하고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등 다채로운 의례들이 진행되였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설명절은 그후 우리 나라 력사의 전기간 하나의 민속명절로 크게 맞이하여왔다.

평양에서는 설을 보통 정초명절 또는 정월명절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정월초하루와 정월대보름을 포괄하는 뜻으로도 쓰이였다.

설명절은 누구나 다 이날을 계기로 나이를 한살 더 먹는 새해의 첫날이므로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맞이하였다.

또한 복잡다사한 생활로 가득찼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맞는 새해 첫날 명절인것만큼 특별히 더 잘 준비하였으며 새해 첫 새벽부터 조상들과 웃어른들에게 례의를 표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흥미있는 다양한 민속놀이로 즐기였다.

옛기록들에 의하면 설을 세수, 년수, 원단, 원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한해의 첫날이라는 뜻이였다.

이로부터 평양지방인민들은 섣달 그믐날부터 설맞이준비로 흥성거렸다.

평양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설명절을 앞두고 설맞이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설명절맞이준비에서 중요한것은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옷과 설음식을 잘 마련하는것이였다.

설맞이준비는 음력 섣달 그믐께부터 진행하였다.

설명절을 깨끗하고 상쾌한 환경에서 쇠기 위하여 집안팎

을 말끔히 손질한 다음에는 설그림(세화)을 벽장이나 미닫이 문갈은데 붙여 장식하였다.

설그림에는 십장생 또는 범과 닭을 그리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장수와 길한것을 반영한것들이였다.

우리 인민들은 이날에 설빔이라고 하는 설날에 입을 옷도 미리 마련하였다.

먼 옛날부터 새해를 맞으면서 새옷을 지어 입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풍습의 하나였다.

설날이 다가오면 우리 인민들은 새옷을 마련하기도 하고 여벌의 새옷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설옷으로 입었으며 살림이 어려워서 새옷을 지어 입을 형편이 못되면 이미 입던 낡은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손질하여 입군 하였다.

《동국세시기》원일조에서는 설명절날에 입는 새옷에 대하여 세장이라고 하고있으며 남부지방에서는 설빔이라고도 한다고 전하고있다.

평양에서는 이날에 입는 옷을 일반적으로 정월명절옷이라고 하였다.

평양지방의 설명절옷차림은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달랐으나 모두 특색이 있었다.

보통 남자어른들은 명주바지저고리나 흰 무명솜바지를 입고 그 우에 물색의 배자를 입었으며 털등거리를 받쳐입기도 하였다.

이 배자는 남부지방사람들이 입는 마고자와 비슷한 저고리우에 입는 옷인데 량소매가 없을 따름이였다.

그외의 남자옷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여있었다.

평양지방의 중년이상 녀인들은 설명절날에 두루마기대신에 치마저고리우에 갖저고리를 입고 흰 수건을 쓴 다음 바깥출입을 하였으며 젊은 녀인들은 물색치마저고리우에 털등거리를 입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다.

평양지방의 갖저고리는 일반저고리를 크게 만든것으로서 량소매가 손을 가리울 정도로 길며 옷의 길이도 저고리보다 훨씬 길다.

그리고 갖저고리안에는 짐승털을 넣어서 보온이 잘되게 하였다.

이렇게 평양의 녀인들은 남부지방녀인들이 조바위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을 때 수건을 쓰고 갖저고리를 입는것이 일반 풍습으로 되여있었다.

옷차림과 함께 평양의 녀인들은 머리꾸밈새에서 얹은머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삿갓과 당의를 입거나 저고리우에 맵시있는 배자를 입어 옷의 면모가 잘 살아나게 하였다.

평양지방의 녀인들은 머리수건을 쓸 때 다른 지방녀인들과는 달리 수건매듭지의 한쪽이 우로 올라오게 매여 수건을 고정시키였으며 설명절날 수건치레를 매우 중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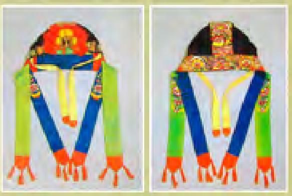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옷차림은 다른 지방과 비슷하였다.

이날 평양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비단으로 만든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아름답게 수놓은 타래버선(꽃버선)을 신기였으며 머리에는 가지각색의 수를 놓고 구슬로 장식한 휘양과 굴레를 만들어 씌우는 등 특색있는 명절차림을 하였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평양



어린이들의 색동저고리차림



굴레



타래버선

지방의 설명절옷은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것으로 하여 오랜 기간 평양의 설명절옷차림으로 전해져왔다.

이처럼 새해를 맞으면서 새옷을 지어입는것은 새해에 대한 희망과 문명민족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발전되고 고상한 도덕관념을 반영한것이였다.

평양지방인민들이 설명절맞이준비에서 성의를 다한것은 또한 설음식을 마련하는것이였다.

설음식은 설날 당일에 만드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재료들은 보통 설명절전에 미리 필요한 량을 마련하여놓았다가 리용하였다.

섣달 그믐날 우리 녀인들은 설음식을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일하였는데 이때 아이들과 늙은이들은 한옆에서 윷놀이를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으며 아이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잠을 자면 눈섭에 떡가루를 발라주어 눈섭이 세였다고 말하군 하였다.

평양에서는 설맞이준비를 잘하는것과 함께 설명절을 여러



떡치기

가지 명절의례로 뜻깊게 쇠였다.

설맞이의례는 새해 정월 초하루날 새벽부터 진행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설명절의례에는 차례와 세배, 설음식대접, 다양한 민속놀이 등이 있었다.

설날 새벽에 우선 음식을 차려놓고 돌아간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였다.

설을 비롯한 민속명절에 조상(옛날에는 4대조상까지)들에게 지내는 제사를 평양에서는 명절차례 또는 명절제사라고 하였다.

다른 지방에서는 차례를 보통 아침에 지냈는데 평양지방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 12시부터 설날 1시어간에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따라서 명절옷을 평양에서는 차례를 지내기 전에 입었다.

새해 이른 새벽에 조상들에게 례의를 표시하는 차례는 돌아간 부모들에게 하는 집제사로서 웃사람을 존경하던 풍습으로부터 나온 의례적인 새해 세배의례였다.

이날 가정들에서는 큰집(맏이의 집)에 모두 모여 돌아간 부모들을 위한 차례를 지냈으며 이러한 풍습은 전국적으로 공통된것이였다.

차례를 지내는 제상에는 몇가지 음식과 함께 반드시 떡국을 올리였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설날차례를 떡국차례라고도 하였다.

차례가 끝나면 가족의 웃사람들과 마을의 웃어른들에 대한 세배를 진행하였으며 동년배들사이에는 덕담(상대방의 소망에 맞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 문헌인 《렬양세시기》 정월 설날조에서는 설날에 남녀로소 할것없이 새옷을 입고 일가친척들과 이웃의 어른들을 두루 방문하는것을 세배라고 한다, 새해에 들어와 수삼일동안 수도의 남녀들이 흥겹게 왕래하는데 그의 아름다운 화장과 다채로운 옷차림은 거리를 휘황찬란하게 한다, 길에

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웃음으로 대하며 새해에 태평하라고 말하며 온갖 좋은 말로써 서로 축하한다, 즉 생남하라, 벼슬에 오르라, 우환거리를 쓸어버리라, 재물이 생기라는 등 상대방의 소망에 맞도록 말하는것을 덕담이라고 한다고 기록하고있다.

세배풍습은 우리 인민이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의를 귀중히 여겨온데서 생겨난 풍습이였다.

설날 아침에 하는 새해인사인 세배는 먼저 집에서 조부모와 부모에게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집에 돌아다니면서 손우사람들에게 하고 마지막으로 마을의 웃어른들에게 하였다.

집안의 세배방법을 보면 웃어른들에게 먼저 하고 나이와 항렬을 따져서 나이어린 사람이 나이많은 사람에게 하고 항렬이 낮은 사람이 항렬이 높은 사람에게 하였다. 만약 나이는 어리나 항렬이 높은 사람이 항렬이 낮은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세배를 하면 항렬이 낮은 로인은 앉은 자리에서 절을 받지 않고 반드시 답례를 하였다.

설날 로인들이 있는 집에서는 간단히 례물을 준비해놓았다가 세배를 받고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콩강정이나 엿가락을 쥐여주었고 어른들에게는 간단한 음식을 내놓았다.

이웃마을이나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 사는 웃어른들에게도 세배를 다니였는데 그때의 세배는 보름전에 하면 례의를 지키는것으로 되였다.

동시에 지난날 일부 사람들은 류다른 형식의 세배도 하였다.

《동국세시기》 정월 원일조에는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집에서 녀종을 단장시켜 문안비로 보내기도 하고 하인에게 좋은 새해인사말을 적은 종이를 쥐여보내여 상대방집 대문안에 놓은 탁자우에 놓고 돌아오는 세배풍습도 있었다고 기록되여있다.

당시 이러한 세배형식을 세함이라고 하였다.

이 방법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도 글로 세배를 대신할수

있게 하는 새해 인사례절이였다.

세배는 초하루날에 다 끝내지 못하면 정월 한달동안 두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배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은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덕담을 교환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이와 같이 세배는 례의도덕이 바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맞이의례의 하나였다.

설날의 명절음식은 세찬이라고 하고 설날 마시는 술은 세주라고 하였으나 평양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절음식이라고 하였다.

이날 평양의 집집마다에서는 차례를 지낸 다음 명절날 아침에 집안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음식상을 차려놓고 새해를 축하하면서 먹었다.

그후 세배하러 사람들이 오면 명절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였다.



떡국

우리 나라에서 떡국은 정월명절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이므로 모든 가정에서는 다 떡국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고 손님을 대접하였다.

평양지방의 떡국은 멥쌀가루를 쪄서 긴 가래떡을 만들어 그것을 돈잎만하게 썰어서 고기국에 넣어 끓인것이다.

이러한 풍습에 대하여 《렬양세시기》정월 설날조에서는 먼저 장국을 만들어 끓이고 떡을 엽전모양으로 잘게 썰어서 집어넣는데 떡이 서로 엉켜붙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것을 좋은것으로 여긴다. 혹은 돼지고기, 소고기, 꿩고기, 닭고기들을 넣어서 섣달 그믐날 밤중에 집안식구수대로 한그릇씩 먹는것을 떡국이라고 한다. 항간에서는 아이들의 나이를 물을 때 흔히 말하기를 《떡국 몇그릇째 먹었느냐?》고 한다고 하였다.

떡국은 꿩고기를 넣고 끓이는것이 제격이였으나 꿩고기가 없을 경우에는 닭고기를 넣고 끓이였다.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꿩대신 닭》이라는 말



설명절음식



설명절음식

은 이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였다.

평양지방에서는 다른 고장에서와 같이 떡국을 설명절음식으로 만들어먹었으나 이날에 특색있는 만두국도 끓여먹었다.

평양에서는 섣달 그믐날에 서로 꿩 한쌍씩을 선사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설꿩(세치)이 료리에 리용되였으므로 만두국의 맛을 한층 돋구어주었다.

설날에 해먹는 떡으로는 설기, 절편, 찰떡, 쉬움떡, 조개송편, 송편, 꼬리떡 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가운데서 특색있는것은 절편과 꼬리떡이였다. 그 이외의 떡들은 다른 지방의 명절음식과 같으나 그 모양과 아름다움에서 보다 특색있게 만들어졌다.

또한 이날 평양에서는 지짐을 많이 부쳐먹었다.

지짐은 그 원료에서 록두가 제일 고급이지만 평양에서는 강냉이, 좁쌀, 수수 등 여러가지 잡곡을 재료로 하여 색다른 지짐을 지져먹는 풍습도 있었다.

이밖에 산적, 육적, 설화묵과 같은것도 만들어먹었으며 단음

식으로서는 약과 등이 있었다.

과일로는 사과, 배, 밤 등이였다.

평양에서는 다른 지방과 같이 설날 마시는 술로서 약주, 청주를 쓰기도 했지만 소주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평양지방의 겨울이 남쪽지방에 비하여 훨씬 춥기때문에 청주보다도 알콜성분이 더 많은 소주를 즐겨 마시던 관습에서 온것이였다.

설명절에는 로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도 《세주불온》이라 하여 찬술을 한잔씩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옛사람들이 정초부터 봄이 든다고 보았기때문에





윷놀이를 형상한 옛그림



그네뛰기

봄을 맞으며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생긴 풍습과 관련되여있었다.

평양지방에는 설명절음식을 대보름명절날에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신으로부터 초하루명절음식을 변하지 않게 보관하였다가 보름날에 먹는 풍습도 전해지고있다.


연띄우기를 형상한 옛그림


썰매타기와 팽이치기

설명절에는 이렇게 겨울철 음식 모두를 특색있게 가공하여 여러가지 맛있는 명절음식을 만들었으므로 이날에 평양의 겨울음식 모두를 맛볼수 있었으며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어먹으며 여러가지 놀이들도 흥겹게 진행하였다.

설명절을 특별히 의의있고 즐겁게 한것은 여러가지 민속놀이였다.

설날의 민속놀이로는 석전, 윷놀이, 널뛰기, 연띄우기,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었다.

설날에 진행된 이러한 놀이들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즐겨 논것들로서 정서적이면서도 체력단련에 유익하였고 설명절날의 의의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정월대보름

평양지방에서는 설명절에 못지 않게 정월대보름명절을 14일, 15일에 크게 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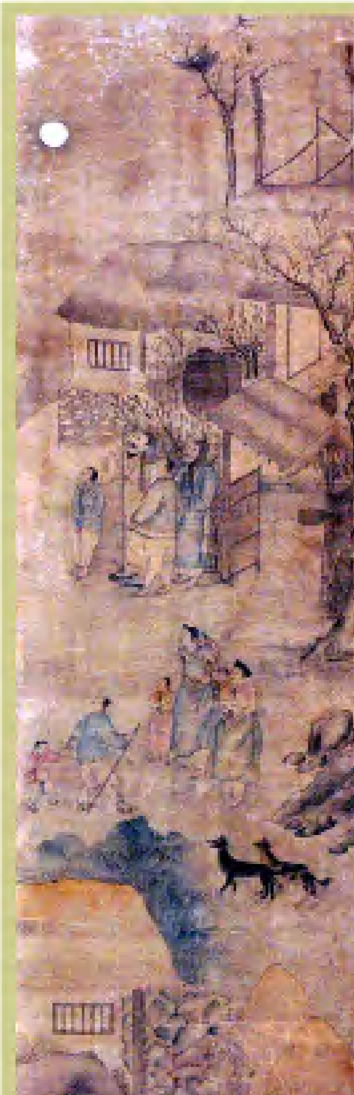
정월대보름은 설명절 다음에 오는 정월 15일로서 새해 첫달에 맞는 보름날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보름날을 명절로 맞은것은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기부터였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정월 보름날에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날 찰밥을 만들어먹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찰밥의 유래에 대한 전설이지만 중세시기 찹쌀을 주재료로 한 약밥을 만들어먹는 풍습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정월 대보름날을 명절로 맞았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려시기에는 대보름명절을 9개 민속명절의 하나로 맞이하였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이날 여러가지 명절의례를 진행하였다.



달맞이를 형상한 옛그림


봉죽놀이


바줄당기기

정월대보름명절은 보통 14일부터 시작되였는데 14일은 작은보름, 15일은 대보름이라고 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대보름명절에 새해의 행운과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반영한 여러가지 흥미있는 의례적인 행사를 하였다.

대보름명절의 대표적인 명절행사와 민속놀이로는 작은보름의 낟가리대세우기와 대보름의 달맞이, 홰불놀이, 연띄우기, 바람개비놀이, 봉죽놀이, 줄당기기, 놋다리놀이, 다리밟이, 수레싸움놀이 등이 지역적특성을 띠면서 진행되였다.

평양에서는 대보름날에 의례적인 행사로 달맞이를 진행하였다.

평양의 달맞이는 부벽루에서 하는것이 장관이여서 예로부터 평양8경의 하나로 불리워왔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부벽루의 달맞이를 노래한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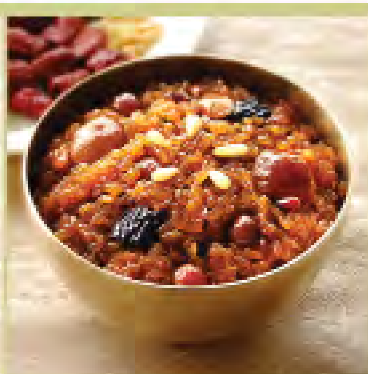
부벽루의 달맞이

하늘중천 높은 루대 무지개 걸렸는데
사방을 바라보니 뭇산도 발밑이라
란간에 기대서서 솟는 달 맞이하니
수정같이 맑은 물에 달빛이 춤을 추네
천하에 밝은 달빛 물결우에 반짝이고
금빛으로 번쩍이니 갈꽃처럼 희구나
밤은 깊어가고 찬 이슬바람 불어와도
명랑한 피리소리 귀 기울여 듣노라

이 시는 평양의 달맞이가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와 잘 어울려 명절의 한밤을 즐겁게 해주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명절음식을 보면 평양지방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14일 작은보름을 크게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으므로 이날에 14일까지 잘 보관하였던 초하루명절음식을 먹었으며 여러가지 색다른 음식도 만들어먹었다.


팥밥


약밥



대보름 나물반찬

정월대보름날에 먹는 음식으로서는 찰밥, 국수가 특이하였다.

찰밥은 흰 찹쌀에 팥을 넣어서 지은 밥인데 14일 아침에 먹었다.

그리고 부식물로서는 마른나물반찬(삼지구엽초나물, 고추잎나물, 고비나물, 능쟁이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록두나물, 도라지나물, 호박나물 등)을 많이 만들어먹었다.

평양지방에서는 이날 아침에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름에 살쐐기가 몸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월대보름날에 찰밥에다 검정나물을 먹으면 그해에 건강하여 병을 앓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찰밥에 마른나물반찬을 반드시 먹는 풍습도 전해지고있다.

국수는 점심에 먹는 랭면을 이르는 말이다.

랭면을 먹으면 긴 국수사리처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 이날에 랭면을 먹었다.



귀밝이술

평양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맛있게 담근 동치미에 국수를 말아먹는것을 큰 락으로 여겨왔으며 랭면의 특이한 맛으로 하여 지방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의례히 《평양랭면옥》이라는 간판을 내걸기 좋아하였고 평양랭면의 고유한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아침에 덥히지 않은 찬 술을 한잔씩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는 귀밝이술을 마시였는데 이것은 명절날 술을 절도있게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귀밝기에다 결부시켜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였다.

그리고 이발이 튼튼해진다고 하는 이닦이엿, 이닦이콩을 먹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것은 딴딴한것을 깨물기때문에 이발을 단련시켜준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대보름명절에 별식으로서 약재로 되는 열매를 먹게 하려는 뜻에서 생긴것이다.

정월대보름날은 작은보름에 이어 련이어 맞이하였기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날은 여러가지 재미있는 민속놀이

를 하면서 즐기였다.

이날에 하는 민속놀이로는 연띄우기, 팽이치기, 바람개비놀이, 돌팔매놀이 등이 있었다.

이처럼 평양지방의 정초명절은 새해를 축하하여 가장 즐겨맞는 명절로서 평양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 아름다운 옷차림 그리고 흥미있고 다채로운 명절의례들과 민속놀이들이 많았던것으로 이채를 띠고있었다.

지난 시기 평양에서는 2월 초하루를 명절로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평양에서는 흰쌀, 찹쌀, 수수, 좁쌀, 팥 등 오곡을 가루내여 설기떡을 만들어먹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것은 전국적으로 정월대보름을 맞으면서 오곡밥을 해먹고 2월 초하루를 맞으며 송편을 해먹는데 평양에서는 대보름을 맞으며 찰밥을 먹고 2월 초하루날에 오곡으로 만든 떡을 먹는것이다.

그리고 이날에 집안팎을 청소하고 마을의 우물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풍습이 있었다.

청명

정월명절이 지난 후 평양에서는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보는 청명날을 절기명절로 맞이하였다.

청명은 양력으로 해마다 4월 4일～5일에 해당하는 절기이다.

그러므로 청명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에 해당된다.

년중 날씨가 따뜻하고 맑은 봄철의 절기인 청명은 사람들의 생활과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민속명절의 하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청명을 명절로 맞이한것은 매우 오래전부터이다.

발해사람 왕정균이 타향에서 청명을 맞으니 고향생각이

간절하다고 읊은 시는 발해에서 이미 청명을 명절로 맞이하고 있었다는것을 말한다.

청명날의 명절풍습에서 중요한것은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하거나 묘를 옮기는것이였다.

우리 인민들이 청명날에 겨우내 얼었다가 녹은 무덤을 손질하거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쓰는 풍습을 오래동안 지켜온것은 선조들을 잊지 않는 도덕의리심과 함께 집안의 안녕과 한해농사의 풍작을 바라는 의식이 적지 않게 작용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이와 함께 이날이 계절적으로 볼 때 봉분에 입히는 잔디도 잘 살아나고 땅도 다 녹아 복토나 천묘에 매우 적합한 시기였던것과도 관련된다.

이로부터 사람들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봄철의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명날에 조상에 대한 례의를 표시하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여왔다.

청명날의 명절풍습에서 중요한것이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를 하는것이였으나 농촌에서는 이날이 새해 농사일을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였다.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겨온 우리 인민들은 청명전에 벼종자를 담그었다가 모판에 뿌리였으며 흔히 이날부터 봄씨뿌리기를 시작하였다.

옛 문헌인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청명에는 농가들에서 봄갈이를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청명을 계기로 우리 인민들이 새해 농사일을 시작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농촌들에서는 이날을 계기로 조나 기장, 콩, 팥과 같은 밭작물과 호박, 무우, 파를 비롯한 갖가지 남새를 심었다.

청명은 날씨가 맑아 봄씨붙임에 알맞는 절기였을뿐아니라 물이 맑아 술을 담그는데 매우 좋은 계절이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이름난 술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절기의 이름

을 붙인 술은 청명주뿐이다.

19세기 기록인 《림원십륙지》에는 17세기 사람인 리익이 량계처사에게서 배웠다는 청명주 만드는 방법과 년중에서도 물이 제일 맑은 청명때에 빚은 청명주의 맛이 제일 달고 향기롭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청명때의 맑은 물로 술을 담근 력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명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한해농사의 결속을 앞두고 햇곡식으로 음식을 지어 조상들에게 지성을 표시한 추석(한가위)과 함께 조상의 묘를 찾아 손질하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이 깃들어있는 날이였다.

오늘 평양에서는 청명날을 조상들을 찾아가 성묘를 하고 그들에 대한 례의를 표시하는 날로, 새해 봄씨붙임을 시작하는 시기로 맞이하고있다.

3월삼질

3월삼질(음력 3월 3일)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서 가장 크게 맞이하였던 민속명절이였다.

이때에는 대동강의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봄빛이 짙어오



사냥경기

며 릉라도수양버들가지에 새싹이 움트고 대성산을 비롯한 평양주변의 산봉우리들마다 진달래꽃이 한창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3월삼질날을 독특하게 맞았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이 되면 수도 평양의 많은 사람들과 5부의 병사들이 락랑언덕에 모여 한해동안 닦아온 활쏘기와 칼쓰기, 창쓰기 등 무술을 시위하고 사냥경기와 무술겨루기를 하였으며 사냥을 하여 잡은 짐승을 놓고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행사를 국가적인 성대한 행사로 진행하였다.


활쏘기

고구려사람들은 이런 행사를 해마다 정기적인 민속명절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이날에 사냥경기와 같은 무술겨루기를 하여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하고 등용하였다.

미천한 온달이 사냥경기에 참가하여 단연 1등을 하고 군사지휘관으로 등용된 사실과 락랑언덕에서의 사냥경기에서 잡은 산짐승들로 하늘과 산천의 신령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것은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것이다.

이처럼 상무적기풍이 높았던 고구려에서는 이날에 들놀이를 조직하여 한해동안 닦아온 활쏘기와 칼쓰기, 창쓰기 등 무술


진달래화전


쑥떡

을 시위하며 마음껏 들판을 달려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서 명절을 의의깊게 쇠였다.

3월삼질맞이는 그 이후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꽃지짐을 지져먹으며 봄맞이들놀이를 하는것으로 변하였다.

이 시기의 화전놀이풍습에 대하여 《용재총화》에서는 3월삼질날은 상사라고도 하는데 세속에 이르기를 답청절이라고도 하니 사람들이 모두 교외에 나가 놀면서 꽃이 있으면 화전(꽃지짐)을 부치며 술을 마시고 쑥잎을 뜯어 떡을 해먹기도 한다고 하였다.

평양에서는 이날에 집안식구끼리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산과 들로 나가 하루를 꽃지짐을 지지거나 화면(꽃국수)을 만들어먹으며 즐겼다.

진달래꽃지짐은 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고 참기름을 발라 지져먹는것인데 이로부터 꽃지짐을 지져먹는 들놀이를 화전놀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삼질날에 특별음식으로 록두지짐과 화면을 먹으며

명절을 쇠였다.

록두지짐은 록두가루를 반죽하여 지짐을 지져 가늘게 썰어 꿀을 바르고 잣을 박아 먹었다.

또한 화면 혹은 수면이라고 하여 진달래꽃을 뜯어다 록두가루에 넣어 국수를 만들어먹기도 하였다.

이날에 어린이들은 그들대로 여러가지 꽃과 풀들을 꺾거나 뽑아다가 하나씩 서로 엇걸어 잡아당겨 어느것이 끊어지는가를 겨루기도 하고 꽃과 풀의 이름대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풀대를 들고 밑에서부터 훑어올려 끝에 물이 고이는것을 서로 맞대여 어느 편에서 그 물을 묻혀가는가를 겨루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았다.

이와 같이 봄철의 하루를 꽃지짐을 지져먹으며 산과 들에 만발한 봄날을 즐기며 맞이하는 3월삼질맞이는 사람들이 봄날의 향취를 마음껏 즐기기 위한것으로서 정서적이며 문화적인것이였다고 본다.

6월류두

6월류두명절은 음력 6월 15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내가에 나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여름철의 하루를 즐기면서 맞이한 민속명절의 하나였다.

《렬양세시기》에 고구려, 신라때에 나라안의 남녀들이 술과 음식을 갖추어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는 내가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겁게 놀며 굿을 하여 불길한 마귀를 제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류두를 일찍부터 명절로 맞이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또한 고구려시기 작품인 《동동》가요에서도 6월 보름날 물가에 내버린 빗 갈고 돌보아주실 님을 따라나서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류두날 강물에 나가 머리를 빗는다고 노래하였다.

《동동》가요는 《동동춤》과 함께 고구려때부터 전해오는 노래이다.

그것은 15세기말에 동동춤을 본 명나라사신이 저것은 무슨 춤인가고 물은데 대하여 성종왕이 이 춤은 고구려때부터 이미 있던것인데 동동춤이라고 부른다고 했다는《성종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류두를 명절로 맞는것은 고려시기에 더욱 성행하여 연등, 팔관과 함께 3대명절의 하나로 일러오기까지 하였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계승되여왔다.

류두날에 동쪽의 강으로 나가는것은 이날 동쪽은 밝고 양기가 왕성한 방향이라는 미신적인 점도 다소있으나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의 개체위생을 강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생겨난 좋은 풍습이였다.

류두날의 특색있는 음식으로는 햇밀가루국수와 수단, 건단 등이 있었다.

평양에서는 류두날에 밀국수를 만들어먹는것을 풍습으로 하여왔다.

이날 남자들은 대동강과 보통강에 나가 목욕을 하면서 가막조개라는 작은 조개를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닭고기와 쌀을 넣고 쑨 어죽을 먹었다.

이렇게 류두날 평양의 류두면과 어죽은 다른 지방음식과는 특이한 평양의 류두날음식으로 전해져왔다.

평양에서는 류두에 이어 초복, 중복, 말복도 맞이하였다.

삼복은 명절은 아니였지만 민간에서는 한여름의 더위를 알리는 이날을 의의있게 맞았다.

삼복에는 명절놀이를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삼복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곳으로 가거나 철음식으로 팥죽을 쑤어먹고 단고기국을 끓여먹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것은 복날에 단고기국을 먹는것이였다.

삼복철은 무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므로 단고기국을 먹어야 몸보신이 되고 병을 미리 막으며 더위를 덜어준다고 하여 오랜 옛날부터 삼복때에 많이 만들어먹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여왔다.

평양에서는 이날 더위를 피하여 양각도, 백은탄, 릉라도에 가서 목욕을 하고 비빔밥, 단고기국, 불고기같은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만들어먹는것을 풍습으로 하였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삼복때에 햇병아리를 잡아 인삼, 대추, 찹쌀 등과 함께 고아먹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계삼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음식들은 모두 팔팔 끓여서 땀을 흘리면서 뜨거운것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하면 몸이 거뜬해지고 더위도 덜해지며 몸보신도 된다고 하였다.



단고기국

이에 대하여 《동국세시기》에는 단고기에 파를 넣어서 푹 삶은것을 단고기장이라 하는데 거기에 닭고기와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그리고 단고기국을 만들어서 후추가루를 치고 흰밥을 말면 철음식으로 되며 그것을 먹고 땀을 내면 척서가 되고 보신도 할수 있는데 거리에서도 이것을 많이 팔고 있다고 기록되여있다.


소불고기


꿩불고기

이렇게 여름철의 철음식과 놀이들은 쌓여온 피로를 풀며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는데 유익한것들이였다.

7월칠석

7월에는 명절은 아니나 저녁에 견우성과 직녀성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즐기는 음력 7월 7일인 칠석날이 있다.

칠석날 저녁에는 집집마다 저녁밥을 일찌기 지어먹은 다음 모기불을 피워놓고 퇴마루나 마당에 펴놓은 멍석우에 둘러앉아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견우성과 직녀성에 대한 전설을 들으면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견우성과 직녀성에 대한 전설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며 사람마다 흥미를 돋구려고 이야기를 덧붙이다보니 그 종류가 많다.

고구려시기의 무덤인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무덤벽화에


견우, 직녀를 형상한 덕흥리무덤벽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를 형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것으로 보아 이 전설이 우리 나라 삼국시기에 벌써 널리 보급되여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견우직녀전설은 아득한 옛날 별나라에서 소를 기르는 견우라는 총각과 천을 짜는 직녀라는 처녀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갈라져 살아야 하는 불우한 운명에 대한 내용으로 되여있다.

별나라의 포악한 왕은 견우와 직녀가 같이 있으면 마음대로 일을 시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을 량쪽에 갈라져 살게 하였으며 1년에 단 한번 7월칠석날에만 만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7월칠석날이 돌아왔어도 그들은 은하수가 너무도 깊고 넓어 만날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견우와 직녀는 서로 안타까이 바라다보며 눈물만 흘렸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지상세계의 곡식이 한창 여물어가는 때의 장마로 되여 사람들을 근심케 하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지 못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는것을 알고 자유로이 하늘을 날을수 있는 까막까치들을 보내여 은하수에 다리를 놓게 하였다.

이리하여 견우와 직녀는 까막까치들로 놓아진 오작교를 건너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였다.

전설에 의하면 7월칠석날에 까치들을 볼수 없는것은 모두 은하수에 다리를 놓으러갔기때문이라고 하며 7월칠석날 아침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의 탄식의 눈물이고 낮에 내리는 비는 상봉한 기쁨의 눈물이며 밤에 내리는 비는 리별의 슬픔을 담은 눈물이라고 하였다.

전설은 이러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 강제부역 등으로 하여 착취사회에서 서로 헤여져 살지 않으면 안되였던 무권리한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아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신기하게 들으면서 밤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을 찾으며 은하수를 바라보군 하였다.

평양에서는 이날에 처녀들은 직녀성에게 바느질과 수놓이솜씨가 늘게 해달라고 기원하였으며 바느질을 하면서 그 솜씨를 익히는 풍습도 있었다.

그리고 칠석날에는 낮에 옷이나 서적의 해별쪼이기를 하였다.

《동국세시기》에는 칠석날 집들에서 옷을 내걸어 해별을 쬐였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기록하고있다.

이것은 이때가 장마가 진 뒤이므로 옷의 해별쪼이기를 하여 누기가 찬 옷과 이불을 건조시키는 좋은 관습을 강조한것이다.

이와 같이 칠석날의 풍습은 아이들에게 천체의 운동에 대한 상식과 탐구심을 키워주며 장마철의 습기를 가셔버리고 옷이나 책을 잘 보관할수 있게 하는 유익한것이였다.

추석

음력 8월 15일을 추석(한가위)이라 하여 가을철의 큰 명절로 맞이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추석은 인민들이 풍년농사를 지어놓은 기쁨을 안고 즐기는 날이며 돌아간 조상을 위하여 지성을 표시하는 날이기도 하였다.

음력 8월 15일을 가배, 한가위라고 하면서 명절로 맞은것은 삼국시기 또는 그 이전시기부터였다.

고구려에서 추석명절맞이는 고구려가요인 《동동》가사의 8월조 내용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구려에서 8월추석명절맞이가 가배날이라고 불리우면서 명절로 맞이하였다고 노래하고있다.

추석은 발해 및 후기신라,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를 거치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큰 민속명절의 하나로 고착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추석명절풍습은 조상을 위한 의례, 철음식, 민속놀이와 같은 내용들이 서로 밀접히 결합되여있었다.

추석명절의 첫 의례는 조상의 무덤을 돌아보는것이였는데 이것을 성묘 또는 산소보기, 뫼보기라고 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한해 농사를 다 짓고 가을걷이를 앞둔 8월추석날에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상들의 무덤을 돌아보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풍습으로 지켜왔다.

이날에 평양사람들은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빚어가지고 산소를 찾아가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며 성묘를 하였다.

성묘는 무덤우의 풀을 깎아주는것으로서 이것을 벌초라고 하였다.

이날에 사람들은 명절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제물을 지고 이고 산으로 올라 봉분과 그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나 잔디를 일매지게 깎아주었다.

그리고 장마철에 패인 곳이 있으면 메꾸어주고 무덤우에는 흙도 덮어주었다.

벌초를 끝낸 다음에는 무덤돌아보기를 하였다.

무덤돌아보기는 조상들의 항렬별, 년령별 순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그 다음 제사를 지내였다.

제사가 끝나면 둘러앉아 선조들의 생전에 있었던 일들과 생활상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음식을 나누어먹었다.

이처럼 추석날에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풀도 베고 제사를 지낸것은 례절이 밝고 의리가 깊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적풍모를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까지 전해져 음력 8월 15일에는 평양주변의 산소들에서 성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다.



추석을 형상한 그림

추석날 저녁 사람들은 정월보름날처럼 달구경을 하였다.

이날 일부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떠오르는 둥근달을 구경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달을 바라보았다. 이때 사람들은 밝고 시원한 은빛색으로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둥근달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소박한 꿈이 담긴 시를 읊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중세시기 사람들은 달을 보고 농사결실을 예언하기

도 하였다.

추석날 밤에 달이 밝으면 그해 밭곡식이 풍년일것이라고 좋아하였고 구름이 끼면 밭곡식이 잘 여물지 못할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추수를 앞두고 있는 때에 풍년을 바라는 마음에서 달의 밝고 흐림을 보고 농사형편을 가늠해보던것이였다.

추석날의 명절음식으로는 햇곡식을 찧어만든 찰떡, 송편, 밤단자와 찹쌀술같은 음식이였다.

추석명절음식가운데서 평양지방의 특색있는 음식은 노치였다.

이날에 만들어먹는 노치는 찹쌀이나 찰기장쌀가루에 길금가루를 넣어서 반죽하여 삭힌 다음 기름으로 지짐을 지지듯이 부쳐서 만들었기때문에 지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자에 가까운 음식이였다.



찰떡



밤다식

크기는 직경 3~5㎝, 두께 0.8㎝가량 되는 둥근 떡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노치는 맛이 달고 잘 저장하면 4~5개월동안 먹을수 있었다.

이밖의 음식은 다른 명절음식과 같았다.

추석날의 민속놀이는 씨름, 그네뛰기가 기본이였는데 지방에 따라 줄당기기, 소놀이, 거부기놀이, 강강수월래놀이, 길쌈놀이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평양에서는 추석날에 씨름경기와 그네뛰기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9월중구

평양에서는 8월추석이 지나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음력 9월 9일을 9자가 겹치는 중구일이라 하여 민속명절로 맞는 풍습도 있었다.

이날에는 산에 올라 단풍을 구경하면서 국화지짐을 지져먹거나 국화술을 마시며 즐기였다.

우리 나라에서 중구를 명절로 맞은 기록은 고려시기에 처음으로 보인다.

고려시기 9개 민속명절가운데 중구가 포함되여있는것은 그 시원이 매우 오래다는것을 보여준다.

《렬양세시기》에서는 단풍이 들고 국화가 피는 시절에 남녀가 유람하는것이 대체로 화류놀이와 같은데 량반들가운데 옛날 풍속을 좋아 하는자는 9월 9일에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짓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중구는 량반지배계급들이 단풍구경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시나 읊는 날로 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중구에 노는것이 화류놀이와



길쌈놀이를 형상한 그림



씨름을 형상한 옛그림



여러가지 화채

갈다는것은 삼월삼질날 들판에 핀 꽃을 즐기며 진달래꽃지짐을 지져먹은것처럼 가을철의 중구날에는 단풍과 국화를 감상하면서 국화지짐을 지져먹는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중구날의 중요한 놀이는 단풍과 국화 등 저물어가는 가을철의 자연미를 감상하는것이였다.

중구날에 해먹는 독특한 철음식은 국화지짐과 화채였다.

《경도잡지》에는 국화를 따다 떡(지짐)을 만드는데 그것은 3월삼질날의 진달래지짐과 같으며 이것도 화전이라 한다고 씌여있다.

평양에서는 주로 국화전을 부쳐먹는 풍습이 있었으며 련광정에서는 문인들이 모여 시를 읊으며 놀군 하였다.

국화지짐은 찹쌀가루에 국화를 따넣어서 지진것으로서 일찍부터 중구때에 한번씩 맛보는 음식이였다.

화채는 가을철에 흔히 나는 배와 유자, 석류, 잣 같은것을 잘게 썰어 꿀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인데 이것 역시 중구날에 빠져서는 안되는 철음식이였다.

중구날에는 술도 국화를 띄운 국화술을 마시였다.

중구는 단풍을 즐기는 명절이였으므로 이날은 국화지짐이나 국화술외에 다른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먹거나 놀이를 하는것은 없었고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는 정서적인 날로 맞이하였다.

동지날과 랍일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절기명절인 동지가 있었으며 그외 10월 상달(10월 15일), 12월 랍일 등이 있었다.

예로부터 음력 11월을 동지달이라고 하였는데 이달의 동지날은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이다.

절기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는 하지에 낮이 제일 길어졌다가 점차 줄어들어 동지날에 이르면 가장 짧아지며 이때에 밤이 제일 길어진다.

이처럼 낮과 밤시간이 반대로 바꾸어지는 절기의 변화에 따라 우리 인민들은 동지날을 절기명절로 맞이하였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11월초순에 들면 애동지라고 하였고 초순이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다.

애동지가 드는 해는 그해 겨울이 춥고 로동지가 드는 해는 춥지 않다는 말도 전하여온다.

그리고 동지날을 시점으로 하여 해가 다시 길어진다고 하여 이날을 작은설(아세)이라고도 하였다.

동지는 고려때에 이미 9개 민속명절의 하나로 되여있었던것만큼 그 이전시기부터 민속명절로 쇠여왔다고 보아진다.

절기명절인 동지날에는 특별한 명절의례나 민속놀이를 진행하는것이 없었고 다만 팥죽을 쑤어먹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을뿐이다.

동지날에 팥죽을 쑤어먹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속적인 풍습의 하나이다.

팥죽은 지난 시기 여느때에도 가정들에서 쑤어먹군 하였으나

동지날에는 없어서는 안될 철음식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므로 동지날에 쑤어먹는 팥죽을 동지죽 또는 동지팥죽이라고 하였다.

평양에서는 동지날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팥죽을 쑤어먹는것을 풍습으로 하였다.

팥죽은 팥을 푹 삶고 거기에 흰쌀을 넣은 다음 물을 많이 붓고 끓이였다.

이때 찰수수가루로 만든 오그랑이를 빚어넣었다.

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감기를 앓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찰수수가루로 만든 새알심을 넣은 팥죽이 영양과 소화에도 좋고 계절음식으로 만들어먹을만한 별식이였던것과 관련된다.

동지날에는 이밖에 랭면, 신선로와 같은 이름난 음식도 만들어먹었다.



동지죽

랭면이나 신선로는 동지날이 아니라도 동지달에 흔히 만들어먹었으나 동지팥죽만은 반드시 동지날에 쑤어먹었다.

우리 인민들은 동지외에 12월 랍일도 맞이하였다.

민간에서는 이날 참새를 잡아서 어린이들에게 구워 먹이면 천연두의 예방에 좋다고 하여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겨울철의 구운 참새가 맛이 좋기도 하지만 곡식에 해를 주는 참새를 될수록 많이 잡아없애도록 하려는 뜻에서 나온것이라고 본다.

랍일에 평양지방에서는 반드시 국수를 눌러 먹었는데 이 국수를 랍일국수라고 하였다.

또한 평양지방에서는 랍일고기라 하여 랍일에 돼지고기를 마련하였다가 약에 썼으며 랍일에 눈이 오면 그 눈을 자그마한 단지에 넣어두었다가 여름에 마시면 약이 된다는 말도 전해오고있다.

이처럼 평양의 민속명절은 평양의 력사와 더불어 여러가지 명절의례들과 철음식, 특별음식, 다양한 민속놀이들로 하여 즐겁고 의의있는 날로 전해져오고있으며 웃사람들을 존경하고 이웃간에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을 반영하고있다.



평양랭면과 신선로

민속놀이

택견(수박희)

수박은 전투적이고 실용적이였기때문에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고려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중요한 무술훈련종목의 하나로 되여있었다.

택견(수박희)은 평양에서 발생하여 전국적범위에로 널리 일반화된 무술련마놀이이며 민족무술이다.

이 무술련마놀이는 원시시대사람들의 생산활동과정에 생겨났으며 점차 조국방위와 결부되면서 중세시기에는 발과 손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재치있고 날랜 동작으로 공격과 방어를 진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무술종목으로, 민족무술로 되여왔다.

택견이 평양에 뿌리를 두고있었다는것은 고구려고국원왕릉벽화의 수박장면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평양을 수도로 한 고구려에서 왕릉의 벽화에 수박희장면이 그려져있다는것은 이 놀이가 수도 평양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고국원왕릉의 수박놀이장면을 보면 웃옷을 벗고 짧은 아래옷만 입은 두사람이 마주 서서 상대방을 치려고 한손을 높이 쳐들거나 내리치며 들어오는 상대방의 주먹을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그 모습은 18세기에 출판된 《무예도보통지》에 있는 수박, 권법을 설명한 그림과 거의나 같다.

이것은 고구려때의 수박놀이가 그대로 후세에까지 전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려시기에는 군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주 수박경기를 조직

진행하였으며 우수한자를 지휘관으로 선발하고 상도 주었으며 군사직위도 높여주었다.

실례로 《고려사》에는 무신정권시기 최충헌이 연회를 차리고 중방의 군인들에게 수박희를 시키고 이긴자에게 교위, 대정등의 벼슬을 주었으며 의종은 주연을 차리고 무관들로 하여금 5병수박희를 놀게 하고 구경하였다고 씌여있다.

이것은 고려시기에 군인들속에서 수박희가 여러가지 동작과 기법을 가진 무술련마놀이로 활발하게 진행되였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수박은 탁견-택견으로 불리우면서 인민들속에서 사랑받는 무술련마놀이로 널리 보급되였다.

1920년대에 출판된 《해동죽지》의 탁견희항목에서는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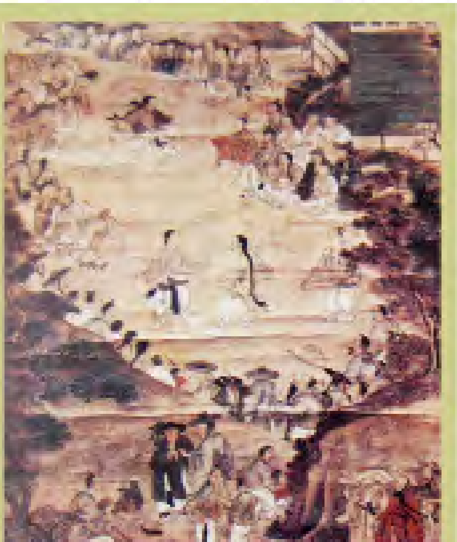
고국원왕릉벽화의 수박장면

풍속에 다리수법이라는것이 있는데 서로 마주하고 서서 차거나 꺼꾸러뜨린다, 그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못하는자가 정갱이를 차고 잘하는자는 어깨를 찬다, 날며 차는 다리기술(비각술)이 있는자는 상투를 차서 떨어뜨린다, 그것을 〈탁견〉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깨를 밀어찬다는 뜻인 탁견이 어음변화되여 택견으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택견은 공격과 방어, 반공격에서 강한 타격으로 상대의 급소나 약한 고리를 들이쳐 넘어뜨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거나 피하기, 기만과 역습, 상대방의 강타를 견디여내는 육체적단련, 모든 힘을 집중하여 폭발적인 힘을 내거나 바람같이 빠르고 날랜 몸동작 등을 중요한 기술수법으로 하였다.

때문에 《해동죽지》의 기록에는 택견을 많은 기예들가운데서 으뜸가는 신통력이 있는 민족의 전통적인 무술로 평가하면서 택견의 훈련방법과 기술수법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던것이다.



택견을 형상한 옛그림

평양에 뿌리를 둔 택견을 날파람이라고도 하였다.

날파람이란 말은 원래 무엇이 빨리 날아가면서 생기는 강한 바람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그러던것이 고대로부터 중세시기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여온 평양지방 젊은이들의 택견수법이 하도 날래고 위력이 강하여 그 수법의 명칭으로 불리워졌던것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와 서북지방의 사람들은 오랜 력사적기간 택견을 자기들의 성격과 기질에 맞게 발전시켜오면서 그것을 평양날파람으로 불렀다.

일제의 조선민족무술말살책동과 봉건사가들의 사대주의적인 력사관으로 하여 그 어느 문헌기록에서도 평양날파람이라는 민족무술명칭은 찾아볼수 없다. 다만 일부 전해지는 구전자료와 후시기의 현지조사자료를 통하여 평양날파람의 일면모를 찾아볼수 있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택견은 대를 이어 계승되였으며 그 과정에 전국적범위에서 택견명수들이 배출되고 각지에서 무술련마놀이의 하나로 널리 진행되였다.

이처럼 평양지방의 수박, 택견, 날파람으로 불리워온 무술련마놀이, 민족무술은 치고 차고 막는 법을 익혀 적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적을 칠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유익하였다.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계승발전되여온 택견은 그 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양을 발상지로, 고향으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해방후 우리 인민의 민족적투지와 기백을 구현하고있는 태권도로 계승발전되였다.

이렇게 자기 민족무술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것은 평양의 자랑이며 민족의 자랑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것처럼 대동강문화의 중심지인 평양은 인류발상지의 하나로서 오랜 력사적기간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로 되여왔다.

그러므로 평양은 택견과 같은 민족정통무도가 창조되여 발전할수 있는 근본바탕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무술발전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었던것이다.

고구려에서 3월이면 평양의 드넓은 락랑언덕에서 사냥경기와 같은 국가적인 무술경기들이 널리 진행되고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봉건정부의 관심밑에 국가적규모의 무술경기들이 진행된 사실은 이 과정에 택견을 비롯한 무술의 강한 위력들이 보다 완성되여갔다는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천일록》을 비롯한 여러 력사기록들에서는 평양을 위주로 한 평안도지방의 무예가 정교하고 세련됨이 8도가운데서 제일 으뜸이라고 하면서 무술발전의 중심지로서의 평양의 지위를 높이 찬양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일상적인 무술련마놀이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완성된 민족무술의 변천과 함께 평양이 그 중심지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택견은 조선사람의 체질적인



활쏘기를 형상한 옛그림



약수리벽화무덤의 말타기장면

특성과 민족적성격을 반영하여 발차기위주의 무술로 발생발전하면서 특히 날래고 용감하며 강의한 평양사람들에 의해 그 전통이 계승되면서 완성되였다.

예로부터 고구려의 무술전통을 계승한 평양사람들을 두고 후세사람들은 맹호출림의 기상을 지닌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구려이래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 습득하여 그 풍속이 많이 변하게 되였고 그리하여 수나라, 당나라의 군력이 비록 왕성하였으나 이에 굴복하지 않으니 이를 통하여 그 날래고 용감하며 굳세고 강한 기풍을 알만하다고 하면서 평양사람들의 강한 성격과 기질, 고구려무술을 계승한 평양의 훌륭한 무술에 대하여 찬양하였다.

력대의 력사가들도 평양사람들은 고구려때부터 상무적기풍이 강하여 사람들이 날래고 용감하였으며 그것으로써 부강한 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평양지방에서 날파람있는 젊은이들이 수련하던 택견을 우리 민족정통무도 택견의 정수, 기본주류라는 의미에서 평양날파람이라고도 불렀던것이다.

그것은 날파람이 명칭 그대로 날래고 빠른 몸동작에 기초하고 높은 도약력에 의한 발차기를 특기로 하는 기술수법들을 실천에서 많이 활용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따라서 평양의 력사적인 지위로 보나 특기적인 택견동작을 보아도 평양지방의 날파람있는 택견이 민족정통무도 택견의 정수로서 기본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상무기풍이 강하게 반영되여있는 무술련마놀이의 하나인 택견은 평양의 력사와 더불어 발전하여온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무술련마놀이였다.

석전

석전(돌팔매놀이)은 고구려시기부터 놀아온 평양지방의 전통적인 정월명절놀이의 하나였다.

옛 기록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해마다 정초에 대동강가에서 떼를 지어 석전을 하였다고 한것으로 보아 그 연원이 매우 오래다고 볼수 있다.

석전은 중세시기 실지 싸움에 적용됨으로써 우리 나라 각 지방에 보급되여 하나의 풍습으로 오랜 기간 전해졌다.

석전은 지방에 따라 노는 시기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평양에서는 고구려의 전통적풍습을 그대로 계승하여 정월초에 놀았으며 그 이름도 석전이라고 불렀다.

평양의 석전은 내성밖의 넓은 벌판에서 놀았으며 남문동



《평양성도》에 그려져있는 석전장면

일대의 가막골패 또는 서윤패와 서문동일대의 서문패 또는 감사패사이에 벌어졌다.

석전은 설달 그믐날경부터 놀기 시작하여 대보름날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해의 막을 닫았다.

대보름날석전에는 평안감영의 세 아문의 장관 즉 평안감사(평양서윤), 평안중군까지 나와 관람하였다.

석전은 아침부터 시작하였는데 오전에는 먼저 아기석전이라 하여 소년패들이 역시 가막골패와 서문패로 나뉘여 대전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이것은 어른석전의 서막으로 되였다.

오후에 어른석전이 진행되였는데 그것은 저녁 해질무렵에 끝났다.

석전군가운데서 우수한자에게는 표창을 하였다.

평양석전군의 수는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해마다 한패에 400～500명이상 되였다고 한다.

각패의 응원군은 평양성 주민이 거의다 동원되다싶이 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군 하였다.

19세기의 그림인 《평양성도》에는 석전장면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여기에는 평안감사의 부임행차를 그린 곳에 돌팔매군들이 편을 갈라 겨루는 장면이 그려져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당시 평양돌팔매군으로 이름났던 박미력이라는 이름까지 밝혀져있다.

이러한 사실은 평양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돌팔매놀이를 많이 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렇게 석전은 평양주민들의 용감성과 대담성, 단결력과 필승의 투지를 반영한 민속놀이였다.

씨름

씨름은 두사람이 서로 마주 잡고 힘을 겨루며 기교를 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놀이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 일반화된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평양지방의 씨름은 수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온 전통적인 민족경기, 민속놀이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씨름은 원시인들이 짐승사냥이나 생산활동과정에 힘내기를 하던데서부터 생겨났으며 이 과정에 서로 힘을 겨루어보거나 그 수법을 익히면서 점차 체력단련놀이의 하나로 되여왔다.

씨름놀이장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것은 고구려의 무덤들인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있는 씨름무덤(4세기 말엽)과 같은 고장에 있는 장천 1호무덤(5세기 중엽)등의 벽화들이다. 그중에서도 씨름무덤의 씨름그림은 몸이 장대한 두사람이 서로 상대방



고구려무덤벽화의 씨름장면

의 어깨에 턱을 고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승부를 겨루고있는데 그 오른쪽에 나이든 한 사람이 지팽이에 의지하여서서 그것을 지켜보고있는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 그림은 삼국시기에 벌써 씨름이 엄격한 심판과 경기규칙, 승부를 가르는 법에 따라 진행되였으며 동시에 씨름의 오랜 력사적연원과 씨름의 발전수준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 있는 이러한 씨름의 형식은 18세기의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이 그린 《씨름》장면과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조선씨름이 삼국시기는 물론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씨름은 고려시기에도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고있었다.

고려에서는 씨름을 중요한 체력단련의 한 종목으로 여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생산활동의 휴식참과 명절을 계기로 씨름경기를 자주 조직하였다.

옛 기록들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씨름 잘하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하였으며 국가적으로도 씨름판을 크게 벌려 용사들을 선발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봉건왕조 초기에는 씨름 잘하는 사람을 력사라고 하였으며 갑사라는 무사들은 씨름을 통하여 선발하기도 하였다.



씨름

조선씨름은 일반적으로 다리에 살바를 끼고 진행한다.

살바를 어느쪽 다리에 매는가에 따라 왼씨름과 오른씨름으로 나누는데 왼씨름이 정상적인것으로 되여있다.

지난 시기의 씨름에는 선 상태에서 시작하는 선씨름, 작은 아이들이 진행하는 애기씨름, 좀 큰 아이들이 하는 중씨름, 젊은이들이 하는 상씨름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씨름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그리고 특별한 시설이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할수 있는 대중적인 놀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농민들은 농사일의 쉴참에 잔디밭우에서 씨름판을 벌리여 힘을 겨루군 하였다.

씨름은 강한 인내력과 장수힘을 키우는 놀이로서 씨뿌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여 농민들의 로동생활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었다.

체력단련놀이 씨름은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할수 있는 놀이였으나 봄씨붙임을 끝낸 때와 김매기를 끝낸 7월 백종날의 호미씻이놀이때 그리고 가을걷이를 앞둔 8월추석(한가위)명절때에 제일 많이 진행하였다.

평양에서는 민속명절날이 되면 영명사뜰이나 내성밖 넓은 공지에서 씨름판을 크게 벌리고 경기를 진행하였다.

씨름경기에는 황소를 상으로 걸고 경기를 진행하였기때문에 평양성안뿐아니라 주변의 여러 지방에서 한다하는 씨름군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씨름경기에서 이긴 씨름군에게는 꽃목걸이장식을 한 황소를 상으로 주었는데 이것은 지난날 농사에서 부림소가 제일 귀중하였던데로부터 튼튼한 몸으로 농사일을 더 잘 지으라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우리 민족의 씨름수법을 보면 크게 손수, 다리수, 몸통수 등 그 수법이 다양하다.

손수는 주로 손과 발을 써서 상대편의 무릎, 잔등, 목뒤, 다리 등을 치거나 밀고 당기며 젖히여 넘어뜨리는 수법이다. 이 수법

에는 무릎치기, 목죄기, 팔걸이, 다리당기기 등이 있다.

다리수는 다리와 발을 리용하여 상대편을 걸어당기거나 걸어서 뒤로 밀어 옆으로 돌면서 후려넘어뜨리는 수법이다. 이 수법에는 안걸이, 안걸이뒤집기, 빗장걸이, 호미걸이, 덧걸이, 무릎걸이, 안발차기, 왼발목치기 등이 있다.

몸통수는 주로 허리와 팔힘을 리용하여 상대를 궁둥이, 배, 가슴높이에 들어올려 몸의 균형을 잃게 한 다음 좌우로 돌리고 젖히면서 넘어뜨리는 수법이다. 이것은 씨름에서 가장 보기 좋고 많이 쓰이는 기교로서 주로 육체적준비가 갖추어진 선수들이 흔히 적용하였다. 조선씨름의 특기의 하나인 배지기는 이 수법에 속한다. 이 수법에는 궁둥배지기, 들배지기, 돌림배지기, 뒤집기, 접치기 등이 있다.

우의 수를 두가지이상 결합하여 상대편을 넘어뜨리거나 방어하고 반공격하는 재간을 쓰는것을 결합수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수법과 함께 여러가지 수법을 결합하여 수를 쓸수 있기때문에 씨름에는 수십가지의 수가 있다.

이러한 수법을 리용한 조선씨름은 특별한 기재가 없이 때와 장소, 대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미있게 놀수 있는것으로서 우리 인민이 오랜 옛날부터 사랑하며 즐겨온 체력단련놀이였으며 오늘은 민족경기의 하나로 널리 진행되고있다.

또한 조선씨름은 운동에서 몸이 상할 위험성이 없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며 사람들의 인내력과 투지, 팔다리힘을 키우고 신체단련과 체력향상에 유익한 민속놀이로 계승발전되고있다.

오늘 평양을 비롯한 전국의 공원, 유원지들에 마련된 씨름터들에서는 명절날과 쉬는날뿐아니라 일상적으로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씨름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있다.

평양에서는 민속명절 추석을 맞으며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성대히 진행되고있다.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평양지방에서 그 어느 지방보다도 광범히 그리고 흥겹게 진행된 민속놀이이다.

그네뛰기는 일정한 높이에 바줄을 매여 발판을 걸고 그우에 사람이 올라서서 두손으로 량쪽 동아줄을 쥔 다음 앞뒤로 굴러 높이 솟아오르는 놀이이다.

우리 나라에서 그네뛰기는 멀리 고대로부터 시작되고 삼국시기 고구려에서 민속명절날에 진행하였으며 고려시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였다.

리규보(1168～1241)는 민속명절날 녀인들의 그네뛰기에 대하여 오를 때는 달나라로 가는듯 하더니 돌아올 때는 사뿐히 선녀가 내리는듯 하고 줄을 차며 솟아오를 때는 손에 땀을 쥐지만 어느새 조용히 내리였는가고 노래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그네뛰기는 더 광범히 보급되였으며 경기방법도 구체화되였다.

《렬양세시기》에 의하면 젊은 남녀들이 그네놀이를 하는데 서울과 시골이 다 그렇지만 관서지방이 성하여 고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가지고 한곳에 모여 즐겁게 노는 것이 정월초하루날과 같다고 하였다.

이것은 평양의 그네뛰기가 매우 성황리에 진행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당시의 그네뛰기를 녀류시인이였던 허란설헌(1563～1589)은 이웃집 처녀들이 짝을 무어 그네뛰니 허리동인 모습이 선녀인듯 곱고 그네줄이 바람타고 하늘높이 올라가니 패물 부딪치는 소리가 숲우에서 들려온다고 노래하였다.

그네뛰기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어 근대시기에도 변함없이 계승되였다.

그네뛰기는 맞춤한 그네대와 동아줄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손쉽게 진행할수 있는 대중적인 놀이다.

그러므로 그네는 보통 경치좋은 곳의 큰 버드나무나 늙은 소나무의 알맞춤한 가지에 동아줄을 드리여 만들거나 일정한 장소에 두대의 큰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가름대를 설치한 다음 거기에다 그네줄을 늘여매여 설치하였다.

그네줄에는 앉을개를 얹어서 두발이 편안하게 놓이여 잘 구를수 있게 하였으며 부드러운 무명천으로 된 안전줄을 그네줄에 매여 두 손목에 감아 그네줄을 잡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뛰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구르고 챌수 있게 하였다.

그네줄의 길이는 대체로 9～10m정도로 하였다.

그리고 그네줄의 굵기는 재료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손아귀에 들게 하였다.

그네뛰기는 놀이로뿐아니라 기교를 겨루는 경기로도 많이 진행되였다.

그네뛰기경기의 승부겨루기에서 가장 일찍부터 적용된 방법은 그네를 뛰면서 앞의 일정한 높이에 매단 나무가지 또는 꽃가지를 발끝으로 차거나 입으로 무는것이였다.


그네뛰기를 형상한 옛그림

그후 점차 앞의 일정한 높이에 줄이 달린 방울을 달아놓고 그것을 오르면서 차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때 밑에서 줄을 조절하여 방울

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그네뛰기를 하여 솟아오른 높이를 측정해서 승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조선봉건왕조 초기에 벌써 널리 적용되였다.

그것은 그네를 뛰며 방울을 차는 모습을 형상한 15세기 사람 성현(1439～1504)의 시구절에 룡인양 나는듯 그네줄을 잡더니 어느덧 반공중에서 쇠방울소리가 난다고 한 표현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그네를 잘 타는 모습을 읊은 시로서 하늘높이 매단 쇠방울을 차는 경기방법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네를 뛰는 방법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뛰는 외그네와 두사람이 함께 타고 마주 향하여 뛰는 쌍그네 또는 맞그네도 있었다.

그네뛰기경기는 그후 근세에 들어오면서 그네를 뛸 때 발판밑에 눈금을 표시한 줄을 매여놓고 그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재는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그네뛰기는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다 하였으나 특히 서북지방에서 성황을 이루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평양의 그네뛰기가 유명하였다.

평양의 녀인들은 민속명절날이 되면 창광산과 모란봉에 올라 아름드리나무가지에 휘영청 늘어지게 그네줄을 매놓고 이곳저곳에서 날가는줄도 모르고 그네뛰기놀이를 하였다.

그 유래가 오래고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그네뛰기는 녀성들의 전신운동에 좋고 몸동작을 익혀주는 경쾌하고 신바람나는 놀이로서 오늘도 평양에서 널리 진행되고있다.

널뛰기

널뛰기는 두사람이 각각 널판 한끝을 밟고 마주서서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올랐다가 널판을 힘있게 구르는 장쾌하고 약동적인 놀이로서 전국적인 풍습으로 오늘까지 전해온다.

평양에서도 정월명절이 되면 앞집, 뒤집의 처녀들이 명절옷차림을 하고 모여와 명랑한 널뛰기노래에 맞추어 솟구쳐 올랐다가 널판을 힘있게 구르며 널뛰기를 하였는데 그 발랄한 모습은 설명절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널뛰기노래에 맞추어 몸자세를 바로잡으며 쿵쿵 널판을 힘있게 구르는 용감하고도 장쾌한 모습은 봉건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기백이 넘쳐흐르고있다.

평양지방에는 아기널과 어른널이 있었는데 아기널은 널판이 작고 대체로 12~13살 나는 어린 처녀애들이 노는 널을 말하고 어른널은 시집가기 전의 처녀와 갓 결혼한 새색시들이 뛰는 널을 이르는 말이였다.

널뛰기방법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높이 뛰여오르기와 실수



널뛰기

없이 오랜 시간 뛰기를 겨루는 방법으로 하였다.

동시에 잘 뛰는 녀인들은 여러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널뛰기를 하였다. 이때 뛰여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것이 아니라 몸을 한바퀴 핑 돌고 내려와 제자리에 쿵 하고 구르는데 이것을 대사리라고 하였다.

또한 높이 뛰여올라 발을 앞으로 쭉 폈다가 내려오기도 하며 두 발을 량옆으로 폈다가 다시 모두면서 내려오기도 한다. 그리고 높이 뛰여올라 허리를 뒤로 한번 제꼈다가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중둥꺾기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 널뛰던 녀자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 땅우에 떨어지면 구경군들은 웃음을 터뜨리였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경기를 계속하였다. 녀인들은 빙 둘러서서 널뛰기를 구경하다가 뛰던 한쪽 사람이 실수하여 널판에서 떨어지거나 힘에 부치여 자리를 내주면 교대하여 널뛰기를 하였다.

이렇게 널뛰기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흥겹고 유쾌한 녀성들의 민속놀이의 하나로서 공간에서의 몸 균형잡기, 률동에 대한 숙련, 힘키우기 등에 유익하였다.

윷놀이

윷놀이는 옛날부터 설명절때마다 우리 인민이 즐겨하는 좋은 오락의 하나이다.

윷놀이는 가락을 던져서 나오는 수에 따라 말을 움직이며 노는 지능겨루기놀이의 하나로서 오랜 옛날부터 설명절때마다 우리 인민이 즐겨 놀아온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윷놀이는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다 손쉽게 놀수 있는 대중적인 놀이로서 그 연원은 고대로 거슬러올라간다.

그것은 윷놀이에 쓰이는 모, 윷, 개, 도와 같은 이름들이 고대

부여의 관직명칭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아지기때문이다.

고대 우리 인민들속에서 즐겨 논 이 윷놀이는 우리 인민들의 농업생산활동과정에 발생한 흥미있는 놀이였다.

일찌부터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업생산활동을 진행하여온 우리 인민들은 농사의 흉풍과 자기들의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농사에 큰 힘을 기울이였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낮은 의식수준과 과학이 발전되지 못하였던 사정은 그들로 하여금 농사의 흉풍이 그 어떤 하늘신이나 땅신, 또는 자연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고방식이 머리속에 지배하게 하였으며 이로부터 모든 정신생활에서뿐아니라 놀이에도 그것이 반영되게 하였다.

고대 우리 인민들이 창조한 윷놀이판과 윷가락의 모양은 하늘과 땅을 상징한 둥근것과 모난것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윷판의 자리길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별자리를 본따서 28수를 상징하고있다.

이것은 농업생산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관념에 기초하여 자연세계를 상징한 윷놀이판과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리용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고대에 발생한 윷놀이는 삼국시기 고구려인민들속에서 널리 진행되였다.

고구려벽화무덤인 3319호 무덤앞의 비석에 새겨진 윷놀이판 그림은 이 놀이가 당시 광범하게 진행되였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윷판모양의 도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4개칸으로 나누어져있으며 29개의 홈구멍으로 이루어진 도형모습을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28수(별자리)를 나타낸것으로서 윷놀이판 도형과 같으며 이 도형을 리용한

놀이가 고구려에서 진행되였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윷놀이에 천문지식이 반영되여있다는것은 우선 윷놀이도구의 하나인 말판을 통하여 알수 있다.

14세기 사람인 리색의 시에 윷놀이장면을 구수하게 읊은 내용과 함께 《단단 4.7방원국》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윷판의 점인 방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그려진 28개의 점을 말한것이며 고려시기에 29밭으로 된 윷판도형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이 기록에서 보는바와 같이 윷판에는 가운데점인 방을 중심으로 28개의 점이 있는데 이것은 별자리들을 표시한것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16세기 사람인 김문표가 쓴 《중경(개경－필자)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론하였다.

즉 윷판의 중심을 추성(북극성)으로 놓고 나머지 28점은 28수(宿)에 비유하였으며 윷놀이에서 종착점으로 가장 짧게 들어오는 길이 동지이고 가장 멀리 돌아서 들어오는 길이 하지이며 절반을 돌아 들어오는 길이 춘분과 추분을 상징한다고 해설하였다.

28수는 하늘의 해길과 적도부근에 널려있는 천체들을 28개의 별자리로 나누고 거기에 붙인 고유한 이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천문관측에 28수를 써왔다.

즉 달이 해길부근의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운동하면서 하늘을 한번 도는 주기가 28일가량 된다는데 기초하여 28수가 나왔다.

28수에 의하여서는 태양, 행성, 달, 혜성, 별찌들의 자리를 표시할수 있을뿐아니라 계절을 판정할수도 있다.

우리 선조들은 저녁이나 새벽에 어느 수(별자리)가 자오선을 지나는가에 의하여 계절을 알아냈다.

그러므로 28수를 4개 구역으로 크게 나누면 매개 구역에 7개

의 수가 들어갔다.

《목은집》에 쓴 4.7방원국이라는것은 바로 이것을 표현한것이였다.

19세기 중엽 리규경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도 윷판의 가운데점은 추성(북극성)을 상징하고 주변에 배렬된것은 4개의 7수를 상징한것이니 사방 각기 7수가 있어 4시를 운행하는 의미라고 하였다.

윷판도형에는 이와 함께 계절을 판정하는데 리용한 28수와 동지로부터 시작하여 해길을 등분하는데서 기준점이라고 할수있는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이 표기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천체의 운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있었을뿐아니라 그것을 도형화하는데서도 기발한 착상을 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윷놀이는 삼국시기에 이어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작성된 윷가락, 윷말판 그리고 여러가지 윷놀이방법 등 윷놀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이 오늘까지도 전하여온다.

《동국세시기》12월조에서는 싸리나무 두가치를 네쪽으로 짜갠것을 윷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세치가량 되게 하거나 혹은 작기를 콩알만큼씩 하여 던지면서 노는것을 윷놀이라고 한다, 윷을 던져서 네쪽이 엎어진것은 모, 네쪽이 젖혀진것은 윷, 두쪽이 엎어지고 두쪽이 젖혀진것은 개라고 한다, 윷밭은 스물아홉밭을 그리고 두사람이 마주 앉아 던지는데 각각 말은 네개씩을 옮겨가되 도는 한밭씩 가고 개는 두밭씩 가며 걸은 세밭씩 가고 윷은 네밭씩가며 모는 다섯밭씩 간다, 윷밭에는 돌아가는 길과 빠른 길이 있고 말은 빠르고 더딘 구분이 있음으로 하여 승부를 판단하게 되였다, 정초에는 이런 놀이

가 제일 굉장하다고 하였다.

윷놀이는 예로부터 설명절을 계기로 많이 하였는데 대체로 편을 갈라 승부를 겨루군 하였다.

윷에는 가락윷, 밤윷, 콩윷, 팥윷 등이 있었는데 평양지방에서 가장 많이 논것은 팥윷이였다.

윷놀이는 남녀로소가 다 놀았는데 두편으로 갈라서 여러명이 놀기도 하고 단둘이 놀기도 하였다.

그 승부를 겨루는 방법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말판을 사용하여 말이 먼저 말밭을 통과하여 나오면 이기는데 대체로 네개의 말을 썼다.

평양지방의 윷놀이는 섣달 그믐날부터 시작하여 정월대보름까지 노는데 때로는 정월 한달내내 놀기도 하였다.

이렇게 윷놀이는 농업생산과 련관되여 인민성이 풍부하면서도 그 놀이방법이 소박하고 단순하며 흥취가 있으면서도 대중적 성격을 띤 지능겨루기놀이였다.

바둑

평양사람들은 바둑놀이도 널리 진행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21대 개로왕(455～475)이 쌍륙과 바둑두기를 좋아하던 나머지 고구려 장수왕(413～491)이 파견한 중 도림과 바둑두기에 여념이 없다가 나라의 기밀이 새여나가고 국력이 쇠약해져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였다는 고사가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정하고 삼국통일을 추진하던 때에 있었던 사실로서 평양사람들의 바둑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한다.

바둑은 서로 바둑돌을 하나씩 놓아가며 두는 놀이로서 그 수가 많고 다양하여 사람들의 사고력을 키우고 지혜와 재능을 계발

시킬뿐아니라 전투정신배양에도 좋다.

때문에 바둑은 일찍부터 군사들이 전술을 익히는 수단의 하나로 많이 리용되여왔다.

력사기록들에는 바둑이 혁, 기, 위기 등 여러가지로 표기되여있다.

바둑판은 보통 오동나무와 같은 가벼운 나무판자로 만들었는데 한변이 약 50cm정도인 정방형의 나무판을 높이 30cm정도 되는 네모진 통우에 고정시키고 통안에 가는 쇠줄을 늘여 바둑돌을 놓을 때마다 《치르렁 치르렁》하는 소리가 나게 하여 노는 사람들의 흥취를 더 한층 돋구었다.



바둑을 형상한 옛그림

바둑판우에는 원래 가로세로 같은 간격으로 각각 17줄씩 먹줄을 그어 가로줄과 세로줄의 교차점이 289개가 되게 하였으나 후에 두줄씩 더 늘여서 19줄로 되게 하였다. 때문에 오늘의 바둑판 가운데와 네면의 세번째줄 중간마다에는 각각 5점의 꽃점(화점)을 그려놓았다.

바둑돌은 바둑판의 361개 교차점들을 메울수 있게 흰돌과 검은돌을 각각 180여개씩 준비하였는데 돌의 크기는 대체로 직경이 1cm정도의 둥글납작한것들이였다.

바둑에는 여러가지 노는 방법과 규칙들이 있으나 대체로는 서로 엇바꾸어가며 바둑돌을 한개씩 놓아 상대방의 진지를 포위하

는것이 일반적이였다.

그리고 바둑돌은 년고자백 또는 수고자백이라 하여 관습상으로 나이가 많거나 바둑수가 높은 사람이 흰돌을 쥐며 나이가 어리거나 수가 약한 사람은 검은 돌을 쥐되 먼저 쓰게 되였다.

바둑놀이는 판과 바둑돌만 있으면 쉽게 할수 있는 놀이로서 지난날 근로하는 인민들속에서도 많이 진행되였다.

바둑은 오늘도 계승되여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한층 더해주고있으며 무도의 한 종목으로 되여 국제경기들에서 조선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연띄우기

평양에서 연띄우기는 어린이들의 흥겨운 정월명절놀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연띄우기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여있는것으로 보아 그 연원이 매우 오래며 평양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평양해방을 위한 싸움에서 연을 리용한 계월향의 애국적소행과 더불어 평양인민들과 뗄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져있다.

1592년 왜적이 평양성을 강점하였을 때 관기로 있던 계월향은 을밀대에서 김응서장군에게 연을 띄워 적정을 알려줌으로써 평양성해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평양의 어린이들은 연에 담겨진 이러한 이야기와 더불어 정월이 되면 연띄우기노래를 부르면서 추운줄도 모르고 대동강반에서 연을 띄웠다.

평양의 어린이들이 부르던 연띄우기노래는 다음과 같다.

연아 연아 올라라
솔개같이 올라라
구름같이 올라라
하늘같이 올라라

평양에서 띄우던 연에는 크게 네모연과 가오리연이 있었다.

네모연은 어린이들의 솜씨에 따라 크고 작은것이 있었는데 큰것은 문짝만한것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연에 꼬리도 달고 종이로 수염도 만들어 다는 등 여러가지 장식을 하였다.

연띄우기는 초하루명절부터 시작하여 대보름날까지 많이 하였다.

대보름날 저녁에는 평양을 자랑하는 글인 《해동나라에서 평양부가 제일일세》라는 글과 함께 액막이라 하여 연에다 여러가지 액막이글 즉 《물에 빠질 액은 흘러가라》, 《거리에서 다칠 액은 달아나라》 등의 글을 쓰거나 연의 머리부분에 호랑이, 사자, 귀면 등을 그리고 연의 한쪽 모서리에 연임자의 이름을 써넣었다.

그다음에는 연줄에 솜뭉치를 매달아 불을 붙인 다음 연을 띄웠다.

그러면 하늘높이 날아올랐던 연은 연줄이 불에 타서 끊어지면서 멀리로 날아가버리였다.

여기에는 그해의 불행으로 되는 모든 나쁜것을 연과 함께 멀리 날려보낸다는 의미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는듯 한 랑만과 포부를 안고있는 어린이들의 소박한 동심세계가 그대로 반영되여있었다.

이와 같이 평양에서 진행된 민속놀이들은 산좋고 물맑은 평양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취미와 기호, 정서에 맞는 유익하고 흥겨운 놀이들로 일관되여있었다.

가정의례

혼례



상례

제례

혼례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 결합되는 사회적현상의 하나로서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혼인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어른으로 인정받은 사정과 관련된다.

지난 시기에는 혼례를 치르어야 비로소 어른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혼례를 치른 후에는 자연히 어른으로서 도덕적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부모들도 자식들의 혼례를 치르어 주고나면 그들을 어른으로 키워냈다고 자부하게 되였다.

혼례는 혼담을 교환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새서방과 새각시집사이에 중신아비(일명 중매비)가 오가면서 혼담을 교환한 다음 남자집에서 먼저 처녀의 선을 보았는데 이것을 간선이라고 하였다. 간선이 끝나면 정식으로 청혼을 하였다.

그후 청혼편지와 허혼편지를 서로 교환하였는데 이것을 혼서교환이라고 하였다.

새서방집에서는 혼례식날자를 정하여 새각시집에 알리였는데 이것을 택일이라고 하였다.

새각시집에서 이 택일에 대하여 길흉을 맞추어보고 좋다는 의사를 새서방집에 알리면 이것으로써 혼례식날자까지 결정되여 약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였다.

궁합을 맞추어보거나 택일하는 풍습은 다 사람의 운명이 그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의하여 미리부터 정해져있다고 보는 미신적인 숙명론에 근거한 뒤떨어진것이였다.

다음은 혼례식을 앞두고 새서방집에서 먼저 례장을 례장궤(남부지방에서는 례장함이라고 한다.)에 넣어서 새각시집에 보내는데 그 례장은 생활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보통 새각시의 치마저고리, 이부자리감이였다.

평양에서는 간혹 밤에 사람이 례장궤를 등에 지고 앞에 초롱불을 밝히며 새각시집으로 가는 풍습도 있었다.

례장궤를 가지고 간 사람은 길이 멀면 새각시집에서 자고 오지만 대체로 그날밤으로 돌아오는것이 상례로 되여있었다.

례장을 받은 새각시집에서는 그 답례로서 혼례식전에 새서방의 옷과 이부자리를 만들어서 새서방집으로 보내였다.

이것으로써 혼례식준비는 끝나며 결정된 날자에 혼례식을 진행하였다.

혼례식은 새각시집에 가서 하였는데 나무기러기를 가진 사람이 앞서고 다음에 새서방이 말을 타고갔으며 그뒤에 후행이 따라갔다.

평양지방에서 후행(손우수라고도 한다.)은 대체로 새서방의 할아버지나 삼촌, 사촌형이 따라가는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였다.

새서방일행이 새각시집에 도착하면 새각시집에서는 먼저 나무기러기를 받아 쌀함지우에 놓고 새서방과 새각시의 백년해로를 축원하였다.

전안은 기러기가 짝을 무어 한생동안 의좋게 사는 새라는데로부터 그것을 부부간의 믿음과 화목, 정절의 상징으로 믿던데서 생긴것이였다.

따라서 전안은 새서방이 가시부모에게 그 집의 딸을 안해로 맞아들여 검은머리 파뿌리되도록 백년해로하겠다는것을 서약하는 의미에서 진행된것이였다.

새서방과 후행은 일단 사랑방이나 이웃집에서 휴식을 한 후 새서방은 사모관대를 갖추고 새각시는 큰 낭자를 틀고 그우에 족두리를 쓰며 5색동다리라삼을 옷우에 입고 흰 갑사로 만든 한삼으로 손을 가리우고 혼례식장으로 나와서 서로 마주 선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혼례옷을 보면 새서방

은 혼인잔치때에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다음 사모관대를 하였는데 이것은 사모라는 모자를 쓰고 단령이라는 관복을 입으며 과대라는 각띠를 띤 차림새였다.

새각시는 초록색저고리에 다홍치마를 받쳐입은 록의홍상차림에 칠보단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원삼 또는 활옷과 같은 아름다운 겉옷차림에 칠보족두리를 쓰고 큰 비녀를 꽂은 차림새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혼례옷차림에 따라 평양에서도 혼례때에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옷을 입고 혼례식에 맞는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혼례식장에 들어섰다.

혼례식장에서는 새서방과 새각시가 처음으로 만나 마주절을 하는 상견례와 조롱박잔에 술을 부어 나누어 마시는 합근례가 진행되였다.

이때 서동부서라 하여 새서방은 동쪽에, 새각시는 서쪽에 서서 마주하였다.

먼저 새각시가 2배, 새서방이 1배를 하며 다시한번 새각시가 2배, 새서방이 1배를 하는것으로써 혼례식이 끝났다.

혼례식이 끝나면 이어 새각시는 안방으로 건너가고 새서방은 따로 큰상을 받았다.

이때 새각시는 새서방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새각시의 가족


칠보단장 사모관대

과 친척들이 참가하였다. 그러던것이 조선봉건왕조말에 이르러 근대화과정이 촉진되면서 새서방과 새색시가 나란히 앉아 상을 받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였다.

이때에도 그들이 앉는 위치는 서동부서의 규범을 따랐다.

새서방이 큰상을 물린 다음 새각시집에서는 새서방집에 혼례음식을 보내였다.

새서방집에서는 그 음식으로 먼저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지낸 다음 친척들사이에 나누어먹었다.

그날 저녁 새서방은 새각시집에서 자며 이때 비로소 새각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양지방에서는 첫날밤이 지나면 통상례라 하여 새서방과 새각시켠 친척들사이에 인사가 교환되였으며 통상례가 끝나면 반살기(반살미)라 하여 친척들이 새서방을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

반살기는 친척들이 새서방에게 집구경도 시키고 서로 낯을 익히면서 정을 두텁게 하기 위한데서 생긴 풍습이였다.

새서방은 새각시집에서 보통 3일동안 머무르는데 이 기간에는 마을의 청장년들이 저녁마다 몰려와 자기 마을의 다 자란 처녀를 데려가는 대가로 술과 고기를 내라고 하는 끈질긴 새서방다루기장난의 성화를 받아야 하였다.

이때 장모는 술과 고기를 장난군들에게 대접하며 새서방을 세괃게 다루지 않도록 간청을 하여 웃음판을 터친다.

새서방은 3일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며 새서방집에서는 다시 좋은 날을 정하여 새각시를 데려오는 잔치를 하였다.

새각시잔치에 앞서 사위되는 새서방이 가시부모를 비롯한 가시집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말을 타고 떠나면 새각시역시 친정을 떠나기에 앞서 부모님들에게 큰절을 하였다.

새각시가 새서방을 따라 시집가는 신행행렬에 대하여 《경도

잡지》에는 새각시는 황동꼭지8인교에 네면으로 발을 드리운것을 타고 네쌍의 청사초롱과 안보를 앞세우며 12명의 녀자종이 대추, 건포, 옷함, 경대 등을 머리에 이고 부용향을 받쳐들고 고운 단장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쌍을 지어 길잡이로 서며 유모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장옷을 쓰고 말을 타고 뒤따르며 또한 관방하인들로 전후좌우를 옹위한다고 기록되여있다.

새각시잔치는 큰상받기, 사당배례, 구고례의 차례로 진행되였다.

큰상받기도 원래 새각시 혼자서 받았으나 근래에 와서는 새서방, 새각시가 나란히 앉아서 상을 받았다.

이때에도 그들이 앉는 위치는 서동부서의 규범에 따라 새서방은 동쪽에, 새각시는 서쪽에 자리잡았다.

새각시가 큰상을 받을 때 그의 일행들인 상객이나 손우수들도 따로 상을 받기도 하였다.

평안도를 비롯한 북부조선지역에서는 둘러리밖에 인접이라 하여 시켠의 젊은 며느리들이나 딸들이 다홍치마와 람색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칠보족두리를 쓴 차림으로 새각시와 나란히 앉아 큰상을 받았다.

이러한 인접을 잔치먹는 새색시라 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전반적지역에서는 새각시의 큰상받기가 끝나면 사당배례라 하여 새며느리를 맞아들였다는것을 조상들에게 아뢰이는 의례절차를 거쳐 구고례를 하였다.

구고례때에는 정해진 장소에 시부모가 나란히 앉되 구동고서, 남동녀서의 원칙에 따라 시아버지는 동쪽에, 시어머니는 서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때 새각시는 안내를 받아 먼저 시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 폐백을 드렸다.

새며느리가 구고례때에 폐백을 드렸기때문에 폐백례라고도 하였다. 구고례가 끝나면 혼인잔치는 끝난다.

혼례음식은 일상음식과는 달리 혼인잔치때에 특별히 갖추는 음식으로서 예로부터 고기와 술을 혼례음식의 필수품으로 일러왔다.

혼례음식은 잔치상에 오르는것과 손님을 대접하는것이 달랐다.

잔치상에 오르는 음식에는 교배상에 오르는 음식과 큰 상에 오르는 음식이 달랐는데 교배상에는 부부결합의 상징적의의를 부여하는것(한쌍의 닭, 밤, 대추, 곶감, 초대, 송죽 등)들을 올려놓았고 큰상에는 과줄, 떡류, 과일류, 닭 등 맛좋고 고급한 음식을 여러 줄로 대칭되게 놓았다.

혼례음식으로는 입매상 또는 어안상이라 하여 새서방, 새색시가 먹는 음식상을 따로 차리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지방에 따라 국수, 떡국, 온반 또는 밥과 국을 올려놓기도 하였다.

손님대접을 위한 음식으로는 고기, 술, 국수 등을 일러왔다.

새각시는 새각시잔치를 한 다음 대체로 3일간 출입하지 않았다.

잔치가 끝난 다음 새서방은 새각시와 같이 음식을 차려가지고 가시집을 찾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새각시를 맞이한 다음 새서방의 친척들은 새각시에게 집구경도 시키고 서로 낯을 익히기 위하여 역시 새각시를 초청하여 반살기를 차려주었다.

우에서 본것이 평양지방에서 전해져온 혼례풍습이였는데 그것도 생활형편에 따라 륭숭하게 또는 수수하게 하였다.

이처럼 평양의 혼례는 가정의례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전통적인 우리 인민의 혼례풍습을 따르면서도 지방에 따르는 일련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진행되여왔다.

혼인잔치는 오늘도 혼례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시대적요





결혼풍습

구에 맞게 계승되고있다.

새살림준비에서 례장과 자장의 페풍이 없어져가고 신랑, 신부집에서 새살림을 시작하는 자식들에게 옷과 이부자리, 옷장과 부엌세간을 갖추어주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신랑잔치와 신부잔치를 따로 하기도 하지만 두집이 의논하여 한곳에서 하기도 한다.

혼인잔치에서 전안, 교배와 같은 허례허식이 없어지고 일가친척 여러명이 신랑신부를 따라가던 페풍도 없어져가고있다.

결혼식때에는 뻐스, 지하전동차, 승용차 등 현대적인 교통수단을 리용한다.

상 례

상례란 죽은 사람을 일정한 의례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의식을 말한다.

상례는 4례(관례, 혼례, 상례, 제례)중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시해온 가정의례의 하나였다.

평양지방에서는 상례를 장례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상례에서 기본인 시체의 마감처리가 장례에 의하여 끝나기때문이다.

상례풍습은 지방에 따라 얼마간 차이는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비슷하였다.

평양지방의 상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부모가 병으로 숨을 거두기 전이면 림종이라 하여 그 아들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효성을 다하기 위하여 손과 발을 주무르고 입에 청주(꿀물, 밀수국이라고도 한다.) 또는 미음을 떠넣어주었다.

숨을 완전히 거두게 되면 손발을 몸에 가지런히 붙여놓고 방

한쪽에 가로 눕히고 병풍을 쳐서 시체가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때 고양이가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죽은 후 7～8시간이 지나면 초혼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옷을 흔들면서 택호(본이름을 부르는것을 피하고 벼슬이름이나 자, 호 또는 고향명을 붙여 지은 그 집의 이름)를 세번 부른 다음 옷은 지붕우에 던져둔다.

이것은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것을 표시하는 동시에 죽은 사람의 령혼을 불러들인다는데로부터 생긴 미신적인 풍습이였다.

초혼이 끝나면 사자밥을 차려서 뜰앞에 놓는다.

사자밥은 저승으로부터 죽은 사람의 령혼을 찾으러오는 사자를 대접하는 밥이라고 한다.

평양에서는 보통 죽은지 하루만에 소렴이라 하여 죽은 사람의 손과 발, 얼굴을 깨끗히 닦은 다음 시체를 칠성판우에 눕혀놓았다.

소렴이 끝난 다음날 상주와 가까운 친척들은 해당한 상복을 입고 대렴을 하였다.

대렴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의식이다.

대렴이 끝난 다음에 장례를 지내는데 그것은 생활형편에 따라 3일장, 5일장, 7일장 또는 그 이상 더 오래있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장례날은 반드시 홀수날(기수)을 택하였다.

장례전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상식(제사상)을 떠놓고 상주와 친척들이 곡을 하였다.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는것이 일반적이였다.

장례날에는 발인제를 간단히 지내고 산에 가서 매장을 하는데

그 장례식절차는 다른 지방과 같았다.

즉 장례기일은 대체로 3일장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상여가 묘지에 도착하면 관을 상여에서 림시로 내려놓았다가 구덩이가 준비되는 차례로 묻었다.

무덤앞에는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표식물로서 나무 또는 돌로 만든 비를 세우고 상돌을 놓았다.

그리고 소나무 등 보기 좋은 나무들을 심어 무덤이 자연경치에 어울리도록 하였다.

제 례

제례는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하여 지내는 의례로서 여기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위하려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이 비껴있다.

사람은 인연관계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례절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것이다.

제례는 시체를 처리하는 상례때에도 하였지만 장례후 여러가지 이름밑에 진행되였다.

평양에는 여러가지 제사가 있었으나 조상에게 하는 제사로는 집제사와 묘제가 있었으며 그 형식은 다른 지방과 류사하였다.

집제사는 년중 민속명절때마다 하였으나 생일제는 3년상안에서 죽은 사람의 생일을 맞으며 지내였다.

성묘는 청명과 추석때에 하였는데 평양에서는 청명을 맞이하여 무덤을 손질하거나 무덤을 이장하였다.

추석에 조상의 묘지를 찾아 성묘하는것은 당연한 년중행사였으며 이날에 음식을 차려가지고 가서 무덤을 손질하고 제사를 지내였다.

이외에 평양에서는 숭령전제사, 동명왕사제사, 숭인전제사, 문묘제, 서원제, 의렬사제, 도성황제 등이 진행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상제례의 허례허식적인 요소들이 극복되고 간소하면서도 경건하게 진행되고있다.

장례는 대체로 3일장으로 하며 영결식은 령구를 보내기 전에 하기도 하고 묘지에 가서 무덤을 쓰기 전에도 한다.

주검처리에서는 매장을 하지만 점차 화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제사는 돌아간 날 전날 저녁의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이때 가족, 친척, 친우들과 가까이 지내던 혁명동지들이 모여 고인이 생전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일해온데 대하여 회고하며 그가 못다한 일을 대를 이어 계속 해나가겠다는 마음속의 결의를 다진다.

조상전래의 풍습대로 한해에 한두번정도 묘를 돌아보는데 봄(청명), 가을(추석)에 떼를 입히고 벌초도 한다.

무덤을 손질한 다음 꽃묶음을 놓고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을 하거나 절을 한다.

맺 는 글

근세까지 전해온 평양지방의 민속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거의 모든 풍속들의 유래가 매우 오래다는것이다.

대부분의 풍속들은 고조선 및 고구려의 풍습들에 시원을 두고있다.

이것은 평양지방이 유구한 우리 나라 민족문화와 풍습의 중심지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다음으로 그것은 평양지방의 적지 않은 풍속들이 기후적특성을 고려하여 추위를 막기 위한데 특별한 관심이 돌려지고있는것이다.

평양주민들은 겨울옷을 지어도 솜을 두툼하게 두고 풍만하게 만들어입었으며 집을 짓고 문을 하나 내도 추위를 막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또한 평양지방의 민속은 인민들의 독특한 상무적기질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명절놀이들가운데는 석전을 비롯하여 씩씩하고 용감한 기상을 보여주는 무술놀이들이 많았으며 떡을 빚어도 큼직큼직하고 푸짐하게 만들어먹었다.

이러한 민속들은 바로 평양지방 인민들이 예로부터 간직해온 품성 즉 용감하고 대범하며 순박하면서도 강직한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지난날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지방 사람들의 기질을 맹호출림에 비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평양의 민속

집필: 조 광

편집: 김광수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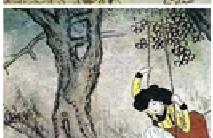
발행: 주체105(2016)년 5월

ㄱ-683546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ISBN 978-9946-0-1440-1

조선 · 평양
주체105(2016)년